

▷ ▷ ▷ manifesto • Deliberative Democracy • Citizen jury

— 민선 8기 공약실천계획수립을 위한

2022 광주광역시 시민배심원 회의 운영 결과 보고서

— 2022. 11.



광주광역시
GWANGJU CITY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C / O / N / T / E / N / T / S

2022 광주광역시 시민배심원 회의 결과 및 권고안 요약문 1

- 1. 회의 개요 3
- 2. 추진방향 및 진행과정 5
 - 가. 추진방향 5
 - 나. 진행과정 6
- 3. 심의 안건에 대한 최종 결과 8
 - 가. 주요 공약사업 평가 (개선방안 제시) 8

제1장 들어가며 11

- 1. 광주광역시 시민배심원 운영 배경 13
- 2. 시민배심원 운영 목적 및 방향 15
- 3. 시민배심원 운영 개요 17
 - 가. 추진방향 17
 - 나. 시민배심원 회의 개요 18
 - 다. 심의 안건 선정 및 심의 방법 18

제2장 시민배심원 운영 절차 19

- 1. 시민배심원 운영 기조 및 흐름 21
- 2. 시민배심원 운영 지원 조직 23
- 3. 시민배심원 모집 절차 24
- 4. 시민배심원 예비회의 및 본회의 31

제3장 시민배심원 운영 결과 39

1. 시민배심원 최종 심의 결과	41
가. 주요 공약사업 평가 (개선방안 제시)	41
2. 분임별 안건 설명 및 질의응답	44
가. 1분임	45
나. 2분임	64
다. 3분임	84
라. 4분임	97
마. 5분임	114
3. 분임별 토의 내용 및 결과	129
가. 1분임	129
나. 2분임	138
다. 3분임	144
라. 4분임	153
마. 5분임	159

제4장 시민배심원 활동 후기 169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77

부록 181

1. 1차 회의 교육자료	183
2. 3차 회의 교육자료	192



**광주광역시 시민배심원
회의결과 및
권고안 요약문**



2022 광주광역시 시민배심원 회의 결과 및 권고안 요약문

(2022년 11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는 주권재민 실현을 위해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실천계획 수립 과정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공약실천계획 점검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시민배심원단 구성을 제안함.

또한, 인구비례에 의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시민배심원단을 구성(직접민주주의 방식)하여 지역의 모든 구성원이 공약실천계획서 점검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권고하였음.

광주광역시에서 매니페스토본부에 의뢰하여 인구비례에 의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시민배심원단을 구성함. 1, 2차 예비회의를 통하여 배심원 교육, 공약사업 설명회 등을 실시하였고, 3차 본회의에서 심의 안건에 대한 토의 및 투표를 거쳐 회의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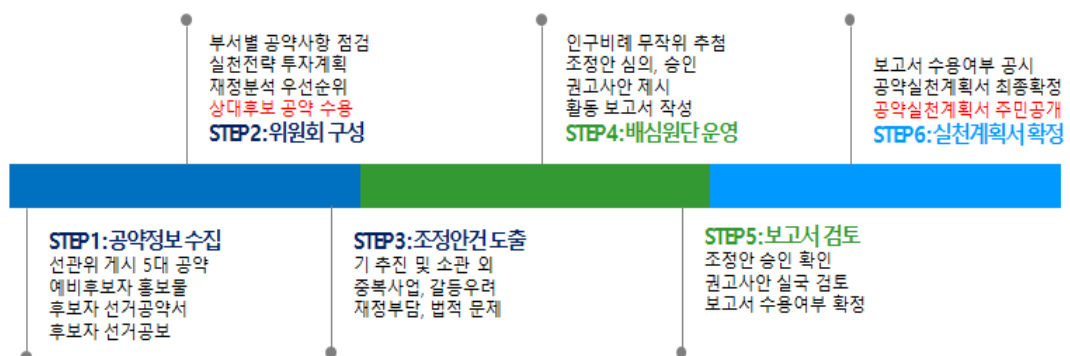
매니페스토본부는 배심원단 심의 결과 및 권고 의견을 광주광역시에 전달하고, 2022년 11월 내에 심의 결과 공표와 배심원단 권고 의견 수용여부 공시를 제안함.

1. 회의 개요

- 회의명 : 민선 8기 공약실천계획수립을 위한 2022 광주광역시 시민배심원 회의
- 기간 : 2022년 10월 4일(화), 10월 19일(수), 11월 2일(수)
- 대상 : 광주광역시 거주, 또는 재직 중인 만 18세 이상 시민
- 인원 : 시민배심원 55명
- 주최 · 주관 : 광주광역시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 심의내용 : 민선 8기 광주광역시 공약실천계획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17건)

■ 배심원 회의목적

- 제8회 동시지방선거는 디지털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치러졌던 ‘정초(定礎)선거’ 성격이 강했으나 지방선거 프레임이 국정 안정론과 정권 견제론으로 흘러가면서 상대적으로 정책검증이 소홀하였음.
- 이와 같은 이유로 당선자 인수위 및 위원회 활동이 선거공약을 기반으로 민선 8기 추진 정책을 가다듬는 것을 넘어서 많은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는 이유로 새로운 정책을 마련하거나 선거공약 파기를 시도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선거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입법과 재정이 필요한 정책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천계획의 마련 과정에서 얼마든지 조정될 수 있으나, 지역시민의 승인 없는 일방적 파기나 수정은 헌법정신과 대의민주주의, 정책선거 노력을 훼손하는 행위임.
- 선거에서의 공약은 고용계약서이며 공약을 중심으로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대의민주주의임. 지방자치의 요체인 주권재민 실현은 소수 전문가 위주의 행정참여를 개선하여 지역의 문제를 가장 가까이에서 체감하고 있는 시민들의 참여와 심의를 보장하는 것임.
- 따라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실국 및 위원회 활동을 통한 공약실천계획서 시민공개 등의 공약실천계획서 확정 프로세스를 아래와 같이 제안하고 있음.





2. 추진방향 및 진행과정

가. 추진방향

- 민주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지역별·성별·연령별 인구비례에 따른 무작위 추첨으로 시민배심원단을 선발하여 시민의 대표성과 참여 기회 평등성을 확보함.
- 최종 선발을 거쳐 회의에 참여하는 시민배심원단은 시민 대표성을 가지고 민선 8기 공약실천계획에 대하여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함.
- 비교적 단순하고 피상적인 의견수렴과 고정된 선호의 단순 취합이라는 기존의 여론조사 방식이 아닌 학습과 토론을 통한 신중한 의사결정과 선호변경이 가능한 공론조사 방식의 토의 과정을 채택함.
- 시민배심원단의 심도 있는 토의를 위해 지자체 공약담당자는 심의 및 평가 안건(정책공약)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함.
- 운영관리에 있어 모든 절차는 민주적 절차에 의하며 시민배심원단 스스로 운영하여 나가도록 유도함.
- 또한, 원활한 토의 진행을 돕기 위해 분임별 촉진자(facilitator)도 함께 참여하고, 현장실무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시민사회 활동가로 구성함.
- 시민배심원단 논의 결과와 광주광역시의 수용 여부는 일정기간 동안 광주광역시 홈페이지에 공시토록 함.

나. 진행과정

① 배심원단 무작위 선발 지역, 성, 연령 고려 55명 선발 9월 4일 ~ 9월 28일	② 1차 예비회의 · 교육 배심원 운영 목적 및 역할 55명 중 47명 위촉 10월 4일(화)	③ 2차 예비회의 공약 담당자 직접 설명 및 질의응답 42명 참석 10월 19일(수)
↓		
⑥ 권고안 수용여부 발표 배심원단 권고안 수용여부 11월 중	⑤ 권고안 고시 배심원단 권고안 검토 11월 중	④ 3차 본회의 공약실천계획 권고안 제시 39명 참석 11월 2일(수)

■ 시민배심원단 무작위 선발

- ARS를 통하여 1차 380명의 응답자 추출, 2차 전화면접을 거쳐 최종 55명 선발

■ 1차 예비회의 및 교육 (광주광역시청 3층 중회의실) : 10월 4일(화) 13:30~16:40

- 위촉장 수여
- 매니페스토 운동과 시민배심원에 대한 교육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 시민참여와 숙의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 지역현황, 단체장 철학과 그에 따른 핵심정책기조
 - 시민배심원 운영 목적, 운영개요, 역할 등
- 5개 분임 구성 및 분임별 토의 (분임별 촉진자 각 1명 참여)
 - 참석자 마음열기 (아이스 브레이킹)
 - 시민배심원 역할 및 향후 일정 안내, 분임별 다짐 공유 및 발표



■ 2차 예비회의 (일가정양립지원본부 3층 다목적실) : 10월 19일(수) 13:30~16:45

○ 공약 안건 설명회 (주관부서 ⇄ 시민배심원)

- 분임별 배분된 사업 담당자가 직접 설명, 배심원 질의에 대해 답변
- 설명 종료 후 시민배심원 자유 토의

■ 3차 본회의 (광주광역시청 3층 중회의실) : 11월 2일(수) 13:30~17:45

○ 분임토의

- 분임별 소관 안건에 대한 토의 및 의견 정리
- 공약실천계획 평가 : 성과·문제점 제시 및 개선방안·아이디어 마련
(분임 참석자 과반 찬성으로 권고안 채택)

○ 전체회의

- 분임별 회의 결과 발표 및 질의응답
- 공약실천계획 평가 : 시민배심원 합의로 분임 권고안 최종 승인

3. 심의 안건에 대한 최종 결과

가. 주요 공약사업 평가 (개선방안 제시)

■ 평가 안건 17개에 대하여 분임별 토의를 거쳐 총 30개 권고안이 마련되었고, 이 권고안은 본회의에서 전체 배심원 합의로 승인되었음.

■ 1분임 : 6개 권고안

- 도시문제해결형 솔루션 개발·지원
 -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도시문제해결 솔루션이 필요함.
 - 사업에 대한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창구 설치 필요함.
- 지역산업 현장맞춤 산업인력 플랫폼 구축
 - 민간 시장 활용해야 함.
 - 플랫폼 이용에 있어 서류의 간소화 및 시간 단축화 필요함.
 - 기업 및 교육 등 직종 다양화해야 함.
- 광주상생카드 운영
 - 제대로 된 조사를 통한 타당성 확보 필요함.

■ 2분임 : 5개 권고안

- 시민여가 공간 "익사이팅 존" 조성 사업
 - 장성, 나주 지역 지자체와의 소통이 중요하고, 공동 유치, 공동 협력안을 마련해야 함.
 - 콘텐츠 개발을 통해 광주 안으로 실질적인 관광객 유입이 되어서 지역 내 소비 증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국제게임쇼케이스 및 QA센터 운영



- 국제게임쇼케이스를 추진하면서 광주 시민을 대상으로 전략적인 홍보가 필요함.

○ 스포츠건강도시 조성(체육시설 공유시스템 구축)

- 편성 예산액을 증액해야 함.
- 권역별로 학교를 몇 개 선정해서 지원되는 예산을 증액해야 함.

■ 3분임 : 6개 권고안

○ 종사자 단일임금체계 마련 및 노동여건 개선

- 사회복지서비스에 기여하는 직종과 시설에 대한 형평성 있게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좋겠음.

○ 공공보건의료협의체 구축

- 협의체에 기관장 급 말고도 실무자들도 이 협의체에 포함이 되었으면 좋겠음. 다양한 인원(나이, 직급 등)에 따라 진행된다면 좋을 것 같음.
- 협의체 구성이 지역 간, 계층 간 해소와 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데 민간 의료 기관장들도 협의체에 포함되면 좋겠음.

○ 만성질환 관리 시스템 구축

- 뼈나 치매 등의 질환을 주기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필요함.
- 체계적인 홍보 시스템 구축 필요함.

○ 광주공공산후조리원 지원체계 구축

- 자료집에 작성된 추진 계획 진행 과정을 공유해야 함.

■ 4분임 : 4개 권고안

○ 광주역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 창업지원 시 경쟁력 있는 관련 산업 선정 기준 확립 필요함.

○ 풍암교차로 정체구간 교통처리 개선사업

- 공사기간 동안 정체를 해결할 방안 확립 필요함.
- 사업 기간 단축 필요함.
- 광주송정복합환승센터 조성, 광주송정역세권 개발
 - 쇼핑 또는 음식 타운 설립해야 함.

■ 5분임 : 9개 권고안

- 0~7세까지 무상보육 단계별 추진
 - 사업 인원 충원 필요함.
 - 광주에 맞는 산출 근거와 데이터가 필요함.
 - 예산 확보 및 비율 배분의 재검토 필요함.
- 광주형 장애인 평생교육 체계 구축
 - 사업의 예산을 더 늘려야 함.
 - 프로그램의 연령 구분이 필요함.
- 위원회 일괄 정비 및 운영 내실 강화
 - 적극적인 위원회 정비가 필요함.
 - 기존 위원들의 능력 검증과 투명성 확보해야 함.
- 광주 정책평가박람회 개최
 - 많은 인원이 모이는 행사에 부스 개최 필요함.
 - 미흡했던 정책도 평가할 기회가 필요함.



제1장

들어가며



제1장 들어가며

1. 광주광역시 시민배심원 운영 배경

제8회 동시지방선거는 디지털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치러졌던 ‘정초(定礎) 선거’ 성격이 강했으나 지방선거 프레임이 국정 안정론과 정권 견제론으로 흘러가면서 상대적으로 정책검증이 소홀하였다. 이와 같은 이유로 당선자 인수위 및 위원회 활동이 선거공약을 기반으로 민선 8기 추진 정책을 가다듬는 것을 넘어서 많은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는 이유로 새로운 정책을 마련하거나 선거 공약 파기를 시도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는 민선 8기 단체장 공약실천계획서 작성 과정에서 직접 시민들이 참여해 계획안을 평가하는 시민배심원 회의를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다. 과거 공약실천계획서 수립 주체가 지역시민의 대표성을 확보하지 못한 소수 전문가라는 점에서 지방자치의 요체인 주권재민 실현은 지역의 주인이며, 지역의 문제를 가장 가까이에서 체감하고 있는 시민들의 참여와 심의를 보장하는 것이라 점에서 시민배심원 회의가 제안된 것이다.

이에 따라 광주광역시는 매니페스토본부와의 협업을 통해 공약의 주인인 시민이 심사숙고 과정을 거쳐 권고안을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가는 시민배심원회의 운영을 실시하게 되었다. 기존의 공모 형식 시민 참여 모델은 대다수의 시민들에게는 참여의 기회가 한정되었고, 시민대표성 확보와 행정의 투명성, 민주적 절차 등을 모두 충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였다. 그러므로 시민 참여의 기회와 폭을 넓히고 심의 결과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민배심원 구성에 있어서 인구비례에 의한 무작위 선발은 탁월한 기제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시민배심원 운영은 광주광역시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교감하며 민선 8기 공약실천의 기조와 방향 설정, 권고안 마련을 민주적으로 진행함으로써 건강한 지방자치와 성숙한 민주주의를 한 단계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데도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지역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정책공약과 그 집행의 불일치를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이기도 하다.



2. 시민배심원 운영 목적 및 방향

민선5기부터 공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제안으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본격적으로 공약실천계획서(공약실천매뉴얼)를 작성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실·국 및 소수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지역 시민 승인 없이 새로운 정책이 마련되거나 선거공약 파기가 시도되는 등 헌법 정신과 대의민주주의, 정책선거 노력을 훼손하는 행위가 자행되었다.

따라서 선거공약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떨어지고 자치행정에 대한 신뢰가 현저히 낮아질 수밖에 없었다. 또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여 시민자치 실현이라는 지방자치의 본래 목적이 소홀히 다뤄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상존하였다.

이러한 기존의 공약실천계획서 작성과 확정, 이행과정에서 시민 참여 배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광주광역시에서는 우선 전문가가 공약실천계획 초안을 작성한 후, 시민배심원 회의를 통하여 이에 대한 시민들의 승인 절차를 거치기로 하였다. 시민배심원 심의는 공약실천계획 개선방안 마련을 내용으로 하였다. 시민들의 참여와 의사결정의 질적 향상을 위해 인구비례에 의한 무작위 추첨을 통하여 선발된 시민배심원단의 학습 및 토의과정을 거쳐서 권고안을 도출하는 민주적 과정을 거쳤다.

우선, 시민배심원단 선발에 있어 지역의 문제를 가장 가까이서 체감하고 있는 시민들의 참여와 시민 전체의 참여기회의 평등성, 그리고 시민 대표성 및 심의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거주 만 18세 이상의 시민을 대상으로 인구비례(지역·연령·성)에 의한 무작위로 시민배심원단을 선발했다. 또한 심의 결과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단체장과 친인척 관계에 있거나 현재 공무원으로 근무 중인 시민, 그리고 정당의 당직자는 선발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인구비례에 의하여 무작위로 선발된 광주광역시 시민배심원단을 대상으로 권한과 임무에 대한 교육과 공약실천계획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였다. 이를 통해 시민 스스로 공약실천계획의 실효성 및 실현가능성에 대한 토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였다.

장기적으로는 시민과의 소통·공감을 통하여 신뢰행정을 발굴하고 확산시키고자 하였다. 과거의 낙수형 방식의 일방적 시민소통 방식을 개선하고 직접민주주의 원형인 아테네 민주주의 방식을 차용함으로써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시민소통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참다운 지방자치와 성숙한 민주주의 실현을 목표로 시민배심원 운영 방향을 설계하였다.



3. 시민배심원 운영 개요

가. 추진방향

- 첫째, 민주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지역·성·연령별 인구비례에 따른 무작위 추첨으로 시민배심원단을 선발해 시민대표성과 참여기회 평등성을 확보하였다.
- 둘째, 최종 선발을 거쳐 회의에 참여하는 시민배심원단은 시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민선 8기 공약실천계획에 대하여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하였다.
- 셋째, 전문가 중심의 공약실천계획 수립 과정을 개선해 지역의 문제를 가장 가까이서 체감하고 있는 시민들의 참여와 토의과정을 통해 공약실천계획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 넷째, 비교적 단순하고 피상적인 의견수렴과 고정된 선호의 단순 취합이라는 기존의 여론조사 방식이 아닌 학습과 토론을 통한 신중한 의사결정과 선호변경이 가능한 공론조사 방식의 토의 과정을 거쳤다.
- 다섯째, 시민배심원의 심도 있는 토의를 위하여 심의 안건(정책공약)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운영관리에 있어서 모든 절차는 민주적 절차에 의하며 시민배심원단이 스스로 운영하여 나가도록 유도하였다.
- 여섯째, 원활한 토의 진행을 위해 전문가 및 시민단체 활동가로 구성된 촉진자(facilitator)도 함께 참여하였고, 시민배심원단의 논의 결과와 광주광역시 수용 여부는 일정기간 광주광역시청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하였다.

나. 시민배심원 회의 개요

- 회의일자 : 2022년 10월 4일(화), 10월 19일(수), 11월 2일(수)
- 대상 : 광주광역시 거주, 또는 재직 중인 만 18세 이상 시민
- 인원 : 시민배심원 55명
- 구성방법 : 성별 · 연령 · 지역을 고려한 무작위 선발
- 주최 · 주관 : 광주광역시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 심의범위 : 민선 8기 광주광역시 공약실천계획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17건)

다. 심의 안건 선정 및 심의 방법

- 공약실천계획 평가 안건은 분야별 공약사업 중에서 시민배심원단이 직접 17개를 선정하였다. (5개 분임, 각 분임별로 3~4개씩 선정)
- 심의 절차는 국회 본회의 운영 방식을 차용하였다. 우선 5개 분임(소위원회)을 구성하여 분임별로 안건을 선정하였다. 공약실천계획 설명회, 분임 활동, 심층 분임토의를 통해 안건으로 채택된 공약들의 실천계획에 대한 평가, 심의 및 개선방안 마련이 이루어졌다. 분임토의에서 마련된 권고안들은 전체회의에서 시민배심원단 전원에게 보고한 후, 시민배심원 전체 동의를 거쳐서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하였다.



제2장

시민배심원 운영 절차



제2장 시민배심원 운영 절차

1. 시민배심원단 운영 기조 및 흐름

■ 숙의적 의사결정을 위한 배심원단 5대 주요사업

- 민주성과 공정성에 기반을 둔 참여형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협력적 네트워크 다양화를 모색하며 아래로부터의 공감과 신뢰행정 기운을 조성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단계적으로 추진하였다.

배심원 선발	기초교육 심화교육	분임 활동	토의, 결정	결과 수용 시민공시
- 사업 협약 - ARS 모집 - 전화 면접 - 배심원 확정	- 지역의 이해 - 매니페스토 운동 및 배심원에 대한 이해 - 공약에 대한 학습과 이해	- 분임별 평가활동	- 분임 토의 - 전체 회의 - 권고안 마련	- 권고안 공시 - 결과수용 - 결과공시

■ 배심원단 진행과정의 흐름

① 배심원단 무작위 선발 지역, 성, 연령 고려 55명 선발 9월 4일 ~ 9월 28일	② 1차 예비회의 · 교육 배심원 운영 목적 및 역할 55명 중 47명 위촉 10월 4일(화)	③ 2차 예비회의 공약 담당자 직접 설명 및 질의응답 42명 참석 10월 19일(수)
↓		
⑥ 권고안 수용여부 발표 배심원단 권고안 수용여부 11월 중	⑤ 권고안 고시 배심원단 권고안 검토 11월 중	④ 3차 본회의 공약실천계획 권고안 제시 39명 참석 11월 2일(수)

- 공약설명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균형 잡힌 정보 제공을 유도하고 토의 및 합의 과정에서 공정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촉진자가 중심이 되어 회의를 진행하였다.

■ 배심원단 운영 일정 및 주요내용

구 분	일시 및 장소	주 요 내 용
1차 예비 회의	10월 4일(화) 13:30~16:40 (광주광역시청 3층 중회의실)	○ 위촉장 수여 ○ 매니페스토 운동과 시민배심원에 대한 교육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 시민참여와 심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 지역현황, 단체장 철학과 그에 따른 핵심정책기조 - 시민배심원단 운영 목적, 운영개요, 역할 등 ○ 5개 분임 구성 및 분임별 토의 (분임별 촉진자 각 1명 참여) - 참석자 마음열기(아이스 브레이킹) - 시민배심원 역할 및 향후 일정 안내, 분임별 다짐 공유 및 발표
2차 예비 회의	10월 19일(수) 13:30~16:45 (일가정양립지원 본부 3층 다목적실)	○ 심의 안건 설명회 (주관부서 ⇄ 시민배심원) - 분임별로 배분된 사업 담당자가 직접 설명, 배심원 질의에 대해 답변 - 설명 종료 후 시민배심원 자유 토의
분임 활동	2차 회의 이후 ~3차 회의 전	○ 주관 부서 담당자와의 심층면담 ○ 현장조사 등 자율 활동
본회의	11월 2일(수) 13:30~17:45 (광주광역시청 3층 중회의실)	○ 분임토의 - 분임별 소관 안건에 대한 토의 및 의견 정리 - 공약실천계획 평가 : 계획 검토, 문제점 제시 및 개선방안·아이디어 마련 (분임 참석자 과반 찬성으로 권고안 채택) ○ 전체회의 - 분임별 회의 결과 발표 및 질의응답 - 공약실천계획 평가 : 시민배심원 합의로 분임 권고안 최종 승인



2. 시민배심원 운영 지원 조직

■ 배심원단 분임별 촉진자

- 분임별 촉진자는 배심원 회의 기획 및 운영을 위하여 구성된 활동가 조직이다. 촉진자는 주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의 경험이 있으며 지역 활동에 대한 현장실무 경험이 있는 활동가 및 전문가로 구성하였다.
- 촉진자는 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의견을 제시할 수 없으며, 배심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원활한 토의를 위한 진행자 및 공약 이해도를 높여주기 위한 조력자 역할을 담당한다.
- 촉진자 구성
 - 이하영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광주전남네트워크 집행위원
 - 이하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광주전남네트워크 집행위원
 - 김다정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광주전남네트워크 집행위원
 - 박정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광주전남네트워크 집행위원
 - 김수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광주전남네트워크 집행위원

3. 시민배심원 모집 절차

■ 1차 모집 (ARS를 통한 무작위 추출)

- 만 18세 이상 광주광역시 거주, 재직 또는 재학 중인 지역 시민을 대상으로 9월 4일부터 20일까지 17일간 유선전화 ARS를 통해 380명의 1차 배심원 모집
- 모집 및 선정방법
 - ARS를 통해 성, 나이, 지역을 고려한 무작위 추출, 참여 희망자 조사

구 분	성	나이	지역	1차 선발
고려 사항	성별 동수	20,30,40,50, 60대 이상	지역별 인구 비례로 선발	참여의향을 밝힌 배심원 선발

- ARS 모집을 위한 안내 내용

안녕하세요? 광주광역시는 매니페스토본부와 함께 광주광역시장 공약실천계획 수립을 위한 시민배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시민배심원으로 지원하시면 10월 4일, 10월 19일, 11월 2일 총 3회에 걸쳐 광주광역시장 공약점검 회의에 참석하게 되며, 참석하신 분에게는 소정의 회의비를 드립니다. 시민배심원에 참여하실 의사가 없으시면 전화를 끊어주세요. 그럼 시민배심원 등록을 위해 몇 가지 여쭙어보겠습니다.

[지역]

01) 선생님의 시민등록상 주소지가

1. 동구 이시면 1번
2. 서구 이시면 2번
3. 남구 이시면 3번
4. 북구 이시면 4번
5. 광산구 이시면 5번
6. 광주광역시민이 아니시면 6번 → 설문종료(분기종료)

[연령]

02) 선생님의 연령대가

1. 만 18세 미만이면 1번 → 설문종료(분기종료)
2. 만 18세 이상 20대면 2번
3. 30대면 3번
4. 40대면 4번



5. 50대면 5번 6. 60대 이상이면 6번을 눌러주십시오. [성별] 03) 선생님의 성별이 남성이라면 1번, 여성이라면 2번을 눌러주세요. 1. 남성 2. 여성 [휴대전화번호] 04) 자세한 일정 및 행사 안내를 위해 선생님께 직접 전화를 드리고자 합니다. 선생님의 휴대전화 번호와 우물정자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료 멘트] **[조사제외대상]	[90 - 맺음말] * 시민배심원에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ARS는, 최종 선발 전화가 아니므로, 최종 확정 여부는 직접 전화 드리고 안내하겠습니다. 조기 선발 완료시에는 전화를 드리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점 양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91 - 분기종료] * * 죄송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2차 모집 (전화 면접)

- ARS를 통해 배심원단 참여 의사를 밝힌 시민 380명을 대상으로 하여 9월 15일부터 28일까지 14일간 전화 면접을 거쳐 최종 배심원단 55명 선발
- 선발은 무작위로 진행하되 인구비례에 의해 이해도와 참여도가 높은 시민을 우선적으로 선발하였음.
- 단체장의 직계 가족과 정당의 주요 당직자, (현)공무원, 전현직 선출직 공직자는 제외하였음.

○ 전화면접 주요 내용

- 안녕하세요? 며칠 전 ARS를 통해 광주광역시장 공약실천계획 수립을 위한 시민배심원 회의 참여를 희망하셨는데요. 시민배심원 최종 선발을 위해 전화 드렸습니다. 일정을 안내해 드려도 될까요? (문자로 보내달라고 할 경우 : 대략적인 일정 안내후 참석이 가능하시다고 하시면 모집 마감후 일괄로 보내드립니다. / 현재 일정체크가 불가능 한 경우 : 그럼 저희가 추후에 다시 연락 드리겠습니다)
(심의내용 : 광주광역시장 공약실천계획 개선방안 의견 수렴)
- 시민배심원 회의는 총 3회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3회 모두 참석 가능하셔야 하고, 첫 회의인 1차 회의는 10월 4일 화요일 오후 1시 30분 / 2차 회의는 10월 19일 수요일 오후 1시 30분 / 3차 회의는 11월 2일 수요일 오후 1시 30분입니다.
- 3차 회의 모두 장소는 광주광역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일정은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 1회 회의 당 소요시간은 약 3-4시간
※ 1차 또는 2차 회의에 불참한 경우 3차 회의 참여 불가
다만, 시민배심원 선발이 잘 안 되는 경우 잠시 대기 요청
※ 광주광역시청 평가데이터담당관 Tel.062-613-1412
- 선생님 3회차 모두 참석가능하신가요? (3회차 모두 참석가능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을 안 하실 경우, 재차 여쭙보고 정중히 거절. 다만, 1차회의 참석만 불가능한 20대의 경우 보류)
- 마지막 확인 질문
- 광주광역시장과 친인척관계에 있으신가요?
- 공공기관의 공무원, 또는 정당 주요 당직자, 기자와 같은 오피니언 리더 직업으로서 현재 근무하고 계신가요? (前 선출직 공직자 및 후보자 출신도 제외. 전 지방의원/전 국회의원/전 지자체단체장/전 대통령 등등)
- 회의장에서 확인이 될 경우, 시민배심원 선발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기자인 경우, 지역사회에 오피니언 리더들은 참여기회도 많고요. 우리는 일반 주민들 참여를 우선하고 있다. 참관 및 취재는 가능할 것 같음)
- 현재 진행되고 있는 광주광역시 남구, 동구, 북구, 서구 시민배심원 회의에 참여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라고 대답한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시민배심원단으로 선발 진행이 불가능 합니다.)
- '그렇다'고 대답한 경우에는 회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해 공손하게 시민배심원으로 참여할 수 없음을 알림.
- 네, 선생님은 광주광역시장 공약실천계획 수립을 위한 시민배심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 재차 아래 사항 확인
- 위촉장 수여식과 명찰 제작으로 인하여 마지막으로 확인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함 / 지역 / 연령대 / 성별 / 문자수신 연락처 ※ 성함, 연령대, 지역 정확히 확인해야 함
- 문자로 일정 및 장소를 다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문자 확인이 가능하신지요?
- 혹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신가요?
-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었으나, 실내에서 회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참석하실 때 마스크착용을 꼭 부탁드립니다. 확진자와의 밀접접촉이나, 회의 당일 발열 혹은 호흡기 증상 등이 있다면 회의 참석 자체를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본회의는 재선발이 불가능한 회의입니다. 미참석시, 그만큼 다른 분들의 기회까지 사라지게 됩니다. 광주광역시민의 대표로 회의에 참석하시는 만큼, 세 번의 회의에 꼭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 시민배심원 선발 명단

연번	이름	성별	연령대	지역	비고
1	강O화	남성	20대	남구	
2	강O수	남성	40대	서구	
3	공O성	여성	50대	북구	
4	김O완	남성	50대	광산구	
5	김O윤	남성	20대	광산구	
6	김O훈	남성	30대	남구	
7	김O국	남성	30대	북구	
8	김O용	남성	30대	동구	
9	김O훈	남성	20대	북구	
10	김O형	남성	30대	광산구	
11	김O원	여성	30대	서구	
12	김O미	여성	30대	북구	

연번	이름	성별	연령대	지역	비고
13	김O선	남성	70대	서구	
14	김O석	남성	50대	북구	
15	김O석	남성	20대	북구	
16	김O수	남성	40대	서구	
17	김O원	여성	30대	서구	
18	김O경	여성	40대	광산구	
19	김O남	남성	30대	남구	
20	김O곤	남성	60대	광산구	
21	남O옥	여성	40대	북구	
22	모O광	남성	80대	동구	
23	박O환	남성	60대	서구	
24	박O애	여성	50대	광산구	
25	박O헌	남성	20대	북구	
26	박O슬	여성	30대	남구	
27	박O진	여성	20대	광산구	
28	배O천	남성	50대	북구	
29	손O덕	여성	60대	북구	
30	신O희	여성	50대	서구	
31	신O임	여성	50대	북구	
32	여O관	남성	60대	광산구	
33	오O주	여성	50대	서구	
34	유O일	남성	50대	동구	
35	윤O정	여성	40대	광산구	
36	이O성	남성	60대	북구	
37	이O섭	남성	40대	북구	
38	이O결	여성	20대	남구	
39	이O남	여성	60대	남구	
40	이O성	남성	60대	서구	



연번	이름	성별	연령대	지역	비고
41	임O근	남성	70대	남구	
42	임O애	여성	70대	남구	
43	장O영	여성	40대	남구	
44	장O경	여성	50대	동구	
45	전O숙	여성	60대	서구	
46	정O경	여성	50대	광산구	
47	정O	여성	30대	북구	
48	정O욱	남성	40대	광산구	
49	정O국	남성	70대	동구	
50	정O순	여성	70대	서구	
51	주O진	남성	50대	북구	
52	최O라	여성	30대	동구-	
53	최O	여성	30대	동구	
54	한O건	남성	20대	서구	
55	홍O례	여성	60대	광산구	

○ 연령별 선발된 배심원 수

연령	선발인원
20대	8
30대	12
40대	8
50대	12
60대 이상	15
계	55

○ 성별 선발된 배심원 수

성별	선발인원
남	29
여	26
계	55

○ 지역별 선발된 배심원 수

지역	선발인원
동구	7
서구	12
남구	9
북구	15
광산구	12
계	55



4. 시민배심원 예비회의 및 본회의

■ 1차 예비회의 및 배심원단 최종 확정

- 일시 및 장소 : 10월 4일(화) 13:30~16:40 / 광주광역시청 3층 중회의실
- 배심원단 참석자 수 : 47명
- 주요내용 : 배심원단 교육 및 분임 구성
 - 위촉장 수여
 - 매니페스토 운동과 시민배심원에 대한 교육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 시민참여와 심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 지역현황, 단체장 철학과 그에 따른 핵심정책기조
 - 시민배심원단 운영 목적, 운영개요, 역할 등
 - 5개 분임 구성 및 분임별 토의 (분임별 촉진자 각 1명 참여)
 - 참석자 마음열기 (아이스 브레이킹)
 - 시민배심원 역할 및 향후 일정 안내, 분임별 다짐 공유 및 발표

분 임 명				
열정 (1분임)	빛고을 광주 (2분임)	사랑의 광주 (3분임)	경제 비타민 (4분임)	성장 (5분임)

■ 2차 예비회의

- 일시 및 장소 : 10월 19일(수) 13:30~16:45 / 일가정양립지원본부 3층 다목적실
- 배심원 참석자 수 : 42명
- 내용 : 공약 안건 설명회 (주관부서 ⇔ 시민배심원)
 - 분임별 배분된 사업 담당자가 직접 설명, 시민배심원 질의에 답변
 - 설명 종료 후 시민배심원 자유 토의

○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3:30~13:35 (5 ')		▶ 개회 및 진행 순서 안내 ▶ 공약실천계획 총괄 설명	광주광역시
13:35~13:45 (10 ')		▶ 분임별 시간 (2차·3차 회의 진행 안내 등)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13:45~16:25 (160 ')		▶ 분임별 공약 설명 및 질의응답 (주관부서 ⇒ 시민배심원) - 분임별로 공약사업담당자가 직접 설명, 시민배심원 질의에 대한 답변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 공약사업 추진부서
	13:45~14:25 (40')	- 안건 1 설명 및 질의응답	
	14:25~15:05 (40')	- 안건 2 설명 및 질의응답	
	15:05~15:45 (40')	- 안건 3 설명 및 질의응답	
	15:45~16:25 (40')	- 안건 4 설명 및 질의응답	
16:25~16:40 (15 ')		▶ 분임활동 계획 세우기, 소감나누기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16:40~16:45 (5 ')		▶ 다음 일정 안내 및 폐회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 분임별 심의 안건 내용

○ 1분임 (열정)

- 촉진자 : 이하영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광주전남네트워크 집행위원

구분	공 약 명	비 고
평가 안건	(1-5-4)도시문제해결형 솔루션 개발·지원	인공지능정책과
평가 안건	(1-13)지역산업 현장맞춤 산업인력 플랫폼 구축	일자리정책과
평가 안건	(1-19)광주상생카드 운영	경제정책과

○ 2분임 (빛고을 광주)

- 촉진자 : 이하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광주전남네트워크 집행위원

구분	공 약 명	비 고
평가 안건	(2-1)시민여가 공간 "익사이팅 존" 조성 사업	친구공간과
평가 안건	(2-8-2)국제게임쇼케이스 및 QA센터 운영	문화산업과
평가 안건	(2-10)스포츠건강도시 조성(체육시설 공유시스템 구축)	체육진흥과

○ 3분임 (사랑의 광주)

- 촉진자 : 김다정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광주전남네트워크 집행위원

구분	공 약 명	비 고
평가 안전	(3-2)종사자 단일임금체계 마련 및 노동여건 개선	복지정책과
평가 안전	(3-25-1)공공보건의료협의체 구축	건강정책과
평가 안전	(3-25-2)만성질환 관리 시스템 구축	건강정책과
평가 안전	(3-27)광주공공산후조리원 지원체계 구축	건강정책과

○ 4분임 (경제 비타민)

- 촉진자 : 박정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광주전남네트워크 집행위원

구분	공 약 명	비 고
평가 안전	(4-13)광주역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활력총괄과
평가 안전	(4-15-2)풍암교차로 정체구간 교통처리 개선사업	도로과
평가 안전	(4-19)광주송정복합환승센터 조성, 광주송정역세권 개발	광역교통과



○ 5분임 (성장)

- 추진자 : 김수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광주전남네트워크 집행위원

구분	공 약 명	비 고
평가 안건	(5-1)0~7세까지 무상보육 단계별 추진	아동청소년과
평가 안건	(5-11)광주형 장애인 평생교육 체계 구축	인재육성과
평가 안건	(5-15-1)위원회 일괄 정비 및 운영 내실 강화	정책기획관
평가 안건	(5-18)광주 정책평가박람회 개최	평가담당과

■ 3차 본회의

- 일시 및 장소 : 11월 2일(수) 13:30~17:45 / 광주광역시청 3층 중회의실
- 배심원 참석자 수 : 39명
- 내용 : 분임회의 및 전체회의
 - 분임토의
 - 분임별 소관 사건에 대한 토의 및 의견 정리
 - 공약실천계획 평가 : 성과·문제점 제시 및 개선방안·아이디어 마련 (분임 참석자 과반 찬성으로 권고안 채택)
 - 전체회의
 - 분임별 회의 결과 발표 및 질의응답
 - 공약실천계획 평가 : 시민배심원 합의로 분임 권고안 최종 승인
- 분임 토의는 아래 표의 순서에 따라 진행하고, 배심원단의 의견을 빠짐없이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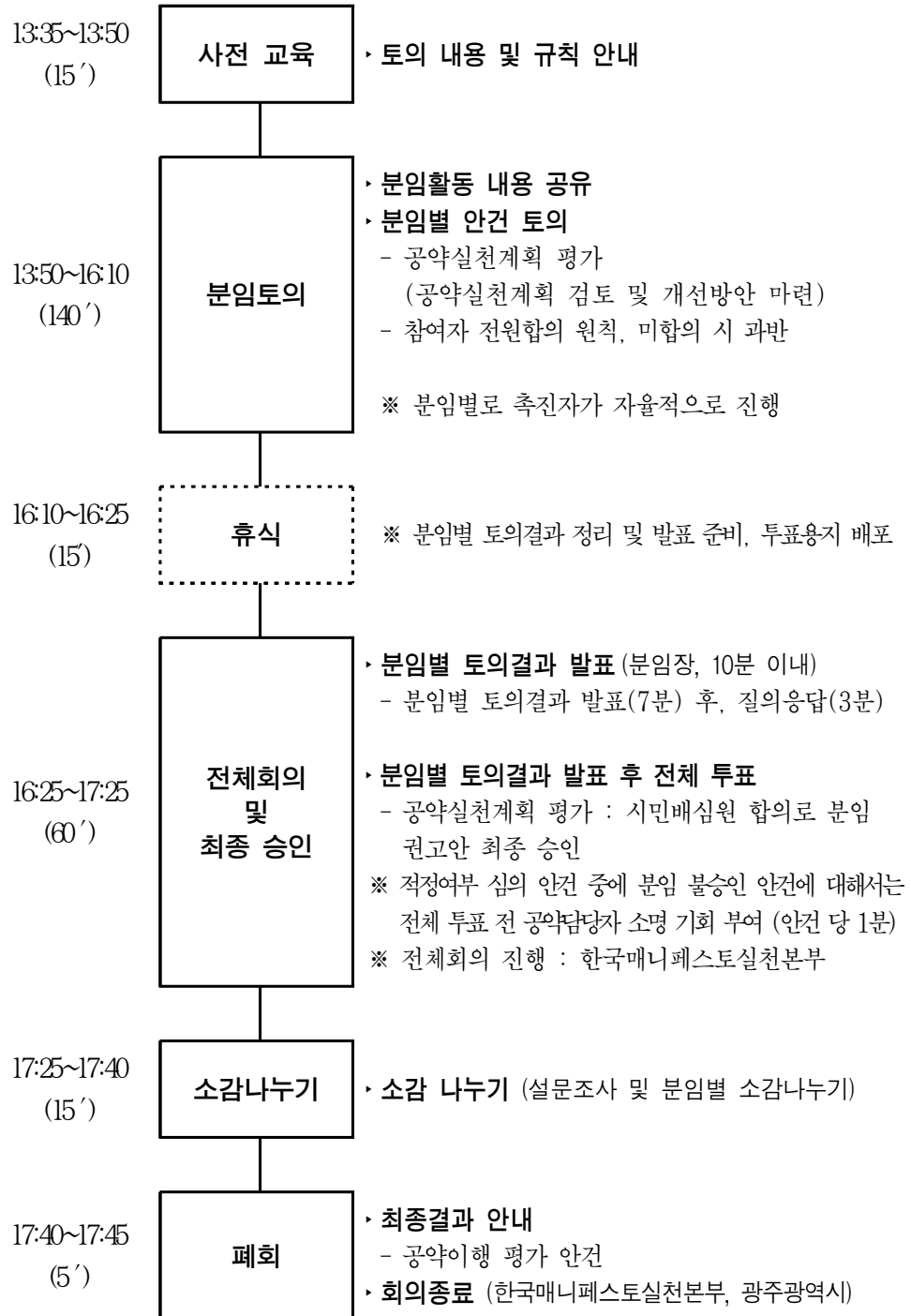
<공약실천계획 평가 및 아이디어·개선방안 마련>

1. 사건 및 2차 회의 질의응답 내용 설명
2. 순차적으로 각각의 배심원단 검토의견 제시
3. 각각의 배심원들이 제시한 아이디어·개선방안에 대한 토의
4. 권고안 정리 및 개별 권고안이 획득한 표의 수 기재

- 공약실천계획에 대한 평가는 배심원들이 제시한 의견 각각에 대하여 심층 토의를 거쳐 만장일치로 합의된 의견(전원 합의가 안 될 경우 과반수의 찬성을 획득한 의견)을 권고안으로 작성한 후 전체회의에서 배심원단 전원에게 재청과 삼청을 물어 최종 권고안으로 채택함.
- 전체회의에서 분임별 회의 결과에 대한 배심원들의 개별 질문이 있을 경우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으며, 개별 위원들이 개진한 의견들도 권고안의 기타의견으로 첨부함.



○ 본회의 진행 방식은 아래 표와 같음





제3장

시민배심원 운영 결과



제3장 시민배심원 운영 결과

1. 시민배심원 최종 심의 결과

가. 주요 공약사업 평가 (개선방안 제시)

■ 평가 안건 17개에 대하여 분임별 토의를 거쳐 총 30개 권고안이 마련되었고, 이 권고안은 본회의에서 전체 배심원 합의로 승인되었음.

■ 1분임 : 6개 권고안

- 도시문제해결형 솔루션 개발·지원
 -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도시문제해결 솔루션이 필요함.
 - 사업에 대한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창구 설치 필요함.
- 지역산업 현장맞춤 산업인력 플랫폼 구축
 - 민간 시장 활용해야 함.
 - 플랫폼 이용에 있어 서류의 간소화 및 시간 단축화 필요함.
 - 기업 및 교육 등 직종 다양화해야 함.
- 광주상생카드 운영
 - 제대로 된 조사를 통한 타당성 확보 필요함.

■ 2분임 : 5개 권고안

- 시민여가 공간 "익사이팅 존" 조성 사업
 - 장성, 나주 지역 지자체와의 소통이 중요하고, 공동 유치, 공동 협력안을 마련해야 함.
 - 콘텐츠 개발을 통해 광주 안으로 실질적인 관광객 유입이 되어서 지

역 내 소비 증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국제게임쇼케이스 및 QA센터 운영

- 국제게임쇼케이스를 추진하면서 광주 시민을 대상으로 전략적인 홍보가 필요함.

○ 스포츠건강도시 조성(체육시설 공유시스템 구축)

- 편성 예산액을 증액해야 함.
- 권역별로 학교를 몇 개 선정해서 지원되는 예산을 증액해야 함.

■ 3분임 : 6개 권고안

○ 종사자 단일임금체계 마련 및 노동여건 개선

- 사회복지서비스에 기여하는 직종과 시설에 대한 형평성 있게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좋겠음.

○ 공공보건의료협의체 구축

- 협의체에 기관장 급 말고도 실무자들도 이 협의체에 포함이 되었으면 좋겠음. 다양한 인원(나이, 직급 등)에 따라 진행된다면 좋을 것 같음.
- 협의체 구성이 지역 간, 계층 간 해소와 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데 민간 의료 기관장들도 협의체에 포함되면 좋겠음.

○ 만성질환 관리 시스템 구축

- 뼈나 치매 등의 질환을 주기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필요함.
- 체계적인 홍보 시스템 구축 필요함.

○ 광주공공산후조리원 지원체계 구축

- 자료집에 작성된 추진 계획 진행 과정을 공유해야 함.

■ 4분임 : 4개 권고안

○ 광주역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 창업지원 시 경쟁력 있는 관련 산업 선정 기준 확립 필요함.
- 풍암교차로 정체구간 교통처리 개선사업
 - 공사기간 동안 정체를 해결할 방안 확립 필요함.
 - 사업 기간 단축 필요함.
- 광주송정복합환승센터 조성, 광주송정역세권 개발
 - 쇼핑 또는 음식 타운 설립해야 함.

■ 5분임 : 9개 권고안

- 0~7세까지 무상보육 단계별 추진
 - 사업 인원 충원 필요함.
 - 광주에 맞는 산출 근거와 데이터가 필요함.
 - 예산 확보 및 비율 배분의 재검토 필요함.
- 광주형 장애인 평생교육 체계 구축
 - 사업의 예산을 더 늘려야 함.
 - 프로그램의 연령 구분이 필요함.
- 위원회 일괄 정비 및 운영 내실 강화
 - 적극적인 위원회 정비가 필요함.
 - 기존 위원들의 능력 검증과 투명성 확보해야 함.
- 광주 정책평가박람회 개최
 - 많은 인원이 모이는 행사에 부스 개최 필요함.
 - 미흡했던 정책도 평가할 기회가 필요함.

2. 분임별 안건 설명 및 질의응답

2차 예비회의에서 이루어진 공약사항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에 기초하여, 3차 분임회의에서 공약실천계획에 대한 걱정여부 투표와 공약실천계획에 대한 평가 토의 및 권고안 마련이 이루어졌다.

2차 예비회의는 배심원단 42명, 촉진자 5명, 공약담당부서 공무원 등을 포함해 60여 명이 참석했다. 2차 회의에서는 분임별로 안건 담당자가 배석한 가운데 안건에 대한 설명이 진행되었으며, 배심원단들의 질의에 담당공무원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2차 회의 후 배심원단은 분임 토론 등 자율활동을 거쳐 3차 회의를 준비하였다.

3차 본회의는 공약실천계획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분임 토의 및 전체회의 순서로 진행하였다.

공약실천계획 평가는 분임토의에서 위원들이 순차적으로 제시한 평가의견들에 대해서 토의한 후, 전원 합의를 원칙으로 하여 권고안을 작성하였고(합의가 어려울 경우 과반 지지를 얻은 의견), 과반 이상의 지지를 받지 못한 의견들도 기타의견으로 첨부하여 전체 회의에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배심원단 합의로 권고안을 최종 승인하였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3차 본회의 진행에 앞서 토의에 임하는 배심원단의 자세와 역할, 심의 과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전체회의에서 결정된 최종 결과에 대한 후속작업 등을 전달하였다.



가. 1분임 (열정)

공약실천계획 평가	1-5-4	도시문제해결형 솔루션 개발·지원
--------------	-------	-------------------

■ 공약사업 담당 부서 설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년 ~ 2026년(4년)
- 사업대상 : 광주지역 기업 16개사 내외
- 총사업비 : 3,600백만 원(시비)
 - 실증 및 사업화 지원 3,200백만 원, 운영비(수요조사 등) 400백만 원
 - ※ 세부계획 수립이 내역 사업비 변동가능

• 사업내용

구분	주 요 내 용
도시문제 해결 수요발굴	자치구별 시민생활과 연관된 다양한 도시문제를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문제해결 우선순위에 따라 추진 과제 선정 ※ 예) AI 기반 쓰레기 무단투기, 주차문제, 차량정체, 환경오염, 주민복지 등 해결
실증·사업 화 지원	도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업의 AI 솔루션을 현장에 적용하여 다양한 지역 기업의 AI 기술의 실증·서비스·상용화를 통해 기업의 AI ·제품·서비스 사업화 촉진

○ 사업추진계획

- 추진계획 수립(수요발굴 및 세부지원방안 등) : ~'23. 3.
- 도시문제 해결 수요발굴 : '23. 1. ~ 4.
- 실증 및 사업화 지원 기업 모집·선정 : '23. 3. ~ 5.
- 광주지역 실증 및 사업화 지원 : '23. 5. ~ 12.

■ 질의응답

- 담당자 : 도시문제해결형 솔루션 개발 지원 사업입니다. 민선 7기 때 인공지능 정책을 하면서 시작단계이다 보니 인프라를 구축하고 우수기업을 유치하여 많아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됐다고 보고 민선 8기 때는 시민 중심, 기업 중심의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여지는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자치구, 지역유관기관들에게 도시문제를 받을 것입니다.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부분을 받을 것입니다. 인공지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16건 할 예정입니다. 사업을 하려고 해도 실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한 사안들을 해결할 수 있다면 기업들의 물건, 아이디어 상품을 개발하도록 하고, 실증을 우리 시에서 같이 하고, 우리 시민들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4개 1년에 총 4년간 16개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업화, 도시문제 해결, 시민들 삶을 개선 및 지역기업들이 기반이 약하다 보니 성장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같이 상생하려고 합니다.
- 배심원 : 다른 지역에서도 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
- 담당자 : 우리가 아는 바로는 없습니다. 광주가 처음입니다. 사례조사는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니다. 벤치마킹하여 하지 않았습니니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자 하여 진행하는 것입니다.
- 배심원 : AI에 대해 깊은 지식이 없습니다. 시민으로서 이것을 반영하여 고쳐줬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천 지하철 2호선을 타면 지하철 입구마다 증명사진을 찍는 기계가 있습니다. 여행하다가 필요시에 찍을 수 있게 되어있었습니다. 반면 우리 지하철은 1호선밖에 없지만 노인들이 카드를 찍으면 오래 걸리고 많이 힘들어합니다. 이런 것들은 누가 관리를 하며 시민들을 불편하지 않게 할 것인가요. 버스 정류장에 의자가 여러가지 있습니다. 나무로 만든 것, 철판으로, 유리로 만든 것, 구별로 다른 것인지, 시에서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런 것들도 AI가 관리한다면 무엇을 손봐야 할지 더 눈에 잘 알아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까?

- 담당자 : AI 인공지능 솔루션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을 하는데 말씀하신 것은 관리 문제이지 않을까요? 조금 거리가 있지만 검토해보겠습니다.
- 배심원 : 수요발굴에 대해서 예를 들어 쓰레기 무단투기, 차량 정체 등이 있지 않습니까? 차량정체를 어떻게 AI로 해결하려 하는지요?
- 담당자 : 교통신호 통제가 먼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차가 출발하다 보면 신호가 계속 걸리면 정체가 심해지는데 정차지까지 가는 시간을 늘려 신호를 늘리고 차가 막히는 쪽에 신호 시간을 늘리는 등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배심원 : 민선 7기 인프라 구축, 8기에서는 AI가 시민들이 잘 알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인프라 구축부터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총사업비가 36억 원이라고 했는데, 임기 내에 AI 실현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시민들이 당장 느낄 수 있도록 기업이 기술을 유치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조사가 잘 된 것이지요?
- 담당자 : 집적단지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24년까지로 2단계 사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4천억 원 정도 예산을 들여 하고 있고 건물 완공이 될 것입니다. 현재 145개 기업을 데려왔고, 창업캠프 75개 기업이 창업하고 있습니다. 현재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고, 같이 병행하여 진행하려고 합니다. 생태계조성에만 힘을 썼기 때문에 2단계 사업으로 진행하여 갈 것이고, 따로따로 하겠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1년에 4건, 총 8건씩 할 것인데, 그해 바로 결과가 나옵니다. 이 솔루션을 개발하여 실제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각각 매년 가게 되니 바로 상품화가 이루어질 만큼 고도화 상품이 나오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후에 고도화 사업을 통해 업그레이드를 시킬 예정입니다.
- 배심원 : AI를 통해서 하는 다른 예가 있는지요?
- 담당자 : 벤치마킹을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진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진행하는 사업은 없는 것 같습니다.

- 배심원 : 선도적으로 개발을 낼 수도 있지만 이용도 자체는 낮지 않을까요?
- 담당자 : 리스크가 있을 수 없는 것이 구청에 계속 집단 민원이 생기고 해결하지 못했던 것을 인공지능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을 찾겠다는 것입니다. 리스크는 없을 것 같습니다.
- 배심원 : 쓰레기 무단투기를 예로 들면 데이터양이 적지 않나요?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생각지 못한 일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데이터가 적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계산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 담당자 : 그런 부분이 있긴 합니다. 이 문제를 발굴해서 솔루션을 발굴하기까지 6~7개월 정도 걸립니다. 신제품이 나와서 실증을 하게 되면 고도화를 통해 정밀화하고, 기업 입장에서는 또 판매도 할 수 있습니다.
- 배심원 : 이러한 사업들을 진행하는 곳과 연계하면 좋겠습니다.
- 담당자 : 다른 시에서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하는 목적은 우리 시 시민들을 만족시키기 위함이기 때문에 굳이 연계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 배심원 : 1년에 4건이라고 했는데요?
- 담당자 : 1년에 8건입니다.
- 배심원 : 사업성이 있겠느냐 하여 실증을 내는 것 아닌가요? 실증을 했을 때, 이점이 있겠지 않나 싶습니다. 기업이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에 대해서 스스로 기획을 하고, 스스로 실증을 했을 때 고도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에서 정해서 이것 한 번 해봐라 반대로 주는 것 아닌가요? 이 사업 목적이 기업 입장에서 보면 실증과 사업화라고 한다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말이지 않을까요? 전시행정을 위해서 36억 원을 들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담당자 : 전시행정이란 말은 즉 보여주기 위한 행정이 아닌가 하는 말인데요. 시민들의 불편함이 해결이 된다면 전시행정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다른 사업을 하시던 분이 AI를 포함하여



업그레이드 하여 사업을 진행하는데 점점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기업들에게 지정해주는 것이 아니고 협의를 거쳐서 정하는 것입니다. 1억 원을 들여 시제품을 한다고 한다면 기업 입장에서든 나쁜 것이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배심원 : 이것을 투자했을 때 얼마나 효능이 있겠나 보는 것 아닌가요? 기업이 1억 원을 쥐서 한다고 하면 딱 1억 원에 맞추어서 진행하지 않을까요? 기업들이 자기 기업의 강점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식품생산 공정, 의류 산업 등 그러한 사업들이 얼마나 타당성이 있는지 등을 전문가가 점검하여 지원하는 것이 시가 할 일 아닌가요? 1억 원을 주고 사업을 진행시키는 것은 딱 그 사업비 내에서만 진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 담당자 :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2020년부터 매년 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가 시제품 제작하는 것입니다. 1등~10등을 정하여 5천만 원~1억 원까지 제작비용을 드리는 게 있고 고도화 지원 사업은 2억 5천만 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기업이 하고 싶은 것들을 지원하고 경쟁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는데 시민들이 전체는 아니더라도 마을 사람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시민 중심으로 해보자 하여 개별적으로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AI만을 위한 사업이 아닌 것입니다. 시민들을 위한 사업을 진행해 보자 하여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 배심원 : 사업 대상이 기업 16개사 내외, 총사업비가 책정된 부분에 대해서 사례가 없었다고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사업비가 그리고 기업이 선정된 것인지 어디에서 선정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 담당자 : 시제품 할 때 기본적으로 1억 원 정도를 가지고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처음 만들기 때문에 고도화 제품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1억 원 정도를 책정했고, 예산에 맞추다 보니, 16개사 1년에 4개씩 한 것입니다. 사업 추진은 인공지능융합사업단에서 실제로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별도 기관에서 하게 될 예정입니다. 1년에 8개씩, 8억 원씩, 건당 1억 원씩 예산을 책정했고, 사업계획서 별로 적정 금액에 맞춰서 진

행하는 것이지 무조건 주는 것은 아닙니다. 100% 다 해주는 것은 아니고, 선정이 되면 절차에서 협약이 이루어지고 금액 변동이 있을 것입니다.

- 배심원 : 시제품은 작년에 하고 있었나요?
- 담당자 : 매년 하고 있으며 37개 제품을 지원해줬습니다.
- 배심원 : 작년에 받았던 시제품들이 이번 해에도 나온 것입니까?
- 담당자 : 헬스장에서 1:1 PT 할 때 인바디도 있고, 사진을 보고 자기 체형을 맞춰주고, 맞춤형 운동법 제공 등을 하고 있는 제품도 있습니다. 기업들이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 민선 7기에 하던 사업으로 쪽 진행될 예정입니다.
- 배심원 :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된다고 하면 광주 시민들이 언제 활용 할 수 있습니까?
- 담당자 : 내년에 4건이 실질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 배심원 : 독거노인들에게도 지원하는 등 좋을 것 같습니다.
- 담당자 : 산업기관들에서 시민들의 불편함을 듣고, 협의를 통해 시급한 것, 많은 분들이 느낄만한 것들을 위주로 먼저 진행할 예정입니다.
- 배심원 : 민선 7기 때도 했다는 것입니까?
- 담당자 : 아닙니다. 별도로 시제품 사업이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서 38개 받아서 한 것입니다. 다른 지역의 기관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다릅니다. 전액 시비 사업만 한 것은 오로지 우리 광주 기업들만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 배심원 : 그럼 언제쯤 볼 수 있습니까?
- 담당자 : 1분기에 받아서 2분기에 실행할 예정입니다.
- 배심원 : 대학과 연계하여 많이들 하더라고요. 학생들이 아이디어가 많으니 공모 비슷하게 하여 기회를 주면 좋겠습니다.
- 담당자 : 자치구하고 산업기관들, 교육청까지 공문을 보내 받도록 하겠



습니다.

- 배심원 : 민원이 많이 들어온 위주로 한다고 했는데 어떤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지 궁금합니다. 그걸로 추측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없으니 체감이 안 됩니다.
- 담당자 : 자치구에서 받아야 되니 알 수 없고 저희가 봤을 때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 예시로 적어놓은 것입니다.
- 배심원 : 6개월 전에 아파트 같은 경우 재활용이 잘 되어 있는데 주택, 원룸 층에 떠있는 LED 그런 게 AI인지요?
- 담당자 : AI는 말 그대로 인공지능입니다. 그것은 그냥 조명입니다.
- 배심원 : 쓰레기 무단투기는 어떤 식으로 AI를 활용하여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것인지요. 너무 추상적입니다. 현재 말은 다 나옵니다. AI 영재 사관학교 네이버가 탈락한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담당자 : 담당자가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 일단은 네이버는 네이버대로 광주에 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선정에 있어서는 공무원이 결정하는 사안이 아니고 평가단이 하는 것입니다.
- 배심원 : 평가단을 선정 하는 게 시 아닌가요?
- 담당자 : 보이지 않는 효과들은 담당자가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공약실천계획 평가	1-13	지역산업 현장맞춤 산업인력 플랫폼 구축
--------------	------	-----------------------

■ 공약사업 담당 부서 설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 2026.
- 사업내용
 - 업종별·분야별 기업의 구인수요에 맞춰 교육훈련기관 수료생 데이터 관리
 - 전담창구를 통해 기업-교육훈련기관-수료생간 정보연계 및 취업지원
 - 필요시 일자리플랫폼 고도화를 통해 상호간 정보제공 자동화 구현
- 소요예산 : 2,100백만 원 (국비 1,720, 시비 380)

○ 사업추진계획

- 광주지역 인력훈련 수급 실태조사 및 분석('23.~'26.)
 - 공공 및 민간직업훈련기관의 교육·훈련계획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
- 일자리 매칭 상담창구 운영('24.~)
 - 기업-교육훈련기관-수료생간 정보연계 및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필요시 일자리플랫폼

■ 질의응답

- 담당자 : 지역산업 현장맞춤 산업인력 플랫폼 구축 사업입니다. 현재 기업이나 산업에 인력 파악이 제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중소기업에서는 인력난이 있고, 청년층에서는 직급에 맞는 인력 수급과 일자리 미스매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업인력 공급을 통한 인력난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인력수요를 기반으로 맞춤형 교육훈련 및 취업연계 서비스 제공, 지자체 대학 산업체 협력기반으로 지역혁신사업을 통해 지역맞춤형 인



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구인구직 정보를 통합관리하고 있고 취업알선 및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워크넷을 활용하여 취업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구축에서 매칭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22~26년까지 산업맞춤형 인력양성을 통한 우수 구인기업 발굴, 구직자 대상 취업컨설팅 및 취업연계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절차는 인력자원개발위원회에서 매년 인력 수요 파악하고, 교육 훈련 기반을 수렴하고, 사업수행기관을 정하여 양성하고, 구인구직정보 통합관리 취업 서비스를 위해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플랫폼을 고도화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1억 원으로 측정을 했고, 국비 17억 원, 시비 3억 원 정도로 했습니다. 23년부터 민선 8기 기간 동안에 인력훈련 수급 실태조사를 하고, 23년에 일자리 매칭 상담창구 운영을 하고 이후 일자리 플랫폼 고도화를 통해 정보제공 자동화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 배심원 : 지역산업맞춤형 훈련들이 전부터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포함한 고용센터에서도 취업성공패키지 등이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고, 24년부터는 상담창구를 또 만들 예정인지요?
- 담당자 :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에게는 좋은 기업이 부족하고, 기업에는 직종별 수준에 맞는 인재를 발굴하기가 어렵습니다. 고용센터를 통해서 일자리 매칭 사업을 진행 중이나,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등록한 사람들이 많아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좋은 기업 발굴, 인재 기업 직업 교육, 인재와 기업을 매칭 하는 별도로 사업을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이미 사이트가 만들어져 있고, 우수한 기업만 우수한 인재만 등록하도록 하여 장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 배심원 : 24년부터 한다고 한 것으로 보아 내년부터는 어렵나요?
- 담당자 : 좋은 기업을 만들고자 할 때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빠르면 23년부터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혁신프로젝트,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입니다. 기업지원 교육훈련, 취업서비스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배심원 : 중복으로 지원이 가능한지요?

- 담당자 : 일자리 포털은 워크넷입니다. 전국단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잡넷은 누구나가 등록하는 사이트는 아닐 것입니다. 제한적으로 실력이든, 고용조건이든 제한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 배심원 : 예산 중에 플랫폼 고도화에 쓴다고 했는데, 10억 원을 어떻게 쓴다는 것이지요?
- 담당자 : AI를 도입하는데 현재 기술로서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매칭률이 1% 미만입니다. 현재 기술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을 했고, 이 잡넷이라는 곳을 가면 좋은 인재, 좋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는 입소문이 난다고 하면 이곳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테고, 특화된 서비스 플랫폼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AI 기술 발전과 맞춰 도입을 해보자 한 것입니다. 잡넷을 구축하는데 10억 원을 쓰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기업은 이미 들어와 있고, 좋은 인재를 얻어야 하는 협의를 하고자 합니다.
- 배심원 : 별도의 지역사이트를 만들어 구직자들을 굳이 헛갈리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 담당자 : 워크넷에 등록을 해서 어떤 인재를 구하다 보면 다른 지역에서 우리 지역에 좋은 인재가 있으면 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인재가 우리 지역에 머물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 배심원 : 좋은 인재가 다른 지역에 가서 더 좋게 일할 수 있으면 좋은 것 아닌가요? 그곳에 많은 비용을 든다고 하는 것은 낭비가 아닌지요?
- 담당자 : 매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8억 원으로 실태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 배심원 : 플랫폼 고도화를 위해서 폐쇄적인 사이트를 만든다고 하니 이해가 안 됩니다.
- 담당자 : 필요한 경우에 도입을 한다고 한 것입니다. 추후에 이 사이트가 활성화됐을 경우에 해보겠다는 취지의 사업입니다.



- 배심원 : 그럼 예산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 담당자 : 전체적으로 AI까지 한다고 하면 이 정도 들겠다 하여 추정하는 예산입니다.
- 배심원 : 의견을 드린다면, 예산 낭비하지 말고 꼭 적합한 곳에 썼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인가를 새롭게 만들고 일거리를 만들지 말고, 구인을 못하는 기업을 위한 실태조사가 됐든, 잡페스티벌을 하던 기존에 있던 사이트를 개발하는 등이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워크넷은 알고, 잡넷은 모르지 않습니까? 폐쇄적인 마인드를 버려야 합니다. 훌륭한 인력을 우리 지역으로 초빙해 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빼앗긴다는 식의 사고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 담당자 : 기본적으로는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을 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폐쇄적이라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좋은 기업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더 좋게 활성화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 배심원 : 예를 들어서 지역 사랑방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업과 조인하여 있는 것을 활성화할 수는 없는지요? 구축을 사랑방에 하는, 인지도가 있는 것을 활성화시키면 좋지 않겠나 합니다.
- 담당자 : 좋은 기업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막상 가서 보면 노동조건이 맞지 않는 등 문제가 있습니다.
- 배심원 : 사랑방에 플러스하여 구축을 하는 것이 더 좋지 않나요? 워크넷을 활용하면 됩니다. 기업정보를 자세히 제공하는 것이 좋지 않나요?
- 담당자 : 워크넷에는 허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잡넷에 등록을 했다고 하여 워크넷에 등록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 질이 높은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여하는 것입니다.
- 배심원 : 여러 군데에서 하면 헛갈린다는 것입니다. 잡넷에 답을 수 있는 정보를 워크넷에 답을 수 있는 것입니다.
- 담당자 : 사이트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배심원 : 미스매치를 방지하려는 것 아닙니까? 기업과 인재와의 미스매치가 많이 일어나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요.
- 담당자 : 맞습니다. 지역혁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위해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 배심원 : 인력양성프로그램에 뭐가 있습니까?
- 담당자 : 국민내일배움카드라고 하여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에게 정부 지원이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지역산업맞춤형이라고 하여 특정훈련 기간을 운영하는 사업이 있고 대학과 시와 협력을 하여 RIS 사업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력양성 사업과 기업과 매칭시키는 사업이 약한 부분이 있어 진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배심원 : RIS는 산업협동에서 관이 들어간 것이지요?
- 담당자 : 맞습니다.
- 배심원 : 플랫폼 고도화는 구체적인 어떤 예산안이 안 나왔는데 10억 원으로 책정한 게 어떻게 된 것이지요?
- 담당자 : 이 부분을 허수 측면이 있습니다.
- 배심원 : 10억 원보다 더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 않나요?
- 담당자 : 예산 투입이 많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으면 어쩌나 걱정이 많습니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 배심원 : 많은 비용을 들여서 취업까지 연계했는데 중도이탈을 하거나, 매칭만 잘한다고 허수가 안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지역에 가거나, 내일배움카드로 학원을 가서 돈만 받고 훈련이 안되거나 훈련해도 취업을 해서 그만두는 등 허수가 많이 있지 않을까요?
- 담당자 : 일정 기간 동안은 취업을 유지한다든가, 다른 사업으로 바꾸고자 할 때는 다른 조건을 두는 식으로 사후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 배심원 : 나이 드신 분들, 정년이 차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받는 교육은 일회성으로 끝납니다. 나라에서 고용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의문점이 생깁니다. 진짜 일할 사



람, 공장에 갈 사람들이 필요한 조립법 교육 등을 시키고, 회사가 이런 데가 있다 설명도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나도 받아 봤지만 그 돈이 정부사업에서 아깝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직업 연계가 안 됩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연계가 안 되더라고요.

- 담당자 : 맞습니다. 이 사업을 구상하는 이유도 고용노동부 워크넷이라는 부분이 취업하고 싶은 사람이 100% 활용하는 사이트는 아니어서 이 사업이야말로 정말로 원하는 사람과 연계해주겠다는 취지입니다. 설문 조사를 해보면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역에 머물고 싶다는 의견도 있지만 지역에 좋은 기업이 없다는 의견도 따라왔습니다. 유형별로 하여 좋은 기업을 발굴하고자 합니다.
- 배심원 : 민간 기업을 활용하여 플랫폼을 더 활성화시키는 것이 더 낫다고 봅니다.
- 담당자 : 민간 기업으로 하면 기업들이 개인적으로 부담이 됩니다. 개인 기업이 부담이 안 되는 선에서 우리 시가 투자하여 진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 배심원 : 광주에는 좋은 기업이 없습니다.
- 담당자 : 의원님들의 인식과 같이 광주에는 좋은 기업이 없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시에서 기업을 발굴하여 진행하겠다는 것입니다.
- 배심원 : 근로자 입장에서는 많은 정보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담당자 : 청년들은 단순히 월급만 생각하지 않고 워라벨 복지 같은 것을 더 신경 씁니다.
- 배심원 : 워크넷에서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 담당자 : 좋은 기업은 기준을 정하고 유형화를 시키고 그 기업들을 잡넵에 넣어준다는 것입니다. 별도로 관리하는 것의 좋은 점이 뭐가 있냐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잡넵 플랫폼이 활성화가 된다면 기업 입장에서 잡넵에 들어갈 수 있도록 좋은 장기적인 효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 배심원 : 잡넷을 운영하는 유관기관으로 광산업진흥원은 왜 나온 것인
지요?
- 담당자 : 시에서 전부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위탁하여 진행하는 것
입니다.



■ 공약사업 담당 부서 설명

○ 사업개요

- 기 간 : '22. 10월 ~
- 발행형태 : 체크카드, 선불카드
- 사용범위 : 광주상생카드 등록 가맹점
 - ※ 백화점, 기업형 SSM, 대형마트, 중소기업이 아닌 업체, 대형병원 등 제외
- 지원내용 : 상생카드 할인 지원(10% 이내), 카드결제수수료 지원 등

○ 사업추진계획

- 광주상생카드 발행 및 할인 운영 : '22. 10. ~
- 광주상생카드 이자수입 세입처리 : '23. 2.
- 광주상생카드 운영사 선정('24~'26) : '23. 하반기

■ 질의응답

- 담당자 : 상생카드는 19년 3월부터 계속 발행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지역 내에서 사용하도록 소상공인에 쓰도록 하자고 하여 매출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올해는 6월에 중지가 되었습니다.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어 중단이 되었습니다. 22년 국비 지원이 축소되는 바람에 시비를 많이 썼는데도 중단이 되었습니다. 추경예산을 받아 10월부터 재개되었습니다. 임기 8기 동안에도 진행되도록 노력하고 있고, 전부 예산이 삭감이 되고 있지만,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국비랑 소통하여 국비로 부활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안되면 시비로 진행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 배심원 : 올해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요? 작년 예산은 얼마였지요?

- 담당자 : 964억 원입니다. 작년은 1조 1,400만 원 이었습니다.
- 배심원 : 내년 예산은 어떻게 되는지요?
- 담당자 : 아직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 배심원 : 사용처가 어떻게 되는지요? 대형마트, 백화점은 안 되는지요?
- 담당자 : 다 안 되고, 식자재마트는 됩니다.
- 배심원 : 중기청에서 발행하는 소상공인 개념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요?
- 담당자 : 5인 이하지만 중소기업은 들어갑니다.
- 배심원 : 대부분 시민들도 상생카드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기대 효과를 보면 지역자금 유출방지,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한다고 하는데 검토가 필요합니다. 먼저 재난지원금을 다 소고기 사 먹는 등으로 쓰이지 않나요? 진짜 우리 사회에 열악한 노인들, 외식도 잘 못하시는 분들이 10% 할인받아서 상생카드를 사는지요? 국가 돈 퍼주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혜택을 보는 사람은 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 담당자 : 선별적으로 할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동네 식당에서, 카페에서 많이들 사용합니다.
- 배심원 :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을 주려면 온누리 상품권을 줘야 합니다. 다담 식자재마트도 엄청 큰데 상생카드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동네 카페나 식당에서 쓰는 것이 아니더라도요. 중산층 이상에서만 쓸 수 있더라고요. 저소득층, 소외된 계층은 10%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다담식자재 마트를 키울 수 있는 자본을 만들어주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 담당자 : 맞는 말씀도 있지만, 저소득층이 쓸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선별적인 복지가 아니라 이것을 사용하는 곳을 제한 두는 것이 다른 것이 복지로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 배심원 :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해 사용내역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 담당자 : 업체별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전통시장으로는 구분이 안 됩니



다. 카드형으로 발급을 하다 보니 다른 지역은 지류형 화폐도 있긴 합니다. 시작할 때는 많은 분들이 썼으면 해서 쓸 수 있는 곳도 많이 지정을 했었습니다. 입찰을 통해서 들어와서 선정을 했고, 수수료 없이 제공하다 보니 광주은행을 했습니다. 또 영업점이 광주은행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혜를 준 것도 아닙니다. 업종은 아주 세세히 알 수 있지 않습니다. 또 우리 시가 등록을 해서 한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 배심원 : 식자재마트도 알 수 없는 것이지요?
- 담당자 : 법과 조례에는 소상공인으로 한 것이 아니고, 중견기업이 아닌 곳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나 제도가 전반적으로 조정이 되어야지 가맹점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 배심원 : 상생카드가 누구를 위한 제도입니까? 해마다 투자할 가치가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 담당자 : 소상공인 연합회나 상인 연합회가 있습니다. 상생카드를 많이들 좋아하십니다. 그분들도 소상공인인데 좋아하십니다. 의견은 나눌 수 있으나 완전 소상공인의 혜택은 없다 할 수 없습니다.
- 배심원 : 체크나 선불을 하고 있는데 지류형 화폐로 발행을 했을 경우에는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분실 위험도 있고요. 지류형으로 받은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곳에서 쓸 수도 있지 않나요? 타 시도에서 받은 사람들이 우리 지역 안에서 쓸 수도 있지 않나요?
- 담당자 : 그것은 가능합니다. 시민에게 할인하는 혜택은 부가적인 것이고, 우리 지역에서 쓰자! 하여 한 것입니다.
- 배심원 : 지류형으로 기간을 뒤서 발급하도록 하는 곳도 있던데요.
- 담당자 : 운영 수수료가 없이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류형으로 하는 곳은 조폐공사와 협업하여 하고 있는데 수수료가 너무 높습니다. 그 예산을 또 따로 잡아야 합니다. 지류형은 또 온누리 상품권이 있습니다. 지폐도 안 갖고 다니는데, 어플로만 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우리는 카드형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배심원 : 카드깡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 담당자 : 지류형이 많고, 카드는 결제를 하면 사업자가 세금신고를 하게 되지 않나요. 현금같이 쓰다 보니 바로 국세청에 신고 되는 형식이 아니지 않나요. 본인이 세금으로 다시 나가게 되어 있어 깡의 위험은 낮습니다.
- 배심원 :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계속 운영하는 것이지요?
- 담당자 : 20년 12월에 운영대행사를 기간을 해놨습니다.
- 배심원 : 10% 이내라고 했는데요.
- 담당자 : 지금은 10%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아직 미정입니다. 예산이 확정되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배심원 : 이게 복지정책이 아니라 경제정책이지 않나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지역자금이 유출이 안 된 것의 자료가 어디 있는지요?
- 담당자 : 우리도 하면 좋으나 전체적인 개인정보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카드를 쓰면 얻을 수 있는데, 카드를 개인이 얼마를 썼고 알 수 없습니다.
- 배심원 : 실제로 지역자금 유출이 얼마나 안됐는지는 자료로 알 수 있지 않나요? 일반 카드는 캐시백이 얼마나 되는지 아나요? 2~3% 캐시백이 있습니다. 5%로 해도 경쟁력이 있습니다.
- 담당자 : 국비 지원이 되면서 10% 할인을 해라 조건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국비가 삭감이 됐으니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 배심원 : 카드가 중단되면서 상인이 확실히 장사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시장 활성화가 덜 된다는 얘기입니다.
- 담당자 : 맞습니다.
- 배심원 : 국비를 삭감한 만큼 그 시비를 굳이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담당자 : 중단이 되면 다시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시비가 지금처럼 확보를 못할 것입니다. 지금은 책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시 검토를 해야 합니다.



- 배심원 : 근거도 없이 계속 유지하자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주부 입장에서는 꽤 괜찮은 사업이고, 대형마트도 안가고. 상생카드가 많이 활용됐으면 좋겠습니다.
- 담당자 : 맞습니다. 축소되더라도 많이 사용해주면 좋겠습니다.
- 배심원 : 저소득층은 그럴만한 돈도 없습니다.
- 담당자 : 10만 원짜리도 있고, 50만 원까지만 쓰라는 것입니다.
- 배심원 : 혜택을 많은 사람들이 많이 받았으면 합니다. 다른 시는 재난 지원금도 많이 주더라고요. 하지만 그것이 다 우리 돈입니다. 상생카드는 포폴리즘의 폐해입니다. 이것은 하면 안 되는 정책 같습니다. 작년에 재난지원금 풀고, 상생카드를 풀어 물가가 이만큼 오른 것입니다. 복지가 아니라 경제정책이지 않나 합니다. 사회안전망도 아니고 장애인들 광주은행에 50만 원 충전하러 다니나요. 진짜 사회적 약자들은 충전하러 다니지 않습니다.
- 담당자 : 너무 식자재에만 몰입하여 계신 것 같은데요. 장애인들은 또 복지로 따로 지원이 나갑니다.
- 배심원 : 맞교환을 해도 경제가 돌아가는데 가만히 있으면 경제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상생카드는 현 상태에서 완벽한 것은 아니나 업그레이드를 해야 합니다. 상생카드 부분이 경제적으로나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떠나서 도움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다 쿠팡으로 시킵니다. 우리같이 상생카드 있는 사람들은 지역 내에서 많이들 사용합니다.
- 담당자 : 카드를 받지 않으면 다 인터넷으로 삽니다.
- 배심원 : 얼마나 투자를 하여 얼마나 효과가 있어야 증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 담당자 :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증명하는 것이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나. 2분임 (빛고을 광주)

공약실천계획 평가	2-1	시민여가 공간 "익사이팅 존" 조성 사업
--------------	-----	------------------------

■ 공약사업 담당 부서 설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2. ~ 2026.
- 위치: 광주광역시 영산강 · 황룡강 일원
- 사업내용: 아시아권 문명 공동체인 영산강·황룡강 Y벨트를 중심으로 문화·예술 및 관광·레저 교류 공간 구축
- 사업비: 기본구상 용역 후 단위사업 발굴 및 사업비 확정

○ 사업추진계획

-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 추진 : '22. 10. ~ '23. 8.
 - 용역명: 영산강 · 황룡강 권역 문화관광자원화 시설 구축 용역
 - 용역비: 840백만 원 (국비 420, 시비 420)
 - 용역내용: 영산강 · 황룡강 권역 신규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원천자료 구축 및 사업추진 대상지 선정과 개발 대상사업의 기술 검토
- 용역 추진 자문위원회(민 · 관 합동 TF) 구성·운영 : '22. 10. ~
- 기본 및 실시설계 등 용역 추진 : '23. 8. ~
- 단계별 시설 공사 추진 : '24. 3. ~

■ 질의응답

- 담당자 : 본 사업은 Y프로젝트 사업으로 영산강과 황룡강이 만나는 Y 형태를 모티브로 프로젝트를 실시 중입니다. 영산강 상류 부분은 첨단 시민 공원과 첨단 공원이 있고, 내려오면 신창동에 마한역사유적지가



있고, 영산강 대산 근린공원이 있고, 황룡강은 월봉서원, 선비정신 문화, 송산유원지, 어등산에 오면 항일 운동 전적지가 있습니다. 선운지구에는 전국 최초 도심 속 습지로 지정된 8킬로미터 구간이 나옵니다. 영산강과 황룡강이 군부대에서 만나고 있고, 더 내려오면 승촌보가 있습니다. 총 길이는 담양 용소에서 발원에서 목포까지 111킬로미터 구간입니다. Y프로젝트에 의미를 부여하자면 백제문화, 호남문화의 발원지입니다. 아시아문화공동체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 과거 도심이 광주천 위주로 해서 발달됐고, 도시가 발전하면서 과거에는 영산강을 변두리, 주변으로 인식해왔고, 시민 생활권과 거리가 있다고 느꼈는데 최근 현재 들어와서 영산강이 도시의 축으로써 광주의 성장 발전축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Y프로젝트를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하면 국비와 연계해서 추진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문화 예술 관광 레저 교류 관광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기본 구상 용역을 9월에 발주해서 10월에 사업자 선정하고 10월 말에 용역 착수해서 내년 8월까지 용역 완료할 계획입니다. 역사이팅 시설들을 찾아내서 내년 2023년 설계, 24년 사업진행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대가 있겠느냐 하면 우리 영산강 황룡강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역사문화생태 자원들을 재구성하고 접근성을 확보하고, 수변공원을 통해 여가문화 체험 공간으로 조성하고, 재미와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콘텐츠를 발굴하고, 외부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강으로 만들려고 추진 중입니다.

- 배심원 : 구역별로 할 것인지 자체 Y구간 전체를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길만 닦아도 예산이 다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할 것인가요? 구역별로 사업을 했을 때 황룡강은 패러글라이딩을 하고 있던데 어떻게 정비할 계획인가요?
- 담당자 : 노란 구간은 도시계획상 개발 제한구역입니다. 건설행위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못하고, 공항 중심으로 위는 비행장은 고도제한 구역이 걸립니다. 나머지는 생산 녹지가 있습니다. 8억 4천만 원은 용역비이고, 영산강과 황룡강의 어떤 역사 자원을 발굴할지는 Y프로젝트 사업비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랜드비전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영산

강이 전남에서 시작해서 전남에서 끝납니다. 장성, 나주, 지역 전체에 큰 메가시티까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린벨트는 군 공항이 이전된 이후에 무엇인가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계획을 담아내지 않으면 난개발이 이루어지니 지금 하는 것이고 이전 이후에 할 것입니다. 영산강과 황룡강은 국가 천이기 때문에 영산강천에서 합의가 이루어져야 가능한 것입니다. 친수공간은 시설을 넣어도 되는 것이지만 세부적인 것은 협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기 사업은 내년, 내후년 아 이템을 개발하고, 나머지 중기 사업과 장기 사업을 계획하려고 합니다. 민선 8기 공약사항이긴 하지만 실제 사업들은 다음과 다음, 시장이 몇 번 바뀌더라도 계속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태화강이 4급수였다가 1급수 물이 됐습니다. 울산 태화강이 생태강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2003년부터 시작했고, 우리도 영산강을 이렇게 실시할 예정입니다.

- 배심원 : 말하자면 문화 여가 콘텐츠 발굴 용역사업이네요.
- 담당자 : 쉽게 얘기하면 물놀이장, 수상택시 공간, 단순 여가 즐기는 공간뿐 아니라, 마한유적지가 역사 문화 발굴이 더 빨라요. 시작은 저희가 했지만 광주와 나주 마한 역사는 다릅니다. 나주는 죽은 자들의 공간인데요, 고분이 많이 나왔고요. 신창동 마한 유적지는 사람이 살던 공간입니다. 농사 흔적, 주거지 터, 도구들이 나오고, 유일하게 삶의 흔적이 나온 공간이기 때문에, 마한 역사가 살아 숨 쉬는, 기원전 역사부터 시작하는 역사 배경을 갖고 발굴하겠다는 의미입니다.
- 배심원 : 마한의 실제로 살았던 것을 처음 들었습니다. 이전 공약들과 시장들이 계실 때는 이런 사업이 전혀 제시되지 않았었죠?
- 담당자 : 마한 유적지 발굴하고 활성화하자는 시도가 있었는데, 우리가 마음대로 발굴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닙니다. 문화재청 사고는 뭐가 더 나올지 모르니, 무언가를 발굴하고 찾아보자는 사고입니다. 그런데 문화재를 다루는 사람들의 사고는 미래에 발굴하고 찾아내는 것이 후손에게 유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선불리 기술이 개발 안 된 상태에서 발굴하면 훼손되니까요.
- 배심원 : 실질적으로 성과가 없으면 다음에 또 예산 투입하고 제자리걸



음이 될 것이고, 단편적인 예산 투자가 될 것 같아요.

- 담당자 : 광주 중심축이 되어 있잖아요. 영산강, 황룡강은 광주 중심입니다. 광주 발전 중심축입니다. 우리나라 최초 장록습지가 생태자원으로서의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시민 여가와 쉼의 공간은 영산강이 소외되어 없었어요. 기껏해야 자전거 도로가 있었고요. 그렇게만 보존하는 것도 좋은데,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활용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광주 3천만 방문 시대를 이끌어내겠다, 광주 전남 상생 축으로써 재발견하겠다는 것입니다. 1, 2년하고 말면 의미가 없습니다. 10~20년 내다 보고 플랜을 짜는 겁니다. 단년도 사업은 시설이 들어오면 처음에는 배가 안 부르죠. 시간 지나고 흘러가면서 수질도 개선되고, 시민들과 함께 숨 쉬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 배심원 : 월봉서원은 우리 후손들이 길이길이 봐야 될 것 같고, 역사적인 유적지가 없잖아요. 후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고, 장록습지도 들어봤는데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시정 홍보를 많이 해주시면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 담당자 : 월봉서원이 외지에 있고, 도산서원, 소수서원같이 많이 안 알려진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 가치도 상당히 크거든요. 선비정신과 광주 뿌리로도 접근이 가능한데 아쉽습니다. 장록습지는 2021년에 지정됐고, 아직 시작단계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연계하고 알리는 과정을 용역에 담아낼 것입니다. 시민 의견 듣는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 배심원 : 신창동 유적지는 아직 손을 못 대나요?
- 담당자 : 지금 유물은 국립광주박물관에 가면 일부 전시하고 있고, 발굴됐던 악기, 수레바퀴, 베틀 짤 때 북이 있고, 다양한 기원전부터 이 동네에서는 바퀴 개발해서 운송수단과 교역 수단으로 활용했다고 합니다. 배도 나왔습니다.
- 배심원 : 신창동 많이 지나가는 데 있는 것은 아는데, 안내가 없어요. 입간판 하나가 붙어 있고, 사람 못 들어가게 돼 있고요. 신창동 유적지

왜 이렇게 놔뒀지 합니다.

- 담당자 : 아는 사람만 아는 상황입니다. 마한 유적지라서 손을 못 대서 놔둔 거예요. 시에서 신창동 유적 체험관을 다 지어서 올 연말에 개관할 겁니다. 집터 모양도 복원해서 놔두고, 1번국도 보건대 우측으로 있고요. 정식 오픈하며 체험관도 오픈되고, 그때부터 마한유적에 대해 알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배심원 : 산책로 올라가니까 영산강 내려다보이는데, 한 바퀴 돌 수 있도록 잘 정비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담당자 : 네.
- 배심원 : 용역비는 어떤 용역비인가요?
- 담당자 : 문체부 국비가 4억 2천만 원이고, 시비가 4억 2천만 원이어서 8억 4천만 원으로 용역 받주었습니다. 구간이 넓어요. 용역비가 55킬로미터입니다. 현황들을 조사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개발 안 되는 곳, 개발되는 곳, 관계 법령들 다 고민해야 하고, 콘텐츠 개발해야 하고요. 그것 과정이 8억 4천만 원이고, 실행 사업비 즉 공사비는 용역에서 내역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총금액이 결정됩니다. 내년 8월에 끝나기 때문에 그 정도 용역이 나와 봐야 합니다. 나오면 민간과 TF팀, 지역사회 의견수렴 날이 꾸려집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보고 드리고, 언론 통해서도 보고 드리고 할 것입니다. MBC에서도 공익광고 무등산을 사랑합시다. 했죠. 이제는 영산강 시대, 해서 우리 시에서도 홍보와 토론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언론 쪽으로도 홍보가 될 예정입니다. 빠르면 연말부터 될 것입니다.
- 배심원 : 용역 업체는 어디가 응했나요?
- 담당자 : 전국으로 공모해서 4군데 응찰을 했습니다. 최종 선정은 안 됐는데, 사업 수행능력평가를 거쳐서 10월 말에 선정됩니다. 참여하겠다고 입찰 의향서를 보면 메이저급이 들어와 있습니다. 내실 있게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 배심원 : 어느 부분에는 먹거리를 해야 하는데, 가족들과 같이 오면 먹



거리, 놀거리가 필요한데, 테마를 나누실 건가요?

- 담당자 : 용역을 통해서 분산할지는 볼 것이고, 볼거리, 먹거리를 어떻게 넣을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 배심원 : 8억 4천만 원 산출 기준이 궁금합니다.
- 담당자 : 용역비는 내역이 있어요. 기술 용역과 학술이 복합된 것인데, 기술은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이 있어요. 기술사, 특급 기술사, 중급, 초급. 여기에 몇 명 투입할 것인지 산출하고, 학술 용역은 90대 10%로 투여합니다. 학술이 큰 그림 그려주면 나중에 기술이 투여가 됩니다.
- 배심원 : 다른 지역 사례를 참고하신 것이 있나요?
- 담당자 : 가장 염두에 두고 있는 곳은 울산 태화강 사업을 모델로 해서 시찰하고 있고, 대구 금오강이 앞서서 마스터플랜을 계획 했습니다. 환경보호와 국토부에서 국비를 해서 사업하겠다고 했는데, 금오강은 역사성이 떨어지더라고요. 태화강은 바위에 그림 그린 것이 있어요. 울산과 대구, 경인 아라뱃길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배심원 : 만들어지면 관리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 담당자 : 시설관리공단, 관광재단, 도시공사 분산되어 있습니다. 구에서 해야 할 성격이면 구에서 해야 되고요. 성격에 따라서, 아이템 발굴되면 규모나 성격에 맞게 이관할 것인지, 직접 할 것인지 확인할 것입니다.
- 배심원 : 시장님 핵심 공약입니까?
- 담당자 : 네. 시장님께서 과장급 이상 간부들을 대상으로 연찬회를 했어요. 시정 철학을 공유했는데, 제일 먼저 나온 것이 영산강 시대입니다. Y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야기하셨고요. 참모들은 되겠냐 아니다 반대도 있었습니다. 강기정 후보 때부터 강력하게 밀어붙이셨고, 애착이 많 습니다. 우리 시청의 사무관이 300명이 넘습니다. 제 이름은 딱 기억합니다. 익사이팅 존 팀장 어디 갔어? 하십니다.
- 배심원 : 흥미가 있는 내용입니다. 광주가 크려면 핵심 사업 같습니다.

외지를 많이 다니는데, 광주에는 놀거리, 서원이 없습니다. 안동하면 도산서원 끝내주는데, 기대승 선생과 큰 차이가 없는데요. 소쇄원까지 연결해도 하나의 익사이팅 존이 되는 것이잖아요. 탐방하는 것, 익사이팅으로 시장님이 핵심적으로 문화를 생각하셨구나 느껴집니다.

- 담당자 : 그렇죠.
- 배심원 : 광주하면 무등산 외에는 갈 곳이 없습니다. 담양, 장성, 광주 시내 한 곳도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내려다보고 구상해서 착수해나가면 내세울 만한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 담당자 : 저도 마찬가지로 외부 대학 동기들이 광주 안 와본 사람들이 어디가면 좋아? 하면 무등산 가라. 아무 식당이나 가도 돼. 저도 꼭 가 봐! 가서 후회 없는 곳이 없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대표 브랜드를 만들려고 부단히 노력했지만 너무 다양했습니다. 하나로 집중시키는 것이 영산강 황룡강으로는 좋은 것 같습니다.
- 배심원 : 어디에서 어디까지 관광 목적으로 하는 건데, 이 많은 비용을 했기 때문에 무료입장인가요?
- 담당자 : 기본적으로 시에서 무언가를 조성해놓은 시설들은 거의 대부분 무료입니다. 국가 정원 지정이 목표인데 그렇다면 유료가 될 것 같습니다. 큰 규모가 나오면 민간자본을 유치해야죠. 거기는 돈을 받겠죠. 검토하지만 어떤 부분들을 무료로 가야 되고 유료로 가야 되는지는 아 이템이 안 나왔습니다. 시에서 국비, 시비 들여서 하는 사업은 무료 개방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 배심원 : 무료면 관리가 안 될 것 같아요.
- 담당자 : 황룡강과 영산강 전체에 어느 스왑이 주로 우리가 발견하고 가꾸어나가야 할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신창동 마한 유적지는 문화재 보호구역이라서 보호를 해야 할 측면입니다. 여기는 무엇을 하더라도 마한체험관은 무료로 개방하지만, 여기는 물놀이장으로 써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민간, 시에 줄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 배심원 : 최장 몇 년으로 보시는지요?



- 담당자 : 가시화될 것이라고는 생각하는데, 군 공항이 이전지로 결정되고, 옮기는 거라고 생각해서 완료까지 10년 이상 걸립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10년 뒤에 끝납니다. 저희 조성 시간도 필요하고 최하 10년 이상 봐야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공약실천계획
평가

2-8-2 국제게임쇼케이스 및 QA센터 운영

■ 공약사업 담당 부서 설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 2026년
- 사업대상 : 게임기업 및 시민
- 사업비 : 176억 원(국비 85억, 시비 91억)
- 사업내용 : 글로벌 게임 이벤트 개최 및 게임 QA센터 운영
 - [글로벌게임개발자 페스티벌 개최]
 - 지자체, 게임 관련 협단체, 기업 등과의 협력을 통한 공동 조직위 구성 및 운영
 - 글로벌 게임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주제 강연과 교류를 위한 글로벌 대표 개발자 컨퍼런스 개최
 - 광주이스포츠경기장을 활용한 글로벌 이스포츠대회 유치, 신작 발표회, 인디게임 체험존 등 운영
 - [게임QA센터 운영]
 - QA센터 설립 및 운영방향 설계 연구, 기존사업과 연계 강구
 - 연구 결과에 따른 운영 추진

○ 사업추진계획

- 게임QA센터 운영방향 설계용역 추진
 - 지역기반게임산업육성 사업비 집행 잔액으로 추진(20백만 원 소요)
- 2024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연차별실시계획 사업 추가
 - 글로벌게임개발자 페스티벌 개최(총사업비 60억 원, 연 10억 원 소요)
- 게임QA센터 운영을 위한 사업비 증액
 - 지역기반게임산업육성 사업비 2억 증액(국비 14억, 시비 16억)



■ 질의응답

- 담당자 : 국제게임쇼케이스라는 것은 게임쇼케이스가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하는 것처럼 박람회라고하시면 됩니다. QA는 품질인증이에요. 게임 출시 전에 검증해주는 기능을 하는 것인데,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게임이 만들어질 때는 무조건 필요한 사업입니다. 일단 두 가지 꼭지 중에 쇼케이스부터 말씀 드리면, 지금 현재 국내 가장 유명한 게임 쇼케이스는 지스타가 있습니다. 11월쯤에 부산에서 지스타가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저희는 지스타같이 먼저 선점한 게임 쇼케이스보다는 먼저 게임 개발자를 모아서 그들의 축제를 만들어보자는 취지입니다. 국내에는 그런 자리가 없습니다. 광주 이스포츠 경기장이 조선대 안에 있어요. 이것을 활용해서 이스포츠 종목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게임 대회를 열려고 합니다. 자료를 보면 최근 지역기반 게임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현재 시비 14억 원, 국비 14억 원 28억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실적이 좋은 편인데 거기에 시비 2억 원 더해서 품질 보증 꼭지를 넣어서 30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향후 계획 보면 설계 용역 추진은 현재 2천만 원으로 사업 진행하고 있고, 11월 말, 12월 초에 결과가 나오면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게임 개발자 페스티벌을 보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연차별 실시 계획안에 일단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예산 확보가 됐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억 원 증액된 예산이 올라가 있습니다.
- 배심원 : 개발자 대상으로 만들어진다고 했는데, 돈 되는 사업을 하는 것인데 개발자들 대상으로 하면 사람들이 올까요? 얼마나 예상하세요?
- 담당자 : 개발자 협회가 있는데 개발자 협회와 얘기를 하면서 개발자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광주 쪽으로 오도록 하려고 합니다. 수도권이긴 하지만 많은 개발자들이 광주에 올 일이 많이 없는 데, 와서 소비도 하고 볼거리도 보고 같이 엮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배심원 : 연중행사처럼 하려고 하는 것이죠?
- 담당자 : 그게 목표입니다.

- 배심원 : 연중행사로 봤을 때는 일회성이잖아요. 개발자들이 관광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것도 수입을 보는 것은 개발자들이지 않나요. 광주에 이득이 있을까요?
- 담당자 : 광주가 게임을 진심으로 대하고 있다는 것을 표출하는 것입니다. 부산 지스타는 전국 30만 명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도 들리고 가거든요. 개발자들의 특수 목적, 타 지역에서 하지 않고 있는 행사를 만들게 되면 다른 곳과 차별성도 있고, 지역에 분명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 배심원 : 용역비용은 어떤 기준으로 산출됐어요?
- 담당자 : 교통사업 추진 타당성과 QA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다르게 할 것인지 전문가 자문과 용역을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
- 배심원 : 용역 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 담당자 : 3개월입니다.
- 배심원 : 국비와 시비가 많이 드는데 센터를 새로 짓는 것은 아니죠?
- 담당자 : 센터를 짓는 것은 부담스러워서 재역개발 사업의 한 꼭지로 넣을 것인지 직접 운영을 할 것인지, 어떤 것이 좋은 방안인지 결정하려고 합니다.
- 배심원 : 사업비를 크게 잡는 거네요?
- 담당자 : 엄청 커 보이지만 매년 28억 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매년 2억 원 정도만 나간다고 보면 돼요. QA부분은 일단 그렇게 나간다고 용역 세웠는데 직접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면 수정돼야 하죠.
- 배심원 : 이스포츠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담당자 :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는데 이스포츠는 게임 좋아하는 사람 중에서도 이 종목, 저 종목 다양합니다.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는 많더라고요. 컴퓨터게임을 가지고 겨루는 것입니다.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



도 이스포츠가 있습니다. 그것도 국가대표가 나가서 겨루게 됩니다.

- 배심원 : 젊은 사람들은 많이 알지만 저는 솔직히 많이 들어봤지만 무엇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보면 있는데, 무엇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지? 합니다.
- 담당자 : 시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다양한 분야에 대해 설정을 하잖아요. 문화 콘텐츠 팀인데 그나마 발전 가능성이 가장 높긴 합니다. 그 회사는 전남대 사무실 빌려서 게임 개발했는데 대박 터트려서 100억 원 가까이 벌었어요. 그 친구들이 서울에 올라가서 더 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아이디어만 좋으면 어떻게 팡 터질지 몰라요. 조금만 재밌고 참신하다 하면 확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니깐 그것에 있어 지원해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수도권에 대부분 게임 기업이 많아요. 그나마 지원금을 줘서라도 지방에서 개발해보라고 하면, 서울 회사가 광주로 본사 옮겨서 사업비 지원받아서 게임 개발하겠죠. 사우스커가 좋은 사례가 되겠죠. 광주 출신이긴 하지만 서울에 더 큰 것으로 올라갔습니다.
- 배심원 : 시민이 아니라 게임 산업을 위해서요?
- 담당자 : 게임 개발 기업을 위해서요.
- 배심원 : 현실성은 멀지 않나 합니다. 기반이 잘 되어 있는 곳에서 하려고 하죠.
- 담당자 : 네. 이렇게라도 하긴 하니까 나오더라고요. 매출액은 200억 원 넘게 나왔거든요.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고용 창출도 480명 했습니다. 광주가 게임, 음악 등 수도권에 비해 열악합니다. 광주 여건에 맞게끔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지만 수도권에 비해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자리 자체가 도시가 굴러가려면 일자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결국, 일자리가 없어서 수도권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 배심원 : 게임과 앱 개발이 같은 개념인가요?
- 담당자 : 사용 언어도 다르고, 게임은 보통 동작을 만드는 것이라든지 스토리라든지 이런 것을 개발합니다. 게임이 종합예술과 같습니다.

- 배심원 : 동전 양면인 것 같아요. 생산성이 없어 보이니까요. 초기 투자가 많이 들러도 만들어놓으면 누군가는 올 것이니까요. 한 마디로 물 빠지듯 빠지면 안 될 건데 탄탄히 구상해서 해주세요.
- 담당자 : 광주가 여러 가지로 열악한데 현실에 맞게끔 해야 맞아요. 안 된다고 하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시작하면 중장기 목표를 가지면 잘 될 것이라고 보면 될까요? 처음에 대학생들 3~4명으로 인디게임 페스티벌부터 시작해서 게임을 다 만들었는데 홍보가 부족해서 마케팅까지 28억 원 사업비에 다 들어갔어요. 2억 원 더해서 QA를 추가한 것으로 앞으로는 세계 대회도 유치될 것 같아요. 호남대, 전남과학대, 조대는 이스포츠 학과가 별도로 있어요. 대한민국에 현재 9개 과가 있어요. 학생들이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게임이 리그 오브레전드인데 미국에서 하는데 8강 중 4팀이 한국팀이고, 중국팀 3개와 유럽 1개가 한국이 게임으로는 무언가 엄청나게 경쟁력이 있습니다.
- 배심원 : 유지비가 없다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F1은 많이 들잖아요.
- 담당자 : 코로나 시국에 온라인으로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온라인 바둑대회도 온라인으로 하잖아요. 온라인상으로 대결하고, 해설과 캐스터가 들어가면 이스포츠라고 보시면 됩니다.
- 배심원 : 광주에서 대회가 많이 열렸나요?
- 담당자 : 20년도에 이스포츠 경기장이 개관됐고, 올해는 5월부터 계속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회는 주말에 계속 열리고 있고요. 조대 가면 전국 최고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체험은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배심원 : QA 센터를 굳이 넣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담당자 : 관에서 넣는 사례는 최초이고, 품질 인증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2억 원을 넣어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 공약사업 담당 부서 설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
- 사업내용 : 공유체육시설 개방 확대 및 공유 시스템 등록 관리
- 총사업비 : 1,800백만 원

○ 사업추진계획

- 유관 기관 및 전문가 의견 수렴 : '22. 9. ~ 12.
- 체육시설 전수조사 및 시민 설문조사 : '22. 9. ~ 10.
- 공공기관 체육시설 개방 및 종합계획 수립 추진 : '22. 11. ~
- 공유체육시설 공유누리 시스템 등록 및 관리 : 상시 지속
- 활용 가능한 유휴공간 발굴 및 수요 조사

■ 질의응답

- 담당자 : 공공체육시설 시민 이용에 불편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통합 시스템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사용을 위한 시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공유체육시설 공유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바로 예약 시스템은 우리 시가 운영 중인 예약 시스템입니다. 공유 누리 시스템을 통해서 공공체육시설 예약 통합 시스템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2022년 10월까지 자치구, 학교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주요 미개방 사유로는 코로나 19 예방, 학습권 보장 등이 있고, 개방률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나 적극적으로 개방 유도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방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쓰레기 무단 투기가 있고, 개방 대비 유지 관리 예산이 많이 든다는 것이었어요. 교육청과 협력해서 개방 70% 확충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 배심원 :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 담당자 : 5개년 예산안입니다. 연회 사업이고, 5개년 했을 때 18억 원으로 2026년으로 잡아놓은 사안입니다.
- 배심원 : 어디서 관리를 하고 있나요?
- 담당자 : 기관마다 관리하는 시설들이 다릅니다. 공유 누리에 시설들을 다 입력할 거예요. 지금은 등록 안 되어있고, 저희가 다른 기관들에 독려하고 해서 시스템 활성화를 할 예정입니다.
- 배심원 : 마침 중학교가 오픈해서 잘 사용하는데, 지역 주민들이 엄청 활용을 하세요. 지역 랜드마크처럼 사용하긴 하지만 여가 생활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 담당자 : 네.
- 배심원 : 시민들에게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이 파악이 된 건가요?
- 담당자 : 시민들이 공유누리가 있는 것도 모르고,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우리 시는 바로 예약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요. 저희가 홍보를 하고, 학교는 등록을 해야만 알 수가 있어서 학교장 설득을 하면 시민들이 들어가면 언제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겠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배심원 : 시설이 파손되잖아요. 유지비를 충당할 수 없어서 위험부담이 커서 개관을 못 하잖아요? 아이들 수업이 우선이잖아요.
- 담당자 : 운영비는 지원할 수 있는데, 강요보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개선해서 할 생각입니다. 학생들을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현실성 있게 70%로 잡았습니다. 70%는 코로나 이전에 개방률이 70% 정도 됐어요. 인문계 고등학교는 야간자율학습 때문에 개방을 안 한 곳이 있습니다.
- 배심원 : 여기는 공공시설, 학교만 하는 것이죠?
- 담당자 : 자치구, 공공 기관을 말씀드리고 학교 말씀드립니다. 야외 운동기구, 상시 개방이라서 시설 이용 측면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구 용산동 헬스장을 야간에 이용하는데 못하는 곳이 있어요. 문을 닫는 경



우도 있고, 체육관도 닫아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파악하려고 합니다.

- 배심원 : 교육청에 돈을 지원해 준다는 것이죠?
- 담당자 : 운영비가 필요하잖아요. 교육청 지원 부분도 있는데 일정 부분은 지원하려고 합니다.
- 배심원 : 클럽에서 사용료를 내잖아요.
- 담당자 : 그것으로 시설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배드민턴 치면 여름에 냉방비 지원이 필요합니다. 전기세, 냉난방비, 약간의 보수비용 등 이런 것은 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해 쓰는 것은 괜찮지만, 다른 것으로 인한 보수비용은 부담이 되니까 지원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 배심원 : 체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주는 게 아니네요?
- 담당자 : 단체들이 미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는 시스템입니다. 학교에서 정해서 배드민턴, 탁구 등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배심원 : 학교에서 개방해야 한다는 조례나 근거는 없나요? 학교장 재량인가요?
- 담당자 : 학교장의 재량사항입니다. 학교장은 책임자잖아요. 중대죄 처벌법이 생겨서 학교에서 사고가 나면 처벌을 학교장이 받습니다. 그래서 개방률이 떨어졌고요.
- 배심원 : 스포츠 건강 도시를 계획하지만 시민 전체 사용이 아니라 학교 강당은 특정 단체잖아요. 일반인이 운동하는 시스템은 아니네요. 학교 강당은 특정 종목만이거든요.
- 담당자 : 배드민턴 치려고 갔는데 안 된대요. 불특정 다수가 아무나 출입해서 사고 났을 때는 그에 대해 책임을 못 저준다는 겁니다. 시설 이용할 때 사전에 각서나 이행해야 할 사항들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공 체육시설을 사용하지만 어느 정도는 개인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배심원 : 저는 몇 년 전에는 일반인에 개방하는 것을 굉장히 반대했어
요. 학습권 방해로 생각했는데, 중요한 것은 시에서 왜 하나면 주민이
원하는 그룹이 많았어요. 많이 지지를 받아서 학교 측에서는 어찌어찌
한 요구사항과 서약을 받고 단체를 기준으로 지역 주민의 합의를 봐서
개방하겠다고 했었어요. 남구 대촌동 문화시설도 없어요. 지어주세요라
고 하면 부담이 되죠. 그러나 이런 면에서 많은 지역주민이 원하고 학
교에서 동의 되어서 개방하면 좋은 것 같아요. 시민이 할 수 없는 일을
시가 해주는 역할인 거죠. 개인이 실내에서 못 쓰잖아요. 어떻게 보면
모순이죠. 클럽 회원들은 미리 선점하잖아요. 공공 기관 개발이 의미가
없는 거죠.
- 담당자 : 원래 개인은 학교에 들어갈 수 없어요.
- 배심원 : 차라리 그 돈을 갖고 시민 전체가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라
는 것이죠.
- 담당자 : 충분히 공감합니다. 개인이 마음대로 쓸 수가 없으니까요. 그
것을 누가 관리합니까. 관리를 해야 해요. 쓰레기 무단 투기하고 가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클럽원이 많아요. 그것을 학생과 교사들이 청소합니
다. 개인이 와서 더럽게 했는데 누가 관리하니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규제가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염주체육관은 배드민턴 경기장이 있어요. 거기도 클럽 회원들이 쓰고
일정 시간 개인들이 쓸 수 있어요. 학교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
니고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배심원 : 예산이 산출된 기초가 어떻게 되나요?
- 담당자 : 코로나 시기 때는 개방할 수 없어서 지원 못 했고, 그 전에 4
억 원씩 지원했어요. 내년부터는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투입을 한 것입
니다. 학교 개방은 10년 넘게 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 배심원 : 개방하는 곳만 국한되는 것이죠? 관리비, 유지보수비에 지원
되나요?
- 담당자 : 학교 체육 시설이 개방되면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니까 거기에



일부 포함되는 것입니다.

- 배심원 : 액수가 적지 않아요?
- 담당자 : 현실적으로 예산이 안 됩니다. 전액 하고 싶지만요. 원래 개보수는 학교에서 하는 것입니다. 저희 지원 예산은 클럽이나 동호회에서 쓸 때 전기세, 냉난방비, 시설 사용비 지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 배심원 : 어떤 특정인들을 위해서 비용을 지출한 것 아닌가요? 광주 시민 전체가 아니잖아요. 이게 애매하죠. 시에서는 한 부분을 가져왔지만 공공 화장실도 마찬가지로 공공 개방 체육 시설도 시 예산이 들어가요. 건물을 사용하면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클럽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일반 시민이 이용해요. 학교들을 활용하면 나머지 공공 기관을 활용할 수 있어요. 근본적이면 광주에 그런 체육 시설이 부재하단 것이죠. 유지보수비를 지원해줘야 할 것 같아요.
- 담당자 : 교육청에서도 지원을 해줍니다.
- 배심원 : 교육청에서도 주는 돈이 많지가 않아요, 굉장히 적어요. 그러다 보면 다른 변칙 사용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일반인들에게 개방하면 단체에서 단기간 혼적은 안 나지만 장기간 사용하면 망가지는 게 자연적인 거예요. 우레탄이 사실 상당히 망가져요. 예산 갖고는 도저히 될 수가 없습니다.
- 담당자 : 예산 더 많이 주세요. 하면 예산 수립에 도움이 되겠죠.
- 배심원 : 학교 측에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유지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 담당자 :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 배심원 : 광주 시민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스포츠 시설을 만들어야 하잖아요. 시비, 국비 확보해야 하는데, 가족 단위 함께 즐기는 스포츠 시설이 빈약한 것 같아요. 화성이 신도시가 됐는데, 하나의 스포츠 센터가 관에서 하는 것이 광주보다 많아요. 수영장에 아이스링크 등 한 건물에서 모든 게 다 되더라고요. 가족이 들어가서 하루를 놀고 있어요. 광주는 다 떨어져 있고, 공간이 없어요.

- 담당자 : 예전에는 단일 용도에 스포츠 체육 시설을 했거든요. 지금은 수영장 딸린 복합용도를 짓게끔 바뀌었어요. 광주와 화성은 달라요. 광주 쇼핑몰과 하남 스타필드 있는 것과 다릅니다. 광주도 그러한 형태로 변화되고 있고요. 국가 선정 공모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할 수 있는 반다비 체육관이 들어왔잖아요.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 배심원 : 전국적으로 현황 파악해보시고 왜 광주가 없는가를 한 번 연구가 필요할 것 같아요.
- 담당자 : 조사했는데 아직 발표 자료는 아니기 때문에 부족한 시설이 많습니다. 체육환경이 변화하고 있어요. 어른들은 파크골프로 많이 갔어요. 청년들은 풋살장으로 가고 있어요. 20~30대는 수영장. 그런 시민들의 니즈를 조사하고 있고 그에 맞춰서 인구별로 지역별로 조사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배심원 : 수영장을 많이 늘어야 된다는 기사는 봤어요. 아이스링크장은 한 군데 밖에 없어요. 복합으로 지으면 되잖아요.
- 담당자 : 복합으로 짓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유지 관리비가 많이 듭니다. 사격장은 495억 원이 들더라고요. 그 돈 들어서 지어줘야 되는지 아니면 다목적 체육관을 10개 정도 지어야 하는지 타당성을 따지고 있습니다.
- 배심원 : 학교를 사용하는 생활체육인들, 시민들이 얼마나 되는지 통계가 나왔나요?
- 담당자 : 319개를 봐야 하는 것이라 그 통계가 매우 어렵습니다. 교육청에 협조 공문 보내고 해도 협조가 어렵습니다. 인원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 배심원 : 학교가 아예 운동장도 이용 못 하게 막아놔서 쓸 수가 없습니다. 이게 될까 싶습니다.
- 담당자 : 그런 곳이 있습니다. 저희가 강요를 할 순 없습니다. 학생 안전 문제와 학습권 보장도 있어서 같이 풀어가야 할 상황입니다. 사고가



나면 학교장 책임이기 때문에 쉽게 생각해서 개방하면 좋지 않나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 배심원 : 사용하는 날짜가 많지는 않아요.
- 담당자 : 맞습니다.
- 배심원 : 연간 지급 말고 월별 지급을 해야 더 좋지 않을까요?
- 담당자 : 여름과 겨울이 많이 들어갑니다. 냉방, 난방비가 들어가고 전기세와 수도세가 나오는 정도의 비용입니다. 대략 1년간 시기 분석은 되어서 진행하는 겁니다.
- 배심원 : 바로 예약 시스템이 있는 것이잖아요. 처음 들어봤어요.
- 담당자 :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대변인실에서 하고 있는 건데요. 아주 약해서 고도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하지만 전국적으로 행안부 공유 누리 시스템 제도가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면 각 링크를 타서 다 들어올 수가 있어요. 관리도 하고 홍보도 할 예정입니다.
- 배심원 : 홍보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사실 연령대가 높아지면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 담당자 : 홈페이지와 연동시켜도 쉽게 알 수 있을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한 군데가 들어가서 보기만 해도 나오게끔 하려고 합니다. 현재 어르신들 어렵다고 하지만 전화해서 물어볼 수도 있고 다양하게 하려고 합니다.

다. 3분임 (사랑의 광주)

공약실천계획 평가	3-2	종사자 단일임금체계 마련 및 노동여건 개선
--------------	-----	-------------------------

■ 공약사업 담당 부서 설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 2026년
- 지원대상 : 634개소
(시비지원시설 192, 국비지원시설 442) (기준: 2022. 6. 30.기준)
- 사업예산 : 516,726백만 원 ※ 여성가족교육국 단일임금 투입예산 미포함
- 추진내용
 - 제2기 처우개선(안)은 2023년까지 모든 시설의 인건비가이드라인 100%적용을 목표로 단일임금체계는 현행을 준수
※ 단, 여성가족부 소관 ‘호봉제 미적용 시설’은 별도로 처우개선안을 마련
 - 제2기 처우개선 성과평가와 광주형 단일임금체계 구축을 위한
 - ‘처우개선 민·관TF’를 구성·운영하여 촘촘한 처우개선 마련
 - 시설별‘정원’기준을 준수하고 인건비와 운영비를 분리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내용을 제3기 처우개선 수립시 검토
 - 청소년 시설등 유사경력 인정 미적용 시설에 대해서는 조례개정 등을 통해 개선

○ 사업추진계획

- ‘처우개선 민관TF’구성 및 운영 : ’22. 9.~’23. 6.
 - 제2기 처우개선 모니터링 및 처우개선 실태조사
 - 제2기 처우개선 추진결과 성과평가 및 분석
 - 광주형 단일임금체계 구축 방안 모색



- 제3기 처우개선위원회 구성·운영(임기2년) : '23. 3.~'25. 3.
- 제3기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안) 마련 : '23. 4.~11.
- 광주형 단일임금체계 구축 추진 및 단계별 시행 : '24. 1.~'25.12.
- 광주형 단일임금체계(안) 마련 : '26.상반기

■ 질의응답

- 배심원 : 시설에 따라 차별성을 없애려고 해서 급여로 형평을 맞추려고 하는 건가요? 근로에 대한 복지 등과 같은 임금 외 근로에 관한 내용은 없나요?
- 담당자 : 임금 테이블 기준 관련 복지부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에 맞춰 만들었습니다. 아동과 청소년 쪽에서는 근무하다 이직 시 똑같은 시설에서 근무했으나 근무이 백%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처우를 중심으로 짜였습니다.
- 배심원 : 각 시설 별로 했을 때 급여에 대한 단위가 있나요? 시설의 규모에 따라서 말이에요.
- 담당자 : 시설별로 다르고 직급별로 다릅니다. 원장-센터장-부장-과장 등 이것은 복지부에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배심원 : 테이블을 맞추어 다 적용을 시키려고 하는 건가요? 시설별로 상위나 산하기관이냐에 따라 임금테이블이 다른 건지 궁금합니다.
- 담당자 : 일단 임금의 경우에는 상담 기관이라 하면 연수에 따라 다릅니다. 지역아동센터의 경우는 호봉체계가 아닙니다.
- 배심원 : 지금 현재 사회복지사나 물리치료사나 직종이 있는데 직종-직급에 따라서 연수-호봉에 따라 지급하는 것은 아닌가요. 예를 들면 공무원 임금체계처럼 단일임금체계 마련은 직급이나 호봉을 무시하고 한다는 건가요?
- 담당자 : 단일이라는 것은 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나옵니다. 9급으로 일하게 되면 호봉에 맞추어 임금을 받습니다. 그 기준을 맞추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역 아동센터 등과 같이 호봉을 못 맞추는 일들이 있는데 이런 곳들도 맞추려고 하는 것이 단일임금체계입니다.

- 배심원 : 예를 들어 지원금이 있습니다. 국비와 시비가 분리되고 시설장 자부담금도 있을 거고요.
- 담당자 : 어느 한 노인시설을 운영한다고 치면 시비 30% 국비 70%로 운영합니다. 국비도 7:3으로 두는데, 시비로 100% 부담을 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 배심원 : 지금 현재 운영주체가 복지관이라든지 노인시설이라든지 시설에서 부담할 비용을 못 맞추기에 그걸 맞춰주겠다는 건가요?
- 담당자 : 복지부 가이드라인에서는 임금테이블이 낮습니다. 그럼 못 맞춰진 임금을 시에서 보존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배심원 : 단일임금체계를 마련한다는 것은 시설에서 자부담을 못하니 맞춰준다는 것인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 담당자 : 국비가 조금 지원되면 시비에서 충당해서 지원합니다.
- 배심원 : 수당 외에는 다른 식으로 근로조건 개선이나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은 없는 건가요?
- 담당자 : 이 안건에서는 임금체계만 다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100% 올려서 사회복지 종사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 배심원 : 지금 이렇게 진행하는 타 시도 사례가 있나요?
- 담당자 : 보통 서울이나 인천쪽은 재정자립도가 높아 처우 등이 지방보다 낮습니다. 오히려 더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 배심원 : 어쨌든 시행되는 것이라면 대외적으로 홍보할 계획인가요?
- 담당자 : 있습니다. 기수별 모임을 합니다. 3기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합니다. 연구원들에게 자료도 받고 부족한 부분은 평가도 하고 정책을 계속 개선해나갈 예정입니다.
- 배심원 : 기수별로 시설을 다르게 지정합니다.



- 담당자 : 시설은 복지부에서 나오는 사회복지시설 목록을 보고 그 시설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 배심원 : 어린이집은 해당이 안 되나요?
- 담당자 : 어린이집은 여성가족교육국에서 진행합니다.
- 배심원 : 지역아동센터는 포함이 안 되나요?
- 담당자 :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약실천계획 평가	3-25-1	공공보건의료협의체 구축
--------------	--------	--------------

■ 공약사업 담당 부서 설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 2026.
- 사업목적 : 지역 간, 계층 간 건강 격차 해소 및 의료 공공성 강화
- 사업내용 :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 협의체 구성·운영 : 市, 책임의료기관(전남대병원), 공공병원, 보건소, 의약5단체, 주민대표 등
 - 필수보건의료 기초조사 : 보건의료 문제 진단·분석, 개선방향 설정 등
- 총사업비 : 39백만 원(시비100%)

○ 사업추진계획

- 공공보건의료협의체(공공보건의료위원회) 구성·운영 : '22. 7. ~ 8.
 - 각 분야별 공급자·수요자·주민 대표 및 보건의료전문가 등으로 구성·운영
- 공공보건의료협의체(위원회) 각 기관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필수 보건 의료 분야별 협력 모델 개발

■ 질의응답

- 담당자 : 개념설명부터 드리면,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이 있어 주민 대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필수의료 기관들을 공공의료라고 이야기합니다. 응급, 재활, 코로나 등 이 공공의료에 해당합니다. 협의체 구성이유는 2-3년간 팬데믹 상황으로 공공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실제 대응을 하려면 인프라, 시설 자원 등이 구축되어 있어야 합니다. 현재 상황은 광주시 뿐만 아니라 공공의료에 대한 지원체계나 의견을 모으는 기구가 전무합니다. 광주의 경우는 전남대병원 밖에 공공의료기관이 없습니다. 또다시 신종 바이러스가 나온다면 민간의료기관의 협력 없이



는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전남대병원을 중심으로 보훈병원-조대병원-기독병원 의학 5개 단체 들을 모아 공공의료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고 정책을 추진할 때 이분들의 의견을 받아 정책수행 할 때도 반영 참고 및 심의를 받으려 합니다. 공공의료 법률이 작년에 개정이 되며 시도에 공공의료위원회를 두게 되어있습니다. 실제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입니다. 위원회 구성은 보건의료노조, 소비자단체, 조대-기독-보훈 병원장, 의학 5개 단체 등이 있습니다. 총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차 회의 이후 운영방안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실제 현장에 있는 분들의 실무협의를 따로 구성하자고 결정이 되었습니다. 연 2회 장기적으로 시작하려 합니다. 지금은 시작단계라 보시면 됩니다. 국가 정책에서도 협의체를 만들라고 되어있습니다.

- 배심원 : 전남대병원에서 공공의료 관련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나요?
- 담당자 : 전국적으로는 공공의료원이 없는 곳은 광주-울산뿐입니다. 공공의료기관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은 전남대병원 뿐입니다. 퇴원환자 지역사회연계 프로그램, 중증응급질환(심내혈관, 외상 등) 이송시간 단축을 위한 협력구축, 코로나 감염 및 안전관리 의료컨설팅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2022년 재활분야도 추가되었습니다. 매년 사업이 하나씩 추가될 예정이고 2023년에는 산모-신생아-어린이 분야 중 한 분야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실제적으로 공공의료보건협의체가 이제 막 구성되었습니다. 실무협의체 분기별로 운영예정입니다.
- 배심원 : 전남대병원으로 응급환자들이 많이 몰립니다. 전에 전남대병원에 진료받으러 갔는데 2시간가량을 기다렸습니다. 이런 부분도 개선이 되면 좋겠습니다.
- 담당자 : 전남대병원과 동부, 조대병원도 그 근처입니다. 실제로 응급이송의 경우 전남대병원으로 바로 이송되지는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지역응급의료원들이 따로 있습니다. 위독한 환자의 경우 대학병원 혹은 응급의료원으로 이송될지 판단합니다. 광주에 있는 모든 환자들이 전남대병원으로 가진 않습니다. 전남대병원에서도 위독환자 우선으로 진료하여 환자들이 대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료원 추진하려는 이유 중 하

나이기도 합니다.

- 배심원 : 지금 현재 자료를 보면 5월 즈음 내려와서 7~8월에 위원회 구성, 금년에 예산은 있는데 구성은 했는데 구성 세부안이 궁금합니다.
- 담당자 : 20명으로 구성되어있고 복지부에서 협의체 구성 권고안이 있습니다. 해당 담당 공무원(행정부시장, 복지건강국장, 소방본부장), 의료공급자대표(전대-조대-기독-보훈 병원장, 의학 5개 단체, 북구보건소장), 수요자대표(보건의료노조-소비자단체협의회), 주민대표(시의원, 주민자치협의회), 전문가(전남대 의과대학 교수) 3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할 때 민선 8기 되며 새 시장이 되면 위원을 확정하기 위해 바로 구성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새 시장이 부임한 후 올 10월에 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거기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자는 결정이 되었습니다. 예산은 위원회 수당, 협력체계 사업으로 6억 5천만 원 정도 전남대병원으로 나가는 사업비가 따로 있습니다. 위원회 수당만 예산으로 잡혀있다고 보면 됩니다.
- 배심원 : 주민대표가 시민단체에 국한되어 있는 것 말고 일반 광주시민들이 참석할 수 있는 단위가 있나요? 실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의견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 담당자 : 의원 구성 시 고민이 많았습니다. 주민대표 구성 논의할 때 인원수는 제한되어 있고 아무래도 대표 할 수 있는 분들을 넣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각 동마다 주민자치회가 있습니다. 그쪽을 통해 추천을 받은 것입니다. 직장인 분들도 많고 하기에 우리가 홍보를 더 잘할 수 있도록 보완해가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 배심원 : 회의에 대한 아젠다를 주민투표를 진행하여 공동성을 더 부여할 수는 없는지요?
- 담당자 : 여러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주민투표 방법이 여러 형식이 있을 것 같은데, 공청회 등, 바로소통 광주라고 인터넷에서 안전 투표를 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이 있어서 요런 것들도 활용해 볼 예정입니다.



■ 공약사업 담당 부서 설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 2026.
- 사업대상 : 고혈압 · 당뇨병 고위험군 및 환자 등 광주시민
- 사업내용
 - [인식개선]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캠페인 및 홍보, 교육 등
 - [예방 · 관리] 고혈압 · 당뇨병 등 선행질환 조기발견 및 관리
 - ▶ 건강검진을 통한 잠재적 고위험군 조기발견 및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등 연계
 - ▶ 금연, 비만예방, 영양, 신체활동,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등 통합서비스 제공
 - [질환관리] 합병증 예방, 만성질환자 자가관리 지원 및 지속 치료 유도
 - ▶ 보건소 중심 고혈압 · 당뇨병 등록관리사업, 고혈압 · 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광산구보건소),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방문건강관리,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 ▶ 동네의원 중심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시범사업(국민건강보험공단)
- 총사업비 : 20,057백만 원(국비 9,549, 시비 6,390, 구비 4,118)

○ 사업추진계획

- 대상자 발굴 · 모집 및 서비스 제공 : 연중
- 환자 조기발견 및 교육, 홍보 등 예방관리사업 추진 : 연중
- 빅데이터 기반 고혈압 · 당뇨병 만성질환자 관리 추진 : '22. 7. ~
-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설치 확대(1개소 → 2개소) : '23. ~ '25.

■ 질의응답

- 담당자 : 현황을 보면 만성질환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사회적 비용,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만성질환 관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선행질환을 앓고 있는 시민 대상의 정책입니다. 만성질환은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건강 문제점 등에 대한 인식개선 등이 필요합니다. 기초 공사를 실시하고 전기치료를 유도하고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추진하는 등 건강 증진, 지속관리를 유도하고 자가 관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도 진행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진료 및 교육 상담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연차별 예산은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 배심원 : 당뇨와 같은 병은 복지센터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무료 프로그램이 없나요?
- 담당자 : 무료 상담,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배심원 : 자가 진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없나요?
- 담당자 : 기본적으로 캠페인, 경로당을 통해 혈압 혈당 체크 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은 IOT 기반이라 하여 어플 연동 프로그램 신청해서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보건소 문의하면 신청해서 할 수 있습니다.
- 배심원 : 안전상정 했던 이유가 IOT 활용 때문이었는데 질환관리 매개체를 스마트밴드라든지 다른 방식으로라든지 고도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 담당자 : 코로나로 인해 방문은 어렵습니다. 카카오톡 오픈채널, 스마트밴드, 줌 등을 활용해서 접목하여 하고 있습니다.
- 배심원 : 혈압과 혈당을 주로 체크 한다고 하는데 다른 질병까지도 관리할 수 있는 연계할 방안이 있나요?
- 담당자 : 고혈압-당뇨를 중점으로 둔 이유는 고령자일수록 앓고 있고 뇌졸중과 같은 것의 선행질환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고혈압 당뇨를 중



심으로 다루어야 나머지도 관리가 가능합니다.

- 배심원 : 지금 현재 만성질환 구청마다 다 하고 있나요?
- 담당자 : 5개 구가 다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와 각종 센터, 보건소의 만성질환팀, 방문간호팀, 방문건강관리팀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 배심원 : 나이가 들면 혈압과 당뇨가 큰 문제입니다. 노인 회관에서 관련한 프로그램들을 참여했는데 회관이 남구에 있어 남구구민들만 혜택을 받더라고요. 구청이 다 하고 있다면 홍보를 열심히 해서 구민들에게 알리면 좋겠습니다.
- 담당자 : 만보기, 혈압기, 혈당기, 체중기 등 대여하는 것은 어르신들의 참여가 높습니다. 전국 시범사업이었는데 광주는 5개 구가 최초로 모두 참여했던 사업입니다. 정책 효율성이 높습니다.
- 배심원 : 본인의 의사가 없는 경우에도 방문 프로그램을 권유하나요?
- 담당자 : 방문 프로그램의 경우 만 65세 이상, 취약계층이 우선대상입니다. 이런 우선대상, 집중관리 해야 하는 시민들은 찾아가서 하기도 합니다.
- 배심원 : 환자 조기발견 문의가 없어도 선제적으로 발견한다는 건가요?
- 담당자 : 그렇습니다. 선제적으로 발견하여 추후에 내원 등을 권유합니다.
- 배심원 : 원래 하던 사업이었나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게 기존 사업이 있었나요?
- 담당자 : 여러 가지 사업이 있었는데 중복되는 사업들은 없었습니다.

공약실천계획 평가	3-27	광주공공산후조리원 지원체계 구축
--------------	------	-------------------

■ 공약사업 담당 부서 설명

○ 사업개요

- 추진시기 : '22. 7. ~ '26. 7.
- 추진방식 : (1단계) 민간산후조리원을 활용하여 공공성 확보
(2단계)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후 위탁운영
- 주요내용 : (1단계) 취약계층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감염·안전 관련
장비 지원(개소당 10백만 원)
- 대상규모 : 매년 약 200명(기초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산모)
- 소요예산(시비) : (1단계) 연 360백만 원, (2단계) 11,600백만 원

○ 사업추진계획

- 자문단 구성·운영 및 간담회 개최 : '22. 7. ~ 9.
- 사회보장제도 컨설팅 및 정책관련 의견수렴 등
- 광주공공산후조리 지원체계 사업계획 수립 : '22. 하반기
- 사회보장제도 협의절차 이행 : '23. 상반기
- 관내 민간산후조리원 MOU 체결 및 사업수행 : '23. ~ '26.
-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검토 및 계획수립 : '23. 하반기
- 광주광역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 '23. 하반기
- 기본 및 실시설계 : '24. 상반기
-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 '24. ~ '25.
-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 '26. ~



■ 질의응답

- 담당자 : 복지부의 2021년 산후조리 실태조사 결과 경비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은 비율로 나타났기에 산후조리 및 지원을 계획 중입니다. 전체 산모의 78%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합니다.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출산 후 회복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의 건강 증진 및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사업대상과 지급액은 미정으로 조리원 비용이나 출산용품 등 선택적으로 산모들이 쓸 수 있도록 비용지급을 하는 공약입니다. 연차별 소요예산액도 미정입니다. 사업대상이 확정되면 예산액을 확정할 수 있을 듯합니다. 기대효과는 산모-신생아의 건강보호와 아이 낳기 좋은 광주를 만들기,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른 타 시도도 비슷한 사례로 운영하고 있어 지급하고자 공약을 세웠습니다.
- 배심원 : 젊은 부부도 결혼을 하면 정책대상이 되나요?
- 담당자 : 산후조리비용이라 선택적으로 쓰는 거라 현금 지급으로 갈 것이고 대상이 전체 부부인지, 소득수준으로 대상이 구분될 수도 있습니다.
- 배심원 :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 담당자 : 복지부 협의 후에 예산이 확정되는 것이라 대상자를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대상자를 확정해야 인원수가 나옵니다.
- 배심원 : 아직 사업이 미정상태인건가요?
- 담당자 : 7,900명 정도 산모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협의를 봐야하는 것입니다. 협의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출산한 7,900명의 산모에게 확답을 드릴 수 없는데, 사회보장협의회에서 협의를 받아야 대상자와 액수가 정해집니다. 협의 기간은 6개월이 걸리고, 협의회가 1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에 6개월 이상 걸립니다. 현금이나 카드, 보건소 동사무소 등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로 지급은 할 것이지만 얼마나, 어떻게 줄 것인지는 미정입니다.

- 배심원 : 다소 시기상조입니다. 대상도 없고 예산도 없습니다. 사실상 내년에도 될지 모르는 거 아닌가요? 시비라도 투여해야 하는 게 아닌가요?
- 담당자 : 시비로 지급을 할 것인데, 전체 산모로 할 건지, 저소득층으로 할 건지 정해야 예산이 나올 수 있는 것인데 대상자가 없습니다. 사회보장협의회를 하는 이유가 빈틈없이 해야 합니다. 협의회 합의를 받는 것이 보건복지부 지침사항입니다.
- 배심원 : 산후조리원 건립이 무산되면 산후조리비용으로 지원할 것이라면 이것에 맞는 명칭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있는 첫 만남 지원금과 비슷한 성격의 정책인 것 같은데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 담당자 : 공약에 있는 명칭이라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협의를 사회보장협의회에서 합의를 볼 수 있습니다.
- 배심원 : 물품, 상품권 등 현금 말고 다른 지원은 어떤가요?
- 담당자 : 물품으로 지급은 쉽지 않습니다. 취향을 타는 부분도 있고 사회보장 협의회에서 산모의 선택권을 보장하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 배심원 : 이 공약은 무엇을 평가하는 것인가요? 다른 공약은 대상, 내용이 있어 평가할 수 있는데 이 사업은 평가할 것이 없습니다.
- 담당자 : 추진계획에 따르면 방침수립을 10월부터 3월까지 구성해나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배심원 : 지금 간담회는 끝났나요?
- 담당자 : 산후조리원장, 병원장들과의 간담회는 끝났습니다.



라. 4분임 (경제 비타민)

공약실천계획 평가	4-13	광주역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	------	---------------------

■ 공약사업 담당 부서 설명

○ 사업개요

- 위 치 : 북구 중흥동 광주역 일원
- 기간/면적 : 2019. ~ 2025.(7년) / 50만m²(역사부지 20만m² 포함)
- 총사업비 : 1조 156억 원 (국 250, 시 250, 협업 2,163, 민자 7,493)
- 사업내용 : 창의문화산업의 新경제거점 조성 등

○ 사업추진계획

- 단위사업 공사 추진 및 시설 운영 : '22. 7. ~
 - (빛고을창업스테이션 및 보행환경개선, 푸른이음센터) 공사 및 설계용역 추진
 - (어울림팩토리, 현장지원센터) 시설 운영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
- 복합개발사업 추진 : '22. 7. ~
 - 관련기관(국토부, 코레일, 국가철도공단 등) 지속 협의

■ 질의응답

- 담당자 : 사업부지는 광주역 포함해서 50만 제곱미터입니다. 국비 지원이 되는 사업이 있고 부처연계사업이 있습니다. 총 1조 156억 원의 사업비가 책정됐습니다. 마중물 사업은 다섯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메인이 빛고을 창업스테이션입니다. 광주역 좌측 주차장 부지를 활용해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초기창업 기업 입주, 지원 프로그램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공정상 내년 하반기~내후년 초에 완공될 것 같습니다. 문화마당은 광주역 앞 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보행 환경은 이쪽에

인도를 만들 예정입니다. 이쪽은 공사가 완료됐는데 이쪽은 공사가 진행되면 시작하려고 합니다. 푸른길 센터는 지역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을 활용할 수 있게 건물을 짓고자 합니다. 푸른길 공원 사업은 푸른길은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사업 내용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어울림 팩토리는 자동차 부품 등 지역 주민을 위한 기업을 유치할 예정입니다. 작년에 준공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지원센터는 시 조직과 시민들이 소통하고 플리마켓 등의 행사를 하는 사업입니다. 부처협업 사업은 공모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행복주택 등의 사업이 추진됐는지, 공기업 참여형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사업을 변경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복합개발 사업은 코레일과 공동으로 MOU체결을 하고 공동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계획 확정이 어려운 게, 선로가 광주선을 경유하게 되어있는데 노선이 어디로 들어올지 결정이 안 돼서 사업 방향 확정이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남북간의 단절된 곳을 도로로 연결할 것입니다. 철도 역할이 완전히 없어지진 않습니다. 따라서 약간 자연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배심원 : 빗고을 창업 스테이션은 어떤 창업자를 받나요?
- 담당자 : 법적으로는 1~7년차 창업자를 말합니다. 일단은 업종 구분이 주력 사업 부분 위주로 해서 선발을 하고자 합니다.
- 배심원 : 몇 개동으로 이루어져 있나요?
- 담당자 : 49개 동이 있습니다. 공용 공간이 있고 회의실, 장비 등이 들어갑니다.
- 배심원 : 공간은 무료인가요?
- 담당자 : 임대 공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조레상 50%까지 저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창업 진흥과에서 준공이 되면 구체적인 안이 나올 예정입니다.
- 배심원 : 인공지능 사업과는 연관이 있나요?
- 담당자 : AI분야를 하게 되면 당연히 인공지능 사업이 추가되고, 전 업



종을 받게 되면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배심원 : 어울림 팩토리 공간은 이미 사용 중인데 거기는 자동차 회사가 들어온 건가요?
- 담당자 : 실제로 들어왔다가 나가셨어요. 4층이 사무공간인데 1층은 주차장과 카페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처음에 오셨다가 나가셨던 분도 있고, 생각보다 입주가 없어서 논의 중입니다.
- 배심원 : A, D의 차이가 없네요.
- 담당자 : 원래 당초의 계획보다는 입주하시는 분이 없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시스템이나 지원은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 같이 사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 배심원 : 문화산업이니 그 주제에 맞도록 그 공간을 정리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곳은 주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개발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 담당자 : 이 사업은 18년에 공모한 사업인데 그때와는 여건이 좀 달라졌어요. 내년에 준공되기 전에 운영계획을 만들 때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 배심원 : 어울림 센터 경우 타깃이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무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주로 서비스 업종인데, 소상공인, 자동차 등은 사무공간이 필요하지 않아요. 창의문화 사업이라 하면 거기에 맞는 곳을 입주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 담당자 : 운영 부서들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회의를 하고 있어요. 충분히 어떤 업종을 타깃으로 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 배심원 : 공원 조성은 콘셉트가 있나요?
- 담당자 : 여기에 주거 단지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를 푸른길공원과 연계해서 녹지 공간으로 만들 가능성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달빛 고속철도가 여기에 들어오게 된다면 활용을 할 수 없게 돼요. 광주선을 활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 배심원 : 여기는 주거 형태에 가까운 공원이 아니잖아요. 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 질문드렸습니다. 달빛 고속철도 노선 확정이 안 된 거네요. 광주역에서 송정역이 단선인데 복선 공사를 하나요?
- 담당자 :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노선을 그대로 이용하게 돼있습니다.
- 배심원 : 광주역 송정역 서들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주역 노선 자체가 없어진다면 문제가 되는데, 광주뿐 아니라 전국을 토대로 해야 하기 때문에 교통편에 관해 물어본 거예요.
- 담당자 : 광주역을 다 갈아엎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기존 노선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 배심원 : 부산에서 오는 경전철 같은 경우도 담양으로 돌아서 오는지요? 현재는 광주 송정역에서 부산을 거쳐서 보성, 별교로 가는데 활용이 되는지 의문이 들어 질문드렸습니다.
- 담당자 : 개발만 한다고 활성화되는 게 아니라 철도 기능도 살리기 위해 철도운영과 동향 파악 등을 해서 요구할 것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배심원 : 지하철 2호선이 광주역을 지나가게 되는 건가요? 지하철이 완공돼야 이용이 가능하게 되나요?
- 담당자 : 돌아가는 노선이 될 것입니다. 지하철과는 별개로 먼저 운영이 가능합니다.
- 배심원 : 시비, 국비가 500억 원 정도 들어가고 민자가 나머지를 채우는데 1조 원 이상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광주역이 쇠퇴하는 곳인데 민간에서 9천 6백 5십억 원을 누가 투자를 할지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충장로와 마찬가지로 광주역도 쇠퇴해 가는데 기름칠을 하고자 하는 마음인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이 사업이 가능할까요?
- 담당자 : 추가적인 설명드릴게요. 관심 갖는 주변 상가들이 없는데 그걸 살리려고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빛고을 창업스테이션에서 기업들



이 창업 단계에서 필요한 것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일단 사람을 모아야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설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모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코레일 입장에서는 민간 사업자 돈으로 하고 싶은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전 비용만 2000억 원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수익성과 공공성을 맞춰서 하는 게 핵심입니다. 충분히 코레일과 협의를 해서 조건을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쇠퇴 된 것을 살리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봐도 민자 유치를 해서 살렸거든요.

- 배심원 : 광주에는 송정역이 있잖아요. 광주가 앞으로 그쪽이 중심이 될 것 같은데 쇠퇴하는 데는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줘야 하겠지만 예산을 너무 많이 들여 예산 낭비만 하고 효과를 못 얻기보다는 우선순위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덧붙이자면, 광주시민들이 광주역을 존치하지 않고 지하철 하나 지나가면 충분하지 않을까, 차라리 그 공간을 활용해서 다른 걸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과정이 없다면 문제가 쉬워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정책이 정해져서 바꿀 수는 없지만 그런 의견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 담당자 : 이 사업을 시작할 때만 해도 달빛고속철도가 예비사업이었어요. 계획을 짤 때 그걸 고려를 했던 거고요. 전국 광역시를 보면 KTX역이 두 개가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한 불만도 있을 수 있습니다.
- 배심원 : 광주역은 종착역이에요. 부산역처럼 대구역이나 동대구역은 지나가는 역인데, 대전역, 서대전역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에서 어떻게 활성화할 것이냐 하는 의문이 들어요. KTX가 들어오면 좋다고 하는데 들어오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걸 하면 내수용 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광주광역시 관련된 콜센터가 상무지구에서 다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광주역에 올까요. 인구도 줄고 있는 판에 이것까지 활성화하면요. 문화전당 쪽도 활성화하는데 여기도 하는 게 가능한지 싶습니다.
- 담당자 : 이 사업을 추진하며 제일 안타까운 게 광주 전남 대학생 중에 이 지역에 일자리를 잡는 학생들이 8%입니다. 경상대 쪽은 많으면 40%까지 돼요. 큰 기업들이 생겨야 광주도 발전해요. 큰 기업 데려오기

힘들잖아요. 아이디어 많은 창업자들을 키워서 큰 기업을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광주 밖으로 나가지 않고, 밖에서도 일자리를 찾아올 수 있게 하고자 합니다.

- 배심원 : 문화마당은 그런 내용과 관련이 없지 않나요?
- 담당자 : 핵심 사업이 그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내에 있는 아이플렉스가 활성화되는 게 주변 인프라가 좋아서예요. 그런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 공약사업 담당 부서 설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 2026.(5년)
- 위 치 : 서구 회재로(풍암교차로~유통단지교차로) 일원
- 사업내용 : L=0.8km, B=35m(지하차도 4차로)
 - 4차로 지하차도(L=0.6km) 및 연결로(0.2km) 설치 등
- 총사업비 : 30,000백만 원(시비)

○ 사업추진계획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 '22. 8.
-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 : '22. 8. ~ '24. 2.
- 공사 발주 : '24. 3.~

■ 질의응답

- 담당자 : 농수산물 도매시장쪽에서 마제우체국에서 풍암교차로 가는 쪽에 지하차도 건설에 관한 사업입니다. 중앙공원 쪽에 아파트 단지 2천세대 입주로 인해 풍암사거리 일대 교통 정체가 심화되다 보니 입주 전에 검토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은 설계 단계에 있습니다. 기본계획, 실시계획을 하는 용역을 착수한 상태입니다.
- 배심원 : 지하차도가 여기에 들어간다는 건가요? 전체 다 지하차도가 들어가나요?
- 담당자 : 빨간색 라인으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풍암동으로 나가는 차량이 많다 보니 외곽 쪽으로 나가는 차량을 빼주면 정체가 감소되지 않을까 합니다. 지하차도 하나가 아니라 이 사업이 어떤 교통 처리를

하면 완화가 될까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는 용역을 의뢰한 것입니다.

- 배심원 : 마제우체국 사거리에서 지하차도가 끝나나요?
- 담당자 : 교통 전문 분야 기술자들과 검토를 해서 더 멀리 봐야 할지 더 좁게 봐야 할지, 멀리 보면 사업비가 어마어마해지니 그 부분을 검토하는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 결정이 될 것입니다.
- 배심원 : 기본적으로 교통량 조사 등이 이루어졌나요?
- 담당자 : 이 용역이 그것까지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본 계획과 실시 설계 용역 중이라, 심한 정체를 개선해보고자 하는 용역입니다. 주변 교통량 분석을 통해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을 찾고자 합니다.
- 배심원 : 지도에 보면 유통단지입구 교차로, 풍암교차로 여기가 어디를 의미하나요?
- 담당자 : 마제 우체국 앞 빨간 점이 풍암교차로, 유통단지 입구 교차로가 마제 우체국까지를 표시한 것입니다.
- 배심원 : 방안에 관해 자세하게 이야기를 듣고자 이 안전을 선정했는데, 아직 계획단계이니 들을 얘기가 없는 거네요. 지하차도 말고 다른 방안을 생각하신 게 있나요?
- 담당자 : 도로터널을 길게 빼는 게 좋은데 사업비가 어마어마합니다. 투자 대비 효과를 봐야 하기 때문에 시 자체예산으로는 힘들어 국비를 들여 하고자 합니다. 올해 8월에 시작한 사업이기에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 배심원 : 화정동 지하도에 비가 많이 오면 잠겼잖아요. 오르막이라 그 부분에서 위험할 것 같아요.
- 담당자 : 지금은 설계 과정에서 안전 점검과 대비는 확보입니다. 설계 과정에서 주변 조사를 하며 검토를 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배심원 : 조사를 해서 안 할 수도 있다고 하니 할 말이 없네요.



- 담당자 : 개선이 된다고 하면 하게 되기에 전반적인 파악을 하고 사업을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한 것입니다.
- 배심원 : 비용에 비해 효과가 없으면 안 할 수 있다는 거네요.
- 담당자 : 효과가 있다고 하면 하는 겁니다.
- 배심원 : 그럼 용역에만 300억 원이 드는 건가요?
- 담당자 : 300억 원은 예측 사업비입니다. 용역비용은 10억 원입니다.
- 배심원 : 300억 원 예산을 책정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 담당자 : 지하철도를 했을 때 일반적으로 300~500억 원이 드는 표준 금액을 근거로 넣은 것입니다. 여러 가지 경로로 최적의 경로를 검토하고자 합니다. 흐름을 개선할 수 있는 곳을 어디에든 만들어야 풍암교차로 정체가 해소될 것이라 이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배심원 : 저희가 안전에 대해 논의하고 의견을 개진할 게 없는 상태라 무엇을 논의해야 할지 물어본 거예요.
- 담당자 : 통계자료는 없고 정체는 갈수록 심해지고 사업의 필요성은 있다고 봐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의견을 주십시오.
- 배심원 : 지하도로 말고 옆에 차선을 낼 공간이 있던데요.
- 담당자 : 도시계획에서 도로를 만들 수 없는 공간으로 알고 있어요.
- 배심원 : 추진한다면 언제가 될까요?
- 담당자 : 24년 2월에 용역이 준공 예정입니다. 준공되면 결과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입니다. 기본 계획부터 실시설계까지 해야 하는데, 기본계획에서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증명돼야 합니다.
- 배심원 :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 같아요.
- 담당자 : 기간 단축을 위해서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을 같이 묶어서 용역을 한 것입니다. 교통 정책과에서 해마다 교통량 조사를 하는데 도시철도 공사와 맞물려 변동요인이 많다 보니 그렇습니다.
- 배심원 : 과거의 데이터를 봐서 결정해야 하는데 현재 앞으로 2년간을

보며 결정을 한다는 게 이상합니다. 타당성 검토를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빨리 착수를 하는 게 효율적인 게 아닌가 합니다.

- 담당자 :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실시계획을 한꺼번에 묶어서 빨리 진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 배심원 : 지하철도 말고 지능형 시스템, 세종-대전을 잇는 교통체제, 직진 구간을 열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을 검토했으면 좋겠어요.
- 담당자 : 첨단 사업 기술을 도입하면 사업비가 많이 증가하는데 여건이 아니다 보니 어려우나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배심원 : 이 구간이 정체가 낮 시간에 심해요. 빨리 사업이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 담당자 : 배심원들께서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시면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배심원 : 배심원이 선정을 한 안건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고 담당과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담당자 : 실효성은 있는데 통계와 근거가 없으니, 향후 추이를 보고 필요하다는 것을 건의해서 국비를 받아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 공약사업 담당 부서 설명

○ 사업개요

① 송정역 복합환승센터 조성

- 위 치 : 광산구 소촌동 555번지 일원(금호타이어 부지)
- 사업내용 : 환승시설, 환승지원시설 및 미래형 스마트 환승체계 구축
- 사업방식 : 민간개발(사업제안서 공모 또는 민간 도시개발사업 포함)
- 추진시기 : 금호타이어 이전계획 확정시부터 사업추진

② 송정역 투자선도지구 개발

- 사 업 명 : 광주송정역 KTX지역경제거점형 투자선도지구
- 기간/면적 : 2020년 ~ 2025년 / 560,427㎡(17만평)
 - (1구역) 광주송정역 전면 31,234㎡, 1만평/(2구역) 후면 529,193㎡, 16만평
-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 총사업비 : 5,943억 원(LH전액조달)

○ 사업추진계획

① 송정역 복합환승센터 조성

- | | | |
|--------------------|---|--------------|
| • 기본구상 및 타당성 평가 용역 | : | 금타 이전확정 + 1Y |
| • 사업시행자 공모 및 선정 | : | " + 2Y |
| • 개발계획 수립 | : | " + 3Y |
| • 사업시행자 지정 | : | " + 4Y |
| • 실시계획 수립 및 인가 | : | " + 5Y |
| • 공사착공 | : | " + 6Y |

② 송정역 투자선도지구 개발

- 실시계획인가 신청 및 승인(LH↔시) : '22.10. ~ '23. 6.
- 토지보상 및 실시설계도서 작성(LH) : '23.
- 공사착공 : '24. ~

■ 질의응답

- 담당자 : 이 사업은 두 개 사업이 복합된 것입니다. 송정역 주변에 시외버스, 시내버스, 주차장, 문화시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센터를 복합 센터라 하는데 현재 송정역 주변에 부지가 없어서 금호타이어가 이 전하면 그 부지를 연계하고자 합니다. 협상 중에 있기에 결과에 따라 추진하고자 합니다. 국토교통부에 기본계획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26년이 되기 전에 이전계획 확정이 되면 용역을 해서 반영하고 합니다. 광주송정역 역세권 개발 사업은 KTX투자선도지구 조성 사업입니다. 23년 5월까지 관련부서 사전 협의를 거친 후 인가 승인을 내주면 토지보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진효과는 복합환승센터가 들어가면, 송정역에 주차 빌딩을 짓고 있습니다만, 타 교통 시설과 연계가 될 것입니다. 나중에 달빛 철도, 경전선 철도까지 완료가 되면 광주시민, 외부인들이 시외버스, 시내버스, 지하철, 택시와 자유롭게 환승할 수 있습니다. 투자선도지구는 지역특화사업인 자동차 사업과 연계해서 연구시설을 도입해서 광주형 일자리와 연계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 배심원 : 금호타이어가 언제 이전하나요?
- 담당자 : 선행조건이 뭐냐면 전남방직 추진하는 것처럼 본인들이 이전 완료가 되고 유희토지가 되어야 합니다. 금호타이어 공장 이전을 먼저 하고, 유희토지가 되면 4~50%를 공공기여로 합니다. 이전은 도시계획과와 협상 중입니다. 저희는 이전할 때 들어갈 시설들의 계획을 세우는 부서입니다.
- 배심원 : 복합환승센터가 뭔가요?
- 담당자 : 법적으로 정해진 용어인데요, 환승시설과 환승지원시설이 있



는 것입니다. 환승지원시설은 문화 시설을 의미합니다.

- 배심원 : 시외버스와 연계가 되나요?
- 담당자 : 기본구상을 할 때 광천동 금호고속하고 협상을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 배심원 : 환승 지원의 문화 시설에 관해 더 자세히 말씀해주세요.
- 담당자 : 대표적으로 용산역, 동대구역이 있습니다. 동대구역이 신세계와 연계해서 잘 된 게 대구에는 큰 백화점이 없었습니다. 익산 같은 경우 한화와 해서 추진하고 있고, 수서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송정역은 2015년 KTX, 2016년 SRT가 들어왔습니다. 실제 수요를 따져보니 코로나 전에 연평균 2만2천 명 정도가 이용했습니다. 국토부에서 역사서비스 평가를 해서 화장실, 대기실, 출입구, 콘솔 등을 평가해서 좁은 거로 판단이 돼서 작년부터 증축을 위한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송정역이 부지가 좁아서 마땅히 지을 데가 없어요. 선로 뒤쪽, 금호타이어 쪽으로 증축계획이 확정되어 우리 시에서는 미래까지 예측해서 국토부에서 충분하다고 하는 범위 이상으로 경전선, 대구로 가는 달빛내륙 철도 수요까지 포함을 해서 더 넓게 지어 달라 건의하고 있습니다. 내년 5월에 설계확정, 내년 하반기에 공사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상 위에 짓기 때문에 3년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낮에 기차가 다니고 야간에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26~27년이면 송정역은 선상 위까지 넓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에 있는 지하철 역사 하나보다 못하다는 점을 국토부에 많이 어필하고 있습니다.
- 배심원 : 복합환승센터에 관해 광주에는 복안이 있나요.
- 담당자 : 계획이 어느 정도 확정돼서 저희는 콘셉트만 갖고 전문 용역을 맡겨야 합니다. 환승지원시설이 기본적으로 영화관, 백화점, 유통시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미래 자동차, 전기, 자율주행, 드론 등을 포함시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합환승센터의 콘셉트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를 열어 놓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간 사업자도 수익성이 제시되어야 해서 때문에 조건을 따져보고 있습니다.

- 배심원 : 이 사업에 관해 더 설명해주실 부분 있나요?
- 담당자 : 현재 가시화 되고 있는 투자선도지구에 관해서는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환승기능을 강화한 송정역과 연계해서 보행 육교를 만들어 택시, 버스 승강장을 추가한다든지 우리 시가 LH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배심원 : 4분임에서 이 사업 추진을 위해 논의를 하려면 많은 정보가 있어야 하는데, 정보가 없으니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 담당자 : 환승센터는 수익성 문제로 2018년에 종료된 사업이었는데, 다시 시도를 하려다 보니 그렇습니다.
- 배심원 : 복합환승센터가 건물을 짓는 건가요?
- 담당자 : 금호타이어 부지에 짓는 겁니다.
- 배심원 : 금호타이어가 이전을 안 하게 되면 어찌나요?
- 담당자 : 이전을 안 하면 그 근처에 부지가 없습니다.
- 배심원 : 송정역이 지금 정거장 역할만 해요. 이 사업의 핵심은 금호타이어가 쥐고 있네요. 대구가 동대구 터미널이 복합이 됐더라고요. 복합 환승센터를 하는 김에 거기에서도 동대구 터미널처럼 광주송정터미널을 하나로 통합해서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담당자 : 그 부분은 금호고속과 협의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근처로 갈 수 있는 시외버스라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착공 들어갔으니 우리 시는 광주 송정역을 거점으로 하고자 합니다.
- 배심원 : 수서, 용산역에서 송정역이 종착지인 곳이 있더라고요. 서울 가려면 버스는 많은데 경상도 쪽에 비하면 기차가 너무 없어요. 여기가 활성화가 되면 기차도 증축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서울 출장을 가면 소외를 많이 느껴요. 기존 송정시장과 연계해서 개발할 계획은 없나요? 단지 역 주변과 금호타이어 부지를 얘기하나요?
- 담당자 : 송정역 앞에 빨간색 부분과 장록지구를 연계할 예정입니다. 장록마을과 세 개 마을, 논, 밭이 있습니다. 송정역 앞을 자세히 설명드



리면 송정역에서 스카이워크 육교를 건설할 것입니다. 바로 앞에 택시 승강장을 이쪽에 만들 겁니다. 승객들이 누구를 태우고 내릴 때 시설들이 없어요. 차선을 막고 내리니까 뒤에 다 정체가 됩니다. 택시 승강장이 원래 그런 기능을 하는데 택시 탈 데가 없어서 택시들이 줄을 서서 이쪽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라 판단하고 육교를 만들어 택시를 이쪽으로 분산하려 계획하고 있습니다. LH에 요청해서 이 계획이 들어간 것입니다. 앞에 전통시장은 뒤쪽의 일부가 조금 들어갑니다. 건축 민간 공모를 할 때 공공 안심 상가나 상인들이 회의할 수 있는 시설을 도입하려고 콘셉트를 잡고 있습니다.

- 배심원 : 복합쇼핑몰처럼 시민단체에서 반대하면 무산되는 건가요? 시민단체에서 무산된 사례가 많습니다. 전통시장 같은 경우도 시에서 전통시장 환경 개선을 할 수 있는데, 시에서는 규제만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광주 발전이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사업에 관하여 토의를 하면 대부분 2~30대는 이런 시간에 생활 터전에 있어서 이런 곳에 나올 수 없어요. 평일 이 시간에 회의를 잡으면 참여가 어려워요.
- 담당자 : 그렇지 않습니다. 이곳은 국토부에서 이미 지정고시가 났습니다. LH가 여러 가지 사업이 많아 시에서 독촉을 안 하면 늦어집니다. 우리 시에서 매달 실무자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부터 보상에 대한 기초조사가 들어가고 내년 하반기면 보상실시가 들어가고 빠르면 2024년에 착수가 될 수 있습니다.
- 배심원 : 환승과 환승지원, 투자선도지구에 관해 논의해야 하는데 환승에 대해 질문하자면 주차문제는 어떻게 하나요?
- 담당자 : 현재 송정역을 가시면 건물을 하나 짓고 있어요. 이게 환승 주차장입니다. 6층 7단으로 해서 1,580면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빠르면 23년 1월 명절 전에 주차장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배심원 : 그 주차장과 복합환승센터의 관계성은 어떻게 되나요?
- 담당자 : 뒤쪽에 조성이 되기 때문에 이쪽에도 주차장이 또 들어가요

쥬. 이 주차장은 역사를 이용하고, 여기는 횡단보도를 바로 연결을 해서 이용할 수 있게 하고자 합니다. LH와 1호선 2번 출구와 지하를 연결해서 지하철로 와서 이용할 수 있게 계획을 하는데 사업성 때문에 논의하고 있습니다.

- 배심원 : 앞쪽은 사용할 계획이 없나요?
- 담당자 : 지정고시가 난 구역 이외에는 어렵습니다.
- 배심원 : 환승지원시설은 백화점 형태 보다는 다른 시설이 들어와서 어우러지면 효과적인 것 같아 예컨대 아울렛 등을 고민을 많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 담당자 : 상권을 잘못 건드리면 안 되니 송정역 주변 상권을 제외하고 개발하고, 상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매력적이어서 민간 사업체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 배심원 : 광산구에서도 송정역 주변으로 해서 예산이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 사업과는 겹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 담당자 : 송정역 앞에 부지와 교통에 대한 개념을 갖고 추진합니다. 광산구는 송정역 광장에 조형물을 만드는 등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콘셉트를 찾고 있습니다. 저희는 교통을 담당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두 번 협업회의를 하니 그런 부분들은 안 겹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도 아이템을 많이 줍니다. 구청은 육교에 조명을 만들고, 서울역 앞에 녹지가 있는 것처럼 그런 것을 해 달라 의견을 줘서 LH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무빙워크 정도면 들어가면 좋겠는데 전기, 통신이 연관돼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요.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송정역 증축사업에 에스컬레이터 하나가 더 추가됐습니다.
- 배심원 : 엄청난 투자가 되는데 외부인이 역세권에 오면 정거장만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라 관광의 첫 관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현재 있는 시장을 활성화 시켜서 송정역에 가면 먹을 것 볼거리, 즐길 문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면 좋겠어요. 광주를 느낄 수 있게끔 역세권을 뒤쪽만 생각할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상권도 살릴 방안을 찾아 예



산을 투입해서 서민들도 살고 광주의 인상을 좋게 주게 하면 좋겠어요.

- 담당자 : 얼마 전에 광산구청과 회의를 했는데 주변 개발을 어떻게 할까 노력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구상하고 있습니다. 떡갈비거리, 음식 거리 등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회의하고 의견 듣고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 배심원 : 세 가지 시설이 아우러져서 한 번에 왔다 갔다 하면서 동시에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은 고려 안 하시나요? 광천 터미널에서 신세계 백화점이 연결된 것 같은 걸 말씀드린 거예요.
- 담당자 : LOS라는 일체형으로 해서 시민들이 지하에서 내리고 바로 위에서 버스타고 기차타고 쇼핑하는 것을 고려하는데 개발 여건상 어렵습니다. 그 정도 연결은 가능하고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 배심원 : 단순히 통로 역할이 아니라 같이 어울려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면 좋겠어요.
- 담당자 : 단순히 처음에 생각할 때는 왜 안 될까 했는데,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민간 사업자가 들어와서 하려면 토지 사용권 협상을 해야 하는데 그게 어렵더라고요. 현재 계획은 통로로 연결하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해요. 국토부에서 코레일과 협상을 하는데, 재산권에 관한 사항이라 그런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민간 사업자가 역사를 통으로 짓지 않는 한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배심원 : 광주 지하철에서 역을 바로 연결하는 것도 어렵나요?
- 담당자 : 기존에 있는 시설물이라 선로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기도 하고요. 그 비용이 보통 1조 원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마. 5분임 (성장)

공약실천계획 평가	5-1	0~7세까지 무상보육 단계별 추진
--------------	-----	--------------------

■ 공약사업 담당 부서 설명

○ 사업개요

- 추진시기 : 2024. 3. ~
- 지원대상 :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영유아
- 대상인원 : 30,064명(어린이집 이용 아동/22년 1~7월 영유아평균값)*
 - (유아) 만5세 3,684명, 만4세 3,367명, 만3세 4,299명
 - (영아) 만2세 8,887명, 만1세 6,966명, 만0세 2,861명

*매월 영유아숫자 변동(평균)

- 총사업비: 52,307백만 원
- 지원항목 : 부모납부 필요경비

※ '22년 필요경비 수납 한도액 : 입학준비금(연90천원), 특별활동비(월55천원), 행사비(연80천원), 현장학습비(분기40천원), 특성화비(월35천원)

○ 사업추진계획

- 무상보육 추진 간담회 등 의견수렴 : '22. 9.~
-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최대 6개월) : '22. 10.~
- 무상보육 예산편성 : '23. 하반기
- 무상보육 단계적 시행 : '24. 3.~

※영유아보육법 제34조 1항 개정 및 복지부 시행 동향 등에 따라 추진 대응

■ 질의응답

- 담당자 : 이미 무상교육을 단계별로 시행 중이라는 것을 알려드리는 바



입니다. 2022년 이후 출생아 만 0~1세에게 매월 30만 원씩 지원 중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 아동에게는 1,452억 원 예산을 지원 중이며 3~5세 아동은 누리교육비원비를 지원 중입니다. 민간교육기관을 이용하는 아동에게도 지원 중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외국인 아동에게도 18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만 1천 명에게는 21억 7천만 원을 지원 중으로 본 공약은 어린이집 경비, 납부비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부모 부담을 줄이고 보육격차를 줄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것을 무상교육의 범위에 넣으려는 것입니다. 부모납부 필요경비는 7개 항목으로 나누어집니다. 영유아보육법에 의하면 심의를 거쳐 공고하고 있습니다. 3만 1천명의 대상을 예상하고 있는데 총 사업비는 523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공약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서는 유치원과 협의가 필요하고 신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도를 지원하려면 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해야 합니다. 국회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법 추진 추이를 지켜봐야 합니다.

- 배심원 : 현재 실시하고 있는 무상교육의 예산 비율이 광주광역시 예산 대비 몇%입니까? 무상교육 공약 범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담당자 : 복지사업으로 따로 추진하기 때문에 확인이 어렵습니다. 자료를 요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배심원 : 담당 직원은 몇 분입니까?
- 담당자 : 8명입니다.
- 배심원 : 8명이 담당 예산을 활용하나요? 이 공약의 담당자는 몇 분인가요?
- 담당자 : 이 공약은 한 명의 담당자가 있습니다. 보육료 외에 특별 활동비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 배심원 : 2022년부터 예산을 추가하는 것인가요?
- 담당자 : 2024년에 5세에게 추가 지원을 한다면 69억 원이 필요하고 2025년에는 4~5세 지원 시 141억 원이 필요하며 0~5세 지원 시 324억 원이 필요합니다. 시장 임기 내에 들어갈 예산이고 아동의 수는 점점

감소하기 때문에 300억 원으로 추진하게 될 것이라 추정됩니다.

- 배심원 : 추가 재원이 있는 것인가요?
- 담당자 :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힘들고 시 전체의 제정운영상황을 봐야 하고 예산 팀과 논의해야 합니다. 실천계획을 우선 짚 것이고 이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 추정한 것입니다.
- 배심원 : 2026년 까지 담당자 분들이 바뀌지 않는 것인가요?
- 담당자 : 최소 1년 반마다 바뀝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바뀔 수도 있습니다. 업무는 정권이 바뀌어도 확정된 업무는 불가피하게 진행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업무는 인계되어 지속될 것입니다.
- 배심원 : 5천223억 원을 더 추진하면 아동 1인당 얼마나 예산이 돌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 담당자 : 예산 집행 안에 나와 있습니다. 1인당 지원액은 보육료로 말씀드리면 0세에게는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5세까지는 한 달에 15만 5천 원을 지원하여 무상으로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 배심원 : 0~2세까지 5만 원의 지원금이 더 해진다고 하는데도 올릴 수 있나요?
- 담당자 : 국가에서 보육료를 결정하고 위원회를 열어서 인상 시켜 놓아야 가능한 부분입니다.
- 배심원 : 공약은 만 7세를 이야기하는데 공약 설명은 만 5세까지를 이야기해서 혼란스럽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무상교육을 동시에 시행하면 영어유치원 등 특수교육기관은 어떻게 되나요?
- 담당자 : 유치원은 교육청 업무라 교육청과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업무라 약간 다릅니다. 3~5세는 선택해서 다닐 수 있고 영어유치원은 별개입니다. 그 외 기관들은 학원이라고 봐야 합니다. 정식적으로 인가받지 않은 유치원을 다닌다고 하면 가정양육이라고 보고 그에 맞는 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회 차원에서 특별활동비에 관련해 이견이 나눌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부모의 필요에 의해 할



동비가 발생하는데 이것의 지원유무를 정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 배심원 : 523억 원이라는 금액이 다 시에서 집행하는 것이지요?
- 담당자 : 945개소 교육기관이 있기 때문에 나눠서 시행하고 자치구와 7대 3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시에서 하게 된다면 구에서도 따라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 예산은 실질적으로 시에서 직접 하기도 하고 구에서 전부 추진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은 구를 통해 어린이집으로 갑니다. 인허가권은 자치구에 있고 그곳에서 보조금이 나가야 합니다. 어떤 사업이든 사전 합의를 통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약실천계획 평가	5-11	광주형 장애인 평생교육 체계 구축
--------------	------	--------------------

■ 공약사업 담당 부서 설명

○ 사업개요

- 장애성인의 초·중등 학력인정 교육과정 취득 지원
 - 교육부에서 초·중등 문해교육과정 개발 중으로 향후 시 교육청(운영 총괄) 계획 수립 예정('23.)
 - 교육부 가이드라인 확정 후 시 교육청과 협의, 역할분담 등 지원방안 마련

* 교육부 초등·중등 문해교육 기본 교육과정 고시 제정('20.12.)
 - 장애성인 초·중등 취득 지원을 위해 장애인, 일반평생교육시설, 장애인복지관 등에서 교육과정 이수 후 교육청(운영 및 관리 총괄) 심사 후 학력 취득 가능

- 장애 친화적 평생학습 환경 구축
 - 장애인 평생교육 강사 양성 및 파견 등 프로그램 운영 지원('23.)
 - 자치구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정·운영을 위한 전문가 자문 및 컨설팅 지원
 - * 자치구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3개구 공모 선정(서구, 남구, 북구) : '22. 3.
-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기반 강화
 - 장애인 평생교육 전담인력 총원('22.7.)에 따른 장애인 평생교육 거점기관('20.5. 교육부 지정)으로서 평생교육진흥원 기능 및 역할 확대
 - 장애인 평생교육 기관 관계자·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한 수요자 중심 평생교육 방안 강구
 -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 및 관계자 역량강화 교육 추진
-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맞춤형 지원 강화
 - 장애의 정도·유형을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운영(문해, 문화예술, 생활체육 분야 등)
 - 장애인 가족 및 부모 역량강화 교육 지원



- 장애인 평생학습프로그램 민간 공모 및 자치구 장애인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
 - 장애인 평생교육의 체계적 관리 및 정보제공 강화 지원
 -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 중장기 발전계획('23.~'27.) 등 장애인 관련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 정책토론회, 심포지엄 등 관계자 의견수렴 및 정보 공유, 장애인평생학습 성과보고회 등
 - 장애인 평생교육 기관 및 프로그램 홈페이지 게시 및 홍보
 -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별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 조사 및 홍보 등
 -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매뉴얼에 따른 운영비 지원
 - 교육청과 협력, 장애인평생교육 시설 운영 및 프로그램 운영비 등 지원
 - * 실로암 장애인평생교육원 등 5개소 / ('22년) 500백만 원(시 100, 교육청 400)
- 사업추진계획
- 장애인 평생교육진흥 중장기 발전계획('23~'27) 수립·시행 : '22. 8. ~
 - '23년 자치구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지정 위한 컨설팅(동·광산구) : '22. 11.~
 - 장애인 평생교육 강사 양성 등 장애친화적 평생학습 환경 조성 : '23. 1.~
 -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관계자·전문가 등과 장애인 평생교육 발전방안 논의 : 정기

■ 질의응답

- 담당자 : 법적 토대의 평생교육법과 조례가 제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이 19~20년도에 제정되었습니다. 다른 시도도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장애인 평생교육과 성과를 말씀드리자면 우리 시의 장애인 평생교육진흥

원이 장애인 평생교육의 거점이 되었습니다. 장애인 학습권을 지원하기 위해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69,819명의 장애인이 있고 전체의 51%가 어르신입니다. 특수학교에서 교육받고 있는 4~5천 명을 제외하고 실제로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1.5~2만 명이 되지 않을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장애 성인들이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면 초중등 학력을 취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교육부에서 가이드라인이 확정된다면 교육청과 협의하여 장애 성인들의 학력취득을 위한 기회를 마련할 것입니다.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해도와 교육 방법을 잘 아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공모한 평생학습도시로 서구와 북구가 선정되었습니다. 총 32개의 지자체가 선정되었습니다. 다른 구도 컨설팅을 통해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평생교육 전담인력을 한 명 충원했고 또 한 명 충원할 계획입니다. 관계자 네트워크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지원할 것입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이 필요한데 장애인의 정도와 연령을 고려할 것입니다. 중증도 장애인의 가족들의 인식개선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에 중점을 두고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입니다. 금년도 장애인 평생교육 중장기 계획이 진행 중인데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실태 조사와 정책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5개년 마스터플랜을 통해 시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우처 중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은 얼마나 있고 장애인의 편의시설이 얼마나 구축되어 있는지도 조사 중입니다.

- 배심원 : 예산 내용이 더 설명되길 바랍니다.
- 담당자 : 장애인 강사 양성, 프로그램 운영비 등 이 분야만 해서 내년에 2억 2천만 원 강사 양성과정은 4천만 원 프로그램 운영 1억 8천만 원 장애인 관련은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치구 쪽으로도 지원하고 있는데 자치구에 프로그램 개발비 2천만 원을 별도로 지원 중입니다.
- 배심원 : 프로그램 개발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 담당자 : 전문성,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평생교육 진흥원이 운영



중입니다. 장애인의 편의시설 확충, 교육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가 인프라를 이제 구축하고 시작하는 단계이니 사회적인 공감대와 인식이 생기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약사업을 통해 그것이 촉진될 것 같습니다.

- 배심원 : 실질적 장애인은 몇 명이나 되나요?
- 담당자 : 선천적 장애인과 후천적 장애인이 있는데 고연령 후천적 장애인이 51%입니다.
- 배심원 : 대상이 어떤 초점에 맞춰져 있나요 연령 구분이 있나요?
- 담당자 : 찾아가는 장애인 교육 등 다른 프로그램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 배심원 : 예산은 무상인가요?
- 담당자 : 무상교육입니다. 바우처라는 제도도 있는데 이 제도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에서 하고있는 제도는 저소득층이나 장애를 가진 분에게 30만 원 정도의 학습이용금액을 지원합니다. 교육기관과 온라인으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배심원 : 예산이 부족하지 않은가요? 전문직 채용의 고용형태는 어떠한가요?
- 담당자 : 정규직으로 평생교육진흥원에 채용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이니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볼 수도 있습니다. 평생교육 분야만 연구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배심원 : 교육 프로그램 안에 체육활동이 있는지요? 개발진행 중인지요?
- 담당자 : 교육프로그램 안에 추가가 가능합니다. 장애인 시설에 전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고려해 보겠습니다. 체육 분야는 전문화된 분야이고 평생교육 쪽에서 담당하는 것이 나은지 고민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 배심원 : 평생교육이 장애인들에게 충분히 홍보되는지요? 어떻게 신청

하는지 궁금합니다.

- 담당자 : 구 별로 담당부서에서 신청을 받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 배심원 : 국비는 어느 정도인가요?
- 담당자 : 자치구별로 지원되는 것도 있는데 이 예산은 토대를 만들기 위한 예산이고 앞으로 더 탄탄해질 것이라 믿고 확충될 것이라 믿습니다. 시작 단계이고 실태를 파악 중이니 내년 초에 1년 실시계획을 만들 것입니다. 접근 방법이 심화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 공약사업 담당 부서 설명

○ 사업개요

☐ 기존 위원회 일괄 정비

- 추진대상: 총 248개 위원회 중 자체 정비가 가능한 141개 위원회*
 - * 법령상 강행 설치 제외한 전체 위원회(법령 임의설치, 조례 및 방침상 위원회)
- 추진시기: 2022년 7월 ~ 2023년 6월
- 내 용: 회의실적, 기능 및 필요성 점검하여 폐지, 통·폐합, 비상설화, 협의체 전환 등 위원회 수 정비

☐ 위원회 운영 내실 강화

- 추진대상: 법령·조례·규칙 등에 근거한 전체 위원회
- 추진시기: 연중
- 내 용
 - ① 민관협치협의회 우선 활용 검토
 - 위원회 신설 및 정비·활성화 협의시 민관협치협의회로의 통합 운영 우선 검토
 - ② 위원회 남설 방지 : 총량제 강화
 - 위원회 신설시 기존 설치된 위원회 통·폐합 의무 부과(단, 법령상 강행 위원회 제외)
 - ③ 영구 존속 방지 : 일몰제 도입
 - 市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위원회 존속기간(4년) 도래시 자동 폐지 규정 신설
 - ④ 위원회 운영실적 점검 강화

- (점검기간) 매년 초
- (점검사항) 위원회 현황, 회의 개최실적, 참석률, 규정준수 여부 등
- (결과활용) 위원회별 회의 실적, 참석률, 중복참여 위원 명단 등 점검 결과 공개, 운영실적이 저조하거나 부실한 위원회 활성화 및 정비계획서 수립

○ 사업추진계획

- 위원회 관련 조례 개정(정책기획관, 담당부서) : '23. 상반기
- 조례 개정에 따른 위원회 정비 등 후속 조치 : '23. 6월
- 위원회 운영실적 점검 : 매년 초

■ 질의응답

- 담당자 :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의 근거를 강화하기 위해 위원회가 운영 중입니다. 위원회의 수가 증발하고 있고 운영비용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절차들을 정비하자는 취지입니다. 기존 위원회를 따져보고 한 번 생기면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4년 후 결과를 본 후 조례 개정을 통해 폐지하는 방식으로 바뀔 계획입니다.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와 통폐합 하는 것으로 정비할 것입니다.
- 배심원 : 위원회의 예산은 어떻게 지급됩니까?
- 담당자 : 회의 참석 수당과 운영비용 등 위원회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검토 후 지급합니다.
- 배심원 : 모든 회의는 공개가 되어있는데 5.18 위원회 말고는 자료를 찾기 힘듭니다.
- 담당자 : 다른 위원회의 내용들도 공개가 되어있긴 한데 공개 필요성이 없는 경우는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 배심원 : 존치 필요성이 경미한 위원회는 어떤 기준인지요?
- 담당자 : 정비의 기준은 정부 지침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정비가 필요한 위원회는 통보를 하고 그 후 정비의사를 묻습니다.



- 배심원 : 폐합의 강제성은 없는지요?
- 담당자 : 권고할 뿐 강제할 수단은 없습니다. 담당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에 따른 제재는 불가합니다. 위원회는 개최 사유가 없어 개최를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규정은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배심원 : 위원회의 조례도 개정되는지요?
- 담당자 : 개정될 것입니다.
- 배심원 : 행안부 지침에 따라 얼마나 폐합되나요?
- 담당자 : 행안부 지침과 공약이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 배심원 : 위원회를 폐지 시켰다가 신설해야 한다면 다시 신설하는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 담당자 : 얼마나 필요한지 설명하기 쉽지 않습니다. 아무나 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자격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의회와 관련된 부분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2~3개월 정도가 필요합니다.
- 배심원 : 기간은 언제까지 시행할 계획인가요?
- 담당자 : 50개를 정비 목표로 설정했고 내년 2월 말까지 시행할 예정입니다.
- 배심원 : 권고 사안이면 실현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 담당자 : 일괄로 한 것이 아니라 지침을 내리고 위원회를 정비할 의지를 우선 통보합니다.
- 배심원 : 비상설화란 무엇입니까?
- 담당자 : 비상설화는 필요할 때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후에는 임기가 끝나는 방식입니다.
- 배심원 : 언제 상정할 계획입니까?
- 담당자 : 임시 의회에서 또 논의할 계획이고 올해 안에 끝낼 수 있을 것입니다.

공약실천계획 평가	5-18	광주 정책평가박람회 개최
--------------	------	---------------

■ 공약사업 담당 부서 설명

○ 사업개요

- 추진시기 : 매년 시민의 날 행사와 연계하여 추진('23년부터)
- 추진방식 : (1차) 온라인 / (2차) 오프라인
- 주요내용 : 시 정책소개, 정책의 시민평가 및 의견수렴 등
- 소요예산 : 총 160백만 원 (시비)
 - 매년 1회(40백만 원) * 4회 개최

○ 사업추진계획

- 민선8기 정책평가박람회 추진계획(안) 수립 : '22. 10.
- (1차 온라인) 시 정책소개 및 시민 정책평가 : (매년) 3~4월
 - 대 상 : 민선 8기 주요정책(공약 및 새로운 정책 중심)
 - 방 법 : 시민광장 “광주 On”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설문
 - 시 주요 정책 홍보자료 시민광장 “광주 On” 게시
 - 시민정책참여단 설문 ⇨ 30개 우수정책 선정 및 시민 의견수렴
- (2차 오프라인) 시 정책소개 및 시민 정책평가 : (매년) 5월
 - 대 상 : 우수정책 30개(온라인 시민 설문 결과)
 - 방 법 : 시민의 날 부대 행사장 내 운영
 - 정책부스 운영 (30개 정책 → 공약과제 5대 시정목표 분야에 맞게 분류)
 - ▶ 부스별 정책 설명 및 시민 제안 등 의견수렴 진행
 - 30개 정책별 핵심내용 안내 패널 전시를 통한 시민 현장평가
 - ▶ 방문 시민에게 스티커 배부 후 선호하는 정책 패널에 부착방식



■ 질의응답

- 담당자 : 민선 8기에 들어서 정책에 대해 시민의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좋은 정책은 지속하고 안 좋은 정책은 없애기 위함입니다. 민선 7기까지 정책평가 사업을 진행했고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합니다. 공개한 정책을 통해서는 자체평가나 외부평가를 통해 보완 운영하는 정책이력제도 운영 중입니다. 매년 연말을 기준으로 사업 성가가 뛰어난 우수정책 15개를 시민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합니다. 우선은 내년 3월까지 주요 정책을 접수하고 3월과 4월경에 신설된 정책참여단을 통하여 주요 정책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예산은 4년 동안 매년 4천만 원입니다. 시민의 날에 정책부스를 운영하고 시민 의견을 취합하여 담당자 검토 후 실제 정책에 반영할 것입니다.
- 배심원 : 예산에 대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 담당자 : 민선 8기 전체 예산이 1억 6천만 원이고 행사 한 번에 4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운영할 방향은 정책 평가에 더 초점을 맞출 계획입니다.
- 배심원 : 5개 부스는 어떤 기준인지요?
- 담당자 : 시민들의 의견을 통해 확정할 예정입니다.
- 배심원 : 용역은 어떻게 준비될 것인지요?
- 담당자 : 용역은 예산이 확보된 이후에 가능한 부분입니다. 4천만 원은 행사 운영비이고 행사를 진행할 용역을 지정하여 행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매년 다른 용역이 운영할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직접 할 수도 있지만 부스를 설치하고 설명할 사람들은 대행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절차를 설명드리자면 용역을 선정하는데 별도의 평가위원회가 심사하고 가격도 비교하여 선정합니다. 시민의 날 행사 속에 작은 평가 부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 배심원 : 정책평가단 홍보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 담당자 : 시청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홍보되고 있습니다.

- 배심원 : 정책박람회 과정도 공개가 되는지요?
- 담당자 :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우수정책을 선정했을 때는 행안부와 중앙정책부에서 선정하는데 성과를 설문조사 했습니다. 작년은 연말에 시상을 했는데 올해는 선정하지 않고 내년에 시민들이 시상하는 것을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3. 분임별 토의 내용 및 결과

가. 1분임 (열정)

공약실천계획 평가	1-5-4	도시문제해결형 솔루션 개발·지원
--------------	-------	-------------------

■ 사업 개요

○ 추진목표

- 시민생활과 관련된 현장의 도시문제를 광주지역 기업의 AI 기술을 활용하여 해결하여, 시민들이 AI 기술을 체감하고 미래 스마트도시 광주의 저변 확대 추진
- 다양한 AI 기업이 지역 내에서 AI 솔루션의 현장 적용을 통해 초기 사업화를 지원하여 광주지역 AI 기업의 성장과 비즈니스 친화적인 도시로서의 경쟁력 제고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23년 ~ 2026년(4년)
- 사업대상 : 광주지역 기업 16개사 내외
- 총사업비 : 3,600백만 원(시비)
 - 실증 및 사업화 지원 3,200백만 원, 운영비(수요조사 등) 400백만 원
 - ※ 세부계획 수립이 내역 사업비 변동가능
- 사업내용

구분	주 요 내 용
도시문제 해결 수요발굴	자치구별 시민생활과 연관된 다양한 도시문제를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문제해결 우선순위에 따라 추진 과제 선정 ※ 예) AI 기반 쓰레기 무단투기, 주차문제, 차량정체, 환경오염, 주민복지 등 해결
실증·사업 화 지원	도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업의 AI 솔루션을 현장에 적용하여 다양한 지역 기업의 AI 기술의 실증·서비스·상용화를 통해 기업의 AI·제품·서비스

	스 사업화 촉진
--	----------

■ 공약평가

- 시대 흐름에 맞춰서 도시문제를 인공지능으로 해결하려는 시도가 좋음.
- 지역 내 AI 기업을 지원하는 데 좋음.
- 실증 사업을 통해서 광주 지역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임.
- 광주 지역 기관의 특성이 없는 상태에서 AI 인공지능의 특성을 살려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이 좋고, 궁극적으로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문제해결’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이 좋음.
- 광주 지역에 새로이 도입이 됐다는 것 자체는 획기적이라고 생각함.

■ 배심원단 권고안

-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도시문제해결 솔루션이 필요함.
- 사업에 대한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창구 설치 필요함.

■ 제안이유

-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도시문제해결 솔루션이 필요함.
 -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지, 실현가능할지 의문임. AI에 대한 도시문제해결 솔루션이 적재적소에 잘 해결되었으면 함. AI에 대한 도시문제해결 솔루션이 적재적소에, 정말 필요한 곳에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해야 함.
- 사업에 대한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창구 설치 필요함.
 -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사업 진행이 필요해 보이고, 이 사업이 진행하는 데 있어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해 보임.

■ 기타의견



- 우수 AI 기업에 집중적 지원
 - 사업대상 기업을 16개 사업으로 한정으로 할 것이 아니라, 우수 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함.

공약실천계획 평가	1-13	지역산업 현장맞춤 산업인력 플랫폼 구축
--------------	------	-----------------------

■ 사업 개요

○ 추진목표

- 지역산업 현장맞춤형 산업인력 공급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의 고용정책 환류체계 완성 및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22. ~ 2026.
- 사업내용
 - 업종별·분야별 기업의 구인수요에 맞춰 교육훈련기관 수료생 데이터 관리
 - 전담창구를 통해 기업-교육훈련기관-수료생간 정보연계 및 취업지원
 - 필요시 일자리플랫폼 고도화를 통해 상호간 정보제공 자동화 구현
- 소요예산 : 2,100백만 원 (국비 1,720, 시비 380)

■ 공약평가

- 기업을 검증하고 좋은 인재를 발굴한다는 점에서 기획 취지는 좋음.
- 기술이나 좋은 인재가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좋음.
-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보다 보급화하고, 체계화한다는 점에서 좋음.
- 월급 이외의 복지 문화를 공개한다는 점이 좋음. 검증된 기업만이 올라오는 등 사람들이 신뢰하고 접근할 수 있는 점이 좋음. 이후의 사후관리를 한다는 점에서도 좋음.
- 내가 가고 싶은 회사, 내가 뽑고 싶은 인재를 알 수 있다는 것에 있어서 좋음.
- 광주 지역에 특화된 맞춤형 일자리 알선 및 취업 연계한다는 점이 좋음. 취지대로 이뤄진다면 이상적인 사업이 될 것 같음.



○ 배심원단 권고안

- 민간 시장 활용해야 함.
- 플랫폼 이용에 있어 서류의 간소화 및 시간 단축화 필요함.
- 기업 및 교육 등 직종 다양화해야 함.

■ 제안이유

- 민간 시장 활용(ex. 사랑방, 사람인, 워크넷 등)해야 함.
 - 민간 시장을 통해서 구축을 하면 훨씬 좋고 더 잘 알릴 수 있을 것 같음. 홍보도 덜 되었고, 이에 예산 낭비가 아닌가 생각함.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워크넷 등 시민들에게 더 홍보를 해서 기존에 있는 것들을 더 좋게, 다양하게, 구축해야 함.
- 플랫폼 이용에 있어 서류의 간소화 및 시간 단축화 필요함.
 - 플랫폼이 하나의 인력 탱크를 말하는데 현재 사랑방이나 다른 일자리 소개시켜주는 곳에서 많이들 일자리를 얻음. 그런 플랫폼들이 보다 접하기 쉽고, 이용에 간편하기 때문인데 시에서 관리한다고 하여 서류를 복잡화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등 이용에 불편하면 안 됨.
- 기업 및 교육 등 직종 다양화해야 함.
 - 보통 기술직에 한정되어 있는 곳이 많음. 보다 다양한 직종으로의 취업과 인재를 개발할 수 있도록 교육을 다양화하는 등의 필요성이 있어 보임. (ex, 지역맞춤형훈련 등)

■ 기타의견

- 부가가치가 높은 교육, 지속적인 지원(ex. 전문교수 초빙 등) 필요함.
 - 단기로 배워서 할 수 있는 기술들은 부가가치가 높지 않음. 장기적 교육,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많은 투자를 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함. 변천된 기술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시대에 맞는 교육도 지원해

야 함.

○ 현재 있는 플랫폼 활용 및 연계, 탄탄한 구축이 필요함.

- 잡넷 플랫폼이 홍보가 미비하고, 현재 있는 플랫폼과 중복된 점이 많음. 또 AI와 무리한 연계로 호지부지될 가능성이 있어 보임. 고용노동부와의 중복성, 얼마나 전문적으로 할지, 그로 인한 또 다른 예산 낭비가 우려됨.



■ 사업 개요

○ 추진목표

- 지역자금 역외유출 방지로 지역상권보호 및 경제 활성화 도모
- 지역자원을 활용한 생산·유통·소비가 선순환 되는 경제기반 구축

○ 추진개요

- 기 간 : '22. 10월 ~
- 발행형태 : 체크카드, 선불카드
- 사용범위 : 광주상생카드 등록 가맹점
 - ※ 백화점, 기업형 SSM, 대형마트, 중소기업이 아닌 업체, 대형병원 등 제외
- 지원내용 : 상생카드 할인 지원(10% 이내), 카드결제수수료 지원 등

■ 공약평가

- 상생카드가 지역사회에 자금 순환시키는 데 일조했다고 생각함.
- 상생카드가 처음 나왔을 때는 한시적으로 끝나지 않을까 우려했는데, 현재까지 잘 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유지되지 않나 생각함.
-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써지는 사람들의 심리처럼 상생카드가 소비에 도움이 되는 것 같음.
- 지역자금 역외유출을 방지한다는 점에서 좋다고 생각함.
- 소상공인들에게 좋은 사업인 것 같음.
- 정책에 대한 체감이 잘 되는 사업 같음.

■ 배심원단 권고안

- 제대로 된 조사를 통한 타당성 확보 필요함.

■ 제안이유

- 제대로 된 조사를 통한 타당성 확보 필요함.
 - 지금도 효과에 대한 의문이 있는데, 지원이 중단된 후에도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을 진행할 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타당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또 사업 축소에 따라 지원도 축소되어야 함.

■ 기타의견

- 상생카드 사용처 범위 축소(ex, 식자재 마트 제한)해야 함.
 - 영세업자들의 매출에 더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식자재마트에서 쓸 수 없도록 제한하는 등 사용처 범위를 축소해야 함.
- 정보적 약자들을 위한 홍보 필요함.
 - 정보적 약자들은 이러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음.
- 수급자 및 차상위, 저소득층에 지원할 때 상생카드 활용해야 함.
 - 보편적 복지도, 차등적 복지도 아닌, 있는 사람들만 쓸 수 있다는 점이 단점이라고 생각함. 사업이 축소가 되었을 경우에는 발급되었던 카드들이 다 낭비됨. 사업 중단 후의 방안도 마련해야 함.
- 상생카드 사업 폐기해야 함.
 - 정부 지원이 없고 시비로 예산을 마련했음. 이것은 예산 낭비인 것 같음. 타지에서 오는 수입이 없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없어짐. 지역화폐 발행 비용으로 예산이 낭비됨. (ex, 카드 발행, 보조금 지급, 관리 등) 직접 소비자들에게 전달되지 않고 그 외로 들어가는 비용이 많음. 서로 경쟁하면 더 싸게 살 수 있는데, 동네 마트에 가서 소비를 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더 손해임. 또 대형 마트로



갈 사람들이 중대형 식자재 마트로 몰리기 때문에 동네 마트나 카페 등이 광주상생카드로 결제를 한다고 하여 소비가 많아지거나 하지 않음. 또한, 소외계층에 더 불이익임. 소외계층들은 상생카드를 만들 여력이 되지 않음. 결국, 역행하는 꼴로 결과적으로 남는 게 없음.

나. 2분임 (빛고을 광주)

공약실천계획 평가	2-1	시민여가 공간 "익사이팅 존" 조성 사업
--------------	-----	------------------------

■ 사업 개요

○ 추진목표

-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 신 활력 친수 공간 조성
- 영산강·황룡강변 친수 공간 확대를 통한 시민여가생활권 확대 및 관광객의 유입으로 서해안 시대로 나아가는 그랜드비전 제시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2. ~ 2026.
- 위치: 광주광역시 영산강·황룡강 일원
- 사업내용: 아시아권 문명 공동체인 영산강·황룡강 Y벨트를 중심으로 문화·예술 및 관광·레저 교류 공간 구축
- 사업비: 기본구상 용역 후 단위사업 발굴 및 사업비 확정

■ 공약평가

- 문화도시 광주를 알릴 수 있는 자원으로써 가치가 큰 사업이라고 생각함. 마한 역사 관련 자원과 생태 부지를 기점으로 시민 여가 공간이 마련되면 좋을 것 같음.
- 잊힌 역사 유적지가 알려지게 되고, 전남과 광주가 서로 교류하고 궁극적으로 전국적인 관광지가 조성될 수 있을 것 같음.
- 광주 안에 레저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조성만 잘 되면 입소문을 타고 홍보도 되면서 레저 스포츠를 취미로 하는 시민들이 많이 유입될 것 같음.



■ 배심원단 권고안

- 장성, 나주 지역 지자체와의 소통이 중요하고, 공동 유치, 공동 협력 안을 마련해야 함.
- 콘텐츠 개발을 통해 광주 안으로 실질적인 관광객 유입이 되어서 지역 내 소비 증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제안이유

- 장성, 나주 지역 지자체와의 소통이 중요하고, 공동 유치, 공동 협력 안을 마련해야 함.
- 광주뿐 아니라, 전남 지역도 이익 창출이 가능하도록 장치 마련이 되어야 함.
- 콘텐츠 개발을 통해 광주 안으로 실질적인 관광객 유입이 되어서 지역 내 소비 증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가평이나 담양, 화순과 같은 지역을 잘 벤치마킹함으로 부지 자체가 장성과 나주 지역에 몰려 있는 것 같음. 지역민의 이익을 잘 고려했으면 함.

■ 기타의견

- 먼저는 지자체에서 주권을 잡고 확실히 추진을 해줘야 국가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됨. 추후에 민자로 변경하고 전남 지역과 협력하더라도, 먼저는 광주시에서 확실히 주인의식을 갖고 추진했으면 좋겠음.
- 시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공모 사업을 통해서 민자로 운영되어야 관리가 잘 될 것 같으므로, 공모 사업을 통해 민자 운영으로 하고, 광주 시민에게는 할인율을 높이고,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해야 함.

공약실천계획 평가	2-8-2	국제게임쇼케이스 및 QA센터 운영
--------------	-------	--------------------

■ 사업 개요

○ 추진목표

- 지역 게임 산업 선도를 위한 민관학 협력 게임 관련 이벤트 마련
 - 지역 게임기업 육성 및 지원을 통한 지역 게임 산업 경쟁력 확보
- 게임 QA(Quality Assurance) 운영을 통한 게임 산업 활성화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22 ~ 2026년
- 사업대상 : 게임기업 및 시민
- 사업비 : 176억 원(국비 85억, 시비 91억)
- 사업내용 : 글로벌 게임 이벤트 개최 및 게임 QA센터 운영
 - [글로벌게임개발자 페스티벌 개최]
 - 지자체, 게임 관련 협단체, 기업 등과의 협력을 통한 공동 조직위 구성 및 운영
 - 글로벌 게임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주제 강연과 교류를 위한 글로벌 대표 개발자 컨퍼런스 개최
 - 광주이스포츠경기장을 활용한 글로벌 이스포츠대회 유치, 신작 발표회, 인디게임 체험존 등 운영
 - [게임QA센터 운영]
 - QA센터 설립 및 운영방향 설계 연구, 기존사업과 연계 강구
 - 연구 결과에 따른 운영 추진

■ 공약평가

- 국제게임쇼케이스를 추진하면 광주 마이스산업과 연계가 되면서 관광



자원으로써 가치가 창출될 것 같음.

- 광주 소재 3개 대학에 이스포츠학과가 개설이 되면서 청년들이 게임 박람회를 통해 진로, 취업에 대한 동기부여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음.
- 서울 경기 제외 지자체 중에 수익률이 가장 높은 사업으로 적은 예산 투입 대비 이익 창출의 가능성이 높은 사업임.
- 게임 개발 산업에 대한 광주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초입 정책으로서 가치가 있음.
- 이스포츠 경기장이 전국 3개(부산, 대전, 광주)인데 본 안전을 통해 특화 시킬 수 있는 안전임.

■ 배심원단 권고안

- 국제게임쇼케이스를 추진하면서 광주 시민을 대상으로 전략적인 홍보가 필요함.

■ 제안이유

- 국제게임쇼케이스를 추진하면서 광주 시민을 대상으로 전략적인 홍보가 필요함.
- 아직 이스포츠와 게임 산업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는 광주 시민들에게 홍보가 필요할 것 같음.

■ 기타의견

- 없음

공약실천계획
평가

2-10

스포츠건강도시 조성(체육시설 공유시스템 구축)

■ 사업 개요

○ 추진목표

- 시민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체육시설 개방 확대 추진
- 공유체육시설 공유 시스템 등록 및 관리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22. ~
- 사업내용 : 공유체육시설 개방 확대 및 공유 시스템 등록 관리
- 총사업비 : 1,800백만 원

■ 공약평가

- 큰 비용을 들여서 스포츠복합시설을 짓지 않아도 광주 시민들이 생활 체육을 즐길 수 있음.

■ 배심원단 권고안

- 편성 예산액을 증액해야 함.
- 권역별로 학교를 몇 개 선정해서 지원되는 예산을 증액해야 함.

■ 제안이유

- 편성 예산액을 증액해야 함.
 - 너무 적은 예산을 편성해서, 실질적으로 개방하는 학교에 얼마나 큰 유지비가 지원될지 의문임.
- 권역별로 학교를 몇 개 선정해서 지원되는 예산을 증액해야 함.



- 예산이 워낙 적기 때문에 자율성에 맡기되,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개방률을 높이려고 하기보다 권역별 몇 개 학교를 선정해서 개방하도록 유도하고 지원을 증액시키는 방향이 좋을 것 같음.

■ 기타의견

- 본 사업에 예산을 투자하기보다 시민들이 필요한 것은 스포츠복합타운을 건립하는 것이 좋음. 신도시와 같이 아이스링크장, 수영장 등이 모두 갖춰있는 스포츠복합타운을 신설하는 것이 더 비전 있을 것 같음.

다. 3분임 (사랑의 광주)

공약실천계획 평가	3-2	종사자 단일임금체계 마련 및 노동여건 개선
--------------	-----	-------------------------

■ 사업 개요

○ 추진목표

- 제2기 처우개선(안)은 2023년까지 모든 시설의 인건비가이드라인 100% 적용을 목표로하므로 단일임금체계는 현행을 준수
- 모든 시설의 인건비와 운영비 분리지원에과 유사경력 인정방안 확대 운영으로 종사자의 안정된 근로여건 강화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 2026년
- 지원대상 : 634개소
(시비지원시설 192, 국비지원시설 442) (기준: 2022. 6. 30.기준)
- 사업예산 : 516,726백만 원 ※ 여성가족교육국 단일임금 투입예산 미포함
- 추진내용
 - 제2기 처우개선(안)은 2023년까지 모든 시설의 인건비가이드라인 100% 적용을 목표로하므로 단일임금체계는 현행을 준수
※ 단, 여성가족부 소관 '호봉제 미적용 시설'은 별도로 처우개선안을 마련
 - 제2기 처우개선 성과평가와 광주형 단일임금체계 구축을 위한
 - '처우개선 민·관TF'를 구성·운영하여 촘촘한 처우개선 마련
 - 시설별'정원'기준을 준수하고 인건비와 운영비를 분리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내용을 제3기 처우개선 수립시 검토
 - 청소년 시설등 유사경력 인정 미적용 시설에 대해서는 조례개정 등을 통해 개선



■ 공약평가

- 지역 시설에 대한 차이를 좁힐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라고 생각함.

■ 배심원단 권고안

- 사회복지서비스에 기여하는 직종과 시설에 대한 형평성 있게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좋겠음.

■ 제안이유

- 사회복지서비스에 기여하는 직종과 시설에 대한 형평성 있게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좋겠음.
- 지역아동센터나, 규모에 따라 호봉적용이 어렵다는 등의 공약 설명이 있었음. 중앙정부의 가이드에 막혀서 진행하지 못한다는 뉘앙스가 있었음. 역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었으면 좋겠음.

■ 기타의견

- 없음

공약실천계획 평가	3-25-1	공공보건의료협의체 구축
--------------	--------	--------------

■ 사업 개요

○ 추진목표

- 市,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등 보건의료인(공급자·수요자 대표) 및 주민대표 등이 함께하는 공공보건의료협의체 구성·운영을 통하여 필수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22. ~ 2026.
- 사업목적 : 지역 간, 계층 간 건강 격차 해소 및 의료 공공성 강화
- 사업내용 :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 협의체 구성·운영 : 市, 책임의료기관(전남대병원), 공공병원, 보건소, 의약5단체, 주민대표 등
 - 필수보건의료 기초조사 : 보건의료 문제 진단·분석, 개선방향 설정 등
- 총사업비 : 39백만 원(시비100%)

■ 공약평가

- 전남대만 공공의료기관 이었고 광주-울산에만 공공의료원이 없다는 게 아쉬웠는데 보훈병원-기독-조대병원 과 의학 5개 단체 등이 의견을 모아서 추진한다는 게 장점이 인 것 같음. (정책취지 자체가 장점)

■ 배심원단 권고안

- 협의체에 기관장급 말고도 실무자들도 이 협의체에 포함이 되었으면 좋겠음. 다양한 인원(나이, 직급 등)에 따라 진행되면 좋을 것 같음.
- 협의체 구성이 지역 간, 계층 간 해소와 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데 민간 의료 기관장들도 협의체에 포함되면 좋겠음.

■ 제안이유

- 협의체에 기관장급 말고도 실무자들도 이 협의체에 포함이 되었으면 좋겠음. 다양한 인원(나이, 직급 등)에 따라 진행되면 좋을 것 같음.
- 공급과 수요자 이야기를 하던데 기관의 장급이 아니고(병원장 등이 아니라) 현장에서 뛰는 의료인들이 협의체에 참여해야 함. 기관장들이 이야기해서 하는 것들이 정확한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더욱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견임.
- 협의체 구성이 지역 간, 계층 간 해소와 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데 민간 의료 기관장들도 협의체에 포함되면 좋겠음.
- 실제 민간 의료기관들이 마을- 동네마다 다양하기에 주민들을 많이 만나고 현장 일을 잘 알 것 같음. 다양한 의료기관들의 참여가 필요함.

■ 기타의견

- 없음

공약실천계획 평가	3-25-2	만성질환 관리 시스템 구축
--------------	--------	----------------

■ 사업 개요

○ 추진목표

- 심뇌혈관질환의 선행질환인 고혈압·당뇨병 등을 적극 예방하고, 환자 조기발견 및 합병증 검사 등을 통한 만성질환 관리 강화
- 생활습관 등 건강위험요인 관리, 건강생활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실천 유도로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22. ~ 2026.
- 사업대상 : 고혈압·당뇨병 고위험군 및 환자 등 광주시민
- 사업내용
 - [인식개선]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캠페인 및 홍보, 교육 등
 - [예방·관리] 고혈압·당뇨병 등 선행질환 조기발견 및 관리
 - ▶ 건강검진을 통한 잠재적 고위험군 조기발견 및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등 연계
 - ▶ 금연, 비만예방, 영양, 신체활동,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등 통합서비스 제공
 - [질환관리] 합병증 예방, 만성질환자 자가관리 지원 및 지속 치료 유도
 - ▶ 보건소 중심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광산구보건소),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방문건강관리,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 ▶ 동네의원 중심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시범사업(국민건강보험공단)
- 총사업비 : 20,057백만 원(국비 9,549, 시비 6,390, 구비 4,118)



■ 공약평가

- 고령화 문제, 만성질환도 문제데 효율적으로 관리의 필요성을 느끼고 시스템을 만든다는 것이 장점인 것 같음.
- 방문을 대체적으로 시민들에게 잘 홍보가 되고 있어서 관리가 되고 있음. 이 정책 자체가 잘 갖추어져 있는 것 같음.

■ 배심원단 권고안

- 뼈나 치매 등의 질환을 주기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필요함.
- 체계적인 홍보 시스템 구축 필요함.

■ 제안이유

- 뼈나 치매 등의 질환을 주기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필요함.
- 뼈 건강, 치매 등은 주기적으로 체크해야 함. 정책이 고령화 질환에 초점을 두고 있어서 질환의 범위를 넓히면 좋겠음.
- 체계적인 홍보 시스템 구축 필요함.
- 교육기관, 온라인 홍보(SNS, 인터넷 광고) 와 사회복지사 커뮤니티, 정신건강 관련 의료인들의 커뮤니티 나아가 식문화 교육기관 등 관련 담당 기관들과 공동체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면 정책 참여가 수월하지 않을까 함.

■ 기타의견

- 어플 이용 시 참여자 보상체계 구축 필요함.
- 예) 만보 걸었으면 백 원 적립, 식사량 체크하면 퀘스트 깨는 등의 게임 방식을 접목 등 관리에 흥미가 있어야 함. 만보계, 심박수 스마트

밴드에 웬만한 것 다 있음. 사람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리워드를 주는 방식을 접목하면 적극성을 갖지 않을까 싶음. 서울에서 관련한 사례가 있음. 건강관리 어플 이용할 시 지역화폐나 제로페이 등으로 적당한 리워드를 제공함.



공약실천계획
평가

3-27

광주공공산후조리원 지원체계 구축

■ 사업 개요

○ 추진목표

-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산후조리 공공성 확보 및 체계적인 산후건강관리로 출산친화적인 환경 조성
- 광주의료원 건립 이전 민간위탁 등 공공산후조리원 지원 체계 도입

○ 추진개요

- 추진시기 : '22. 7. ~ '26. 7.
- 추진방식 : (1단계) 민간산후조리원을 활용하여 공공성 확보
(2단계)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후 위탁운영
- 주요내용 : (1단계) 취약계층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감염·안전 관련 장비 지원(개소당 10백만 원)
- 대상규모 : 매년 약 200명(기초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산모)
- 소요예산(시비) : (1단계) 연 360백만 원, (2단계) 11,600백만 원

■ 공약평가

- 없음

■ 배심원단 권고안

- 자료집에 작성된 추진 계획 진행 과정을 공유해야 함.

■ 제안이유

- 자료집에 작성된 추진 계획 진행 과정을 공유해야 함.

- 평가할 때 예산이나 인력 대상 등의 기준이 있어야 하나 이 정책은 위와 같은 것들이 책정이 안 되어있음. 예산 인력 등을 보고 평가하는 것인데 이 정책은 계획 수립만 하고 예산 등이 책정되어 있지 않음. 평가 할 내용이 부족함. 자료집에 나와 있는 수립 계획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진행과정을 공유해야 함. 예) 회의 시 언제 몇 명이 참석, 내용 등을 공유해야 함.

■ 기타의견

- 소외계층과 미혼모-미혼부 등 사각지대 없이 정책 대상이 집중되면 좋겠음.



라. 4분임 (경제 비타민)

공약실천계획 평가	4-13	광주역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	------	---------------------

■ 사업 개요

○ 추진목표

-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新경제거점(스타트업 창업밸리) 조성
- 인구 유입 및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광장 등 커뮤니티 시설 조성

○ 추진개요

- 위 치 : 북구 중흥동 광주역 일원
- 기간/면적 : 2019. ~ 2025.(7년) / 50만m²(역사부지 20만m² 포함)
- 총사업비 : 1조 156억 원 (국 250, 시 250, 협업 2,163, 민자 7,493)
- 사업내용 : 창의문화산업의 新경제거점 조성 등

■ 공약평가

- 전남대와 가깝고 근방에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있어서 젊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을 것임.

■ 배심원단 권고안

- 창업지원 시 경쟁력 있는 관련 산업 선정 기준 확립 필요함.

■ 제안이유

- 창업지원 시 경쟁력 있는 관련 산업 선정 기준 확립 필요함.

- 창업이라 하면 요식업이 많이 들어오는데 전국적으로 아무한테나 공간을 임대해 예산 낭비가 큰 경우가 많음. 특색 있는 분야를 선택해 경쟁력 있는 업체를 선정해야 함. 예컨대 AI 분야를 선정해 집중 지원하는 등의 방안이 가능함.

■ 기타의견

- 민간 투자가 너무 많음. 민간 업자는 수익이 없으면 참여하지 않음. 건물을 지었는지 분양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이 없음. 향후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음. 젊은 층을 모으기 위해 교통과 인프라 구축이 필요함.
- 기존에 다른 지역에서도 이루어지는 창업지원 비중은 줄이고 편의 시설, 지역 기념품 매장 등을 통해 수익창출을 해야 함.
- 창업특화단지인 만큼 창업에 연관된 사업으로만 구성(체험센터, 실증센터)해야 함. 창업특화단지인데 연관성 없는 건물들이 많음. 창업에 관련된 시설이 너무 적음.



■ 사업 개요

○ 추진목표

- 교통 혼잡이 심각한 풍암사거리를 입체화(지하차도 건설)하여 교통량 분산을 통해 교통서비스수준('F'→'E') 향상과 물류 수송비용 절감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22. ~ 2026.(5년)
- 위 치 : 서구 회재로(풍암교차로~유통단지교차로) 일원
- 사업내용 : L=0.8km, B=35m(지하차도 4차로)
 - 4차로 지하차도(L=0.6km) 및 연결로(0.2km) 설치 등
- 총사업비 : 30,000백만 원(시비)

■ 공약평가

- 교통 혼잡을 해소할 수 있는 사업임.

■ 배심원단 권고안

- 공사기간 동안 정체를 해결할 방안 확립 필요함.
- 사업 기간 단축 필요함.

■ 제안이유

- 공사기간 동안 정체를 해결할 방안 확립 필요함.
- 스마트 교통 시스템 도입 등의 방안이 필요함. 공사기간 동안 정체가 더 심해질 것이니 대안이 필요함.

- 사업 기간 단축 필요함.
 -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됨.

■ 기타의견

- 신호 없는 직진 차선 도입 필요함.
 - 서울에 버스전용차도가 가운데 있는 것처럼 직진해서 통과할 수 있는 차선을 만들면 정체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음.
- 지하차도를 만드는 대신 도로 확장 필요함.
 - 지반이 약해질 위험이 있고 지하차도 건설 공사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됨.
- 순환도로에서 내려오는 차선 폐쇄 필요함.
 - 순환도로에서 내려오는 부근 정체가 심각함. 천지장레식장 부근으로 내려가서 농산물시장으로 가능 길을 활용할 수 있음.



■ 사업 개요

○ 추진목표

- 광주송정 복합환승센터, KTX 투자선도지구 조성으로 호남광역교통망 거점 확대 및 상권 활성화 도모
- 철도, 시내·외버스, 택시 등 환승시설과 지원시설 조성으로 대도시권 형성 및 상생발전을 선도하는 미래형 광역교통체계 구현 기대
- 국가계획인‘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26~)’반영 필요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4조에 따른 법정계획, 제3차 계획('21.~'25.)

○ 추진개요

① 송정역 복합환승센터 조성

- 위 치 : 광산구 소촌동 555번지 일원(금호타이어 부지)
- 사업내용 : 환승시설, 환승지원시설 및 미래형 스마트 환승체계 구축
- 사업방식 : 민간개발(사업제안서 공모 또는 민간 도시개발사업 포함)
- 추진시기 : 금호타이어 이전계획 확정시부터 사업추진

② 송정역 투자선도지구 개발

- 사 업 명 : 광주송정역 KTX지역경제거점형 투자선도지구
- 기간/면적 : 2020년 ~ 2025년 / 560,427㎡(17만평)
- (1구역) 광주송정역 전면 31,234㎡, 1만평/(2구역) 후면 529,193㎡, 16만평
-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 총사업비 : 5,943억 원(LH전액조달)

■ 공약평가

- 없음

■ 배심원단 권고안

- 쇼핑 또는 음식 타운 설립해야 함.

■ 제안이유

- 쇼핑 또는 음식 타운 설립해야 함.
 - 송정역 떡갈비가 유명해 다른 지역에서도 음. 이처럼 광주 송정역에 와야만 즐길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야 함. 쇼핑이나 음식 타운을 만들면 좋겠음.

■ 기타의견

- 컨벤션센터 건립 필요함.
 - 웨딩컨벤션센터 등과 같이 외지에서 찾아올 수 있는 센터가 필요함.
- 비니지스 호텔 유치 필요함.
 - 송정역으로 광주에 온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숙박 시설이 필요함.
- 금호타이어 부지를 활용해 버스터미널 추가 건립 필요함.
 - 철도와 버스를 연계해 교통 활성화에 도움 됨.
- 송정시장과 송정역, 송정환승센터를 셋을 연결하는 통로 건립 필요함.
 - 이동을 원활하게 하여 상권 활성화 도움 됨.



마. 5분임 (성장)

공약실천계획 평가	5-1	0~7세까지 무상보육 단계별 추진
--------------	-----	--------------------

■ 사업 개요

○ 추진목표

- 학부모가 부담해야 할 기타 필요경비(입학금, 행사비, 특별활동비, 특성화비, 현장학습비)를 지원해 무상보육 실현

○ 추진개요

- 지원대상 :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영유아
- 대상인원 : 30,064명(어린이집 이용 아동/22년 1~7월 영유아평균값)*
 - (유아) 만5세 3,684명, 만4세 3,367명, 만3세 4,299명
 - (영아) 만2세 8,887명, 만1세 6,966명, 만0세 2,861명

*매월 영유아숫자 변동(평균)

- 총사업비: 52,307백만 원
- 지원항목 : 부모납부 필요경비

※ '22년 필요경비 수납 한도액 : 입학준비금(연90천원), 특별활동비(월55천원), 행사비(연80천원), 현장학습비(분기40천원), 특성화비(월35천원)

■ 공약평가

-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가 줄어들어 공약 필요성이 생기기 때문에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지방에는 지방인구 소멸문제가 대두됨. 광역 시도 예외가 아님. 광주광역시도 경우에도 미래 세대를 위해 청년층에게도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공약이라 생각함.

■ 배심원단 권고안

- 사업 인원 충원 필요함.
- 광주에 맞는 산출 근거와 데이터가 필요함.
- 예산 확보 및 비율 배분의 재검토 필요함.

■ 제안이유

- 사업 인원 충원 필요함.
 - 큰 예산이 집행되는데 원활한 사업을 위한 인원 배분이 우려됨.
- 광주에 맞는 산출 근거와 데이터가 필요함.
 - 예산 산출의 근거가 국가 데이터 기반이라 광주의 사정에 맞지 않을 수 있음.
- 예산 확보 및 비율 배분의 재검토 필요함.
 - 국비가 아니고 광주시 재원이기에 광주광역시 예산과 구의 예산 배분 문제와 예산이 부족하지 않을지 우려됨.

■ 기타의견

- 없음



■ 사업 개요

○ 추진목표

- 장애친화적 평생학습 환경 구축 및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 강화 등을 통해 광주형 장애인 평생교육 체계 구축

○ 추진개요

- 장애성인의 초·중등 학력인정 교육과정 취득 지원
 - 교육부에서 초·중등 문해교육과정 개발 중으로 향후 시 교육청(운영 총괄) 계획 수립 예정('23.)
 - 교육부 가이드라인 확정 후 시 교육청과 협의, 역할분담 등 지원방안 마련

* 교육부 초등·중등 문해교육 기본 교육과정 고시 제정('20.12.)

- 장애성인 초·중등 취득 지원을 위해 장애인, 일반평생교육시설, 장애인복지관 등에서 교육과정 이수 후 교육청(운영 및 관리 총괄) 심사 후 학력 취득 가능

• 장애 친화적 평생학습 환경 구축

- 장애인 평생교육 강사 양성 및 파견 등 프로그램 운영 지원('23.)
- 자치구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정·운영을 위한 전문가 자문 및 컨설팅 지원

* 자치구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3개구 공모 선정(서구, 남구, 북구) : '22. 3.

•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기반 강화

- 장애인 평생교육 전담인력 총원('22.7.)에 따른 장애인 평생교육 거점기관('20.5. 교육부 지정)으로서 평생교육진흥원 기능 및 역할 확대
- 장애인 평생교육 기관 관계자·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한 수요자 중심 평생교육 방안 강구
-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 및 관계자 역량강화 교육 추진

•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맞춤형 지원 강화

- 장애의 정도·유형을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운영(문해, 문화예술, 생활체육 분야 등)
- 장애인 가족 및 부모 역량강화 교육 지원
- 장애인 평생학습프로그램 민간 공모 및 자치구 장애인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
- 장애인 평생교육의 체계적 관리 및 정보제공 강화 지원
 -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 중장기 발전계획('23.~27.) 등 장애인 관련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 정책토론회, 심포지엄 등 관계자 의견수렴 및 정보 공유, 장애인평생학습 성과보고회 등
 - 장애인 평생교육 기관 및 프로그램 홈페이지 게시 및 홍보
 -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별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 조사 및 홍보 등
-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매뉴얼에 따른 운영비 지원
 - 교육청과 협력, 장애인평생교육 시설 운영 및 프로그램 운영비 등 지원
 - * 실로암 장애인평생교육원 등 5개소 / ('22년) 500백만 원(시 100, 교육청 400)

■ 공약평가

- 개인마다 역량에 맞춰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는 장점임.
- 장애인에게 단순한 지원금 지원하기보다는 교육을 지원하여 사회에 어우러질 수 있는 방향성이 좋다 생각함.
- 비장애인 뿐 아니라 장애인들도 누려야 하는 학습의 기회를 공정하게 주어짐.
- 나이와 정도에 제한 두지 않고 평생교육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이 좋음.



■ 배심원단 권고안

- 사업의 예산을 더 늘려야 함.
- 프로그램의 연령 구분이 필요함.

■ 제안이유

- 사업의 예산을 더 늘려야 함.
 - 많은 대상이 평생교육을 누릴 수 있는 예산이 충분한지 우려됨.
- 프로그램의 연령 구분이 필요함.
 - 비장애인도 연령을 구분하여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장애인들도 중증도뿐 아니라 연령을 구분하여 교육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생각함.

■ 기타의견

-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필요함.
 - 찾아가는 교육이 있더라도 이동권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은 참여가 어려울 것 같음.

공약실천계획 평가	5-15-1	위원회 일괄 정비 및 운영 내실 강화
--------------	--------	----------------------

■ 사업 개요

○ 추진목표

- 기존 위원회를 대폭 정비하고, 위원회 남설과 영구 존속을 방지하여 정책 과정의 비용과 업무부담의 절감 등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 추진
- 위원회 운영 근거 및 방식 개선을 통해 운영 책임성 및 내실 강화

○ 추진개요

□ 기존 위원회 일괄 정비

- 추진대상: 총 248개 위원회 중 자체 정비가 가능한 141개 위원회*
 - * 법령상 강행 설치 제외한 전체 위원회(법령 임의설치, 조례 및 방침상 위원회)
- 추진시기: 2022년 7월 ~ 2023년 6월
- 내 용: 회의실적, 기능 및 필요성 점검하여 폐지, 통·폐합, 비상설화, 협의체 전환 등 위원회 수 정비

□ 위원회 운영 내실 강화

- 추진대상: 법령·조례·규칙 등에 근거한 전체 위원회
- 추진시기: 연중
- 내 용
 - ① 민관협치협의회 우선 활용 검토
 - 위원회 신설 및 정비·활성화 협의시 민관협치협의회로의 통합 운영 우선 검토
 - ② 위원회 남설 방지 : 총량제 강화
 - 위원회 신설시 기존 설치된 위원회 통·폐합 의무 부과(단, 법령상 강행 위원회 제외)



③ 영구 존속 방지 : 일몰제 도입

- 市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위원회 존속기간(4년) 도래시 자동 폐지 규정 신설

④ 위원회 운영실적 점검 강화

- (점검기간) 매년 초
- (점검사항) 위원회 현황, 회의 개최실적, 참석률, 규정준수 여부 등
- (결과활용) 위원회별 회의 실적, 참석률, 중복참여 위원 명단 등 점검 결과 공개, 운영실적이 저조하거나 부실한 위원회 활성화 및 정비계획서 수립

■ 공약평가

- 불필요한 위원회를 정비하는 것은 세금 낭비를 막을 수 있음.

■ 배심원단 권고안

- 적극적인 위원회 정비가 필요함.
- 기존 위원들의 능력 검증과 투명성 확보해야 함.

■ 제안이유

- 적극적인 위원회 정비가 필요함.
 - 통폐합이 권고사항이며 소극적인 태도로 보임. 실제로 필요하지 않은 위원회들이 계속 유지된다면 세금 낭비이며 비효율적인 정책이 됨.
- 기존 위원들의 능력 검증과 투명성 확보해야 함.
 - 위원회뿐만 아니라 위원 선정에 투명성을 가지고 위원들의 능력 검증이 이루어져야 함.

■ 기타의견

- 복지나 시민소통을 위한 위원회 신설 필요함.
 - 위원회 통폐합뿐 아니라 실제로 필요한 위원회가 유치되어야 함. 광주

시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루어진 위원회가 필요함.



■ 사업 개요

○ 추진목표

- 매년 시에서 추진하는 정책을 시민에게 공유하고 직접 평가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시민이 원하고 공감하는 정책수립 방향 제시
- 정책평가박람회 결과를 정책 반영 등으로 정책 선순환 체계 마련

○ 추진개요

- 추진시기 : 매년 시민의 날 행사와 연계하여 추진('23년부터)
- 추진방식 : (1차) 온라인 / (2차) 오프라인
- 주요내용 : 시 정책소개, 정책의 시민평가 및 의견수렴 등
- 소요예산 : 총 160백만 원 (시비)
 - 매년 1회(40백만 원) * 4회 개최

■ 공약평가

- 온라인을 활용하지 못하는 어르신들도 정책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장점임.

■ 배심원단 권고안

- 많은 인원이 모이는 행사에 부스 개최 필요함.
- 미흡했던 정책도 평가할 기회가 필요함.

■ 제안이유

- 많은 인원이 모이는 행사에 부스 개최 필요함.

- 시민의 날 행사보다 현장평가를 통해 충장축제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행사에서 부스를 개최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음.
- 미흡했던 정책도 평가할 기회가 필요함.
- 정책평가박람회인데 좋은 정책만 평가되고 있음. 2021년에 우수정책으로 선정되었던 정책들의 현황과 평가도 필요함.

■ 기타의견

- 예산을 늘려야 함.
-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얼마나 정책평가박람회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 우려됨.
-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
- 시민의 날 행사장에 가는 사람들은 이미 정책에 관심이 있는 사람임. 오프라인 부스를 만들기보다는 온라인에서도 정책을 홍보하고 정책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더 알리는 방향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임.



제4장

시민배심원 활동 후기



제4장 시민배심원 활동 후기

■ 분임별 소감나누기

- 2, 3차 회의를 마치고 진행된 ‘소감나누기’에서 제시된 의견임.

1분임 (열정)

의견1 몰랐던 것을 공무원이 와서 잘 설명을 해줘 이해할 수 있었다. 배심원들이 말씀하실 때 다른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어서 좋았다.

의견2 광주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이런 기회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의견3 처음 왔을 때 무엇하러 왔는지 몰랐고 걱정도 했었다. 오늘 참여하면서 참 건전한 자리라고 생각했고, 의견을 좀 더 내도록 하겠다.

의견4 이런 자리는 처음이었다. 나와 다른 의견이 많다는 것을 느꼈다. 광주 시정에 대해서 다시 알게 되었다.

의견5 아직 다른 시민들도 그렇겠지만 미흡한 부분도 많았을 텐데, 공무원이 잘 설명해줘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더라. 다른 분들 의견도 듣고 배우는 시간이었다.

의견6 현장의 소리를 공무원이 다 알 수 없고, 맞는 것도 사실이고 틀린 것도 사실이다. 다양성 자체가 발전하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의견7 광주시민의 여론을 형성하는데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어 보람 있었다.

의견8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서로 의견을 들어볼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 이런 장을 마련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날카로운 지적도 우리도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어 좋았다.

2분임 (빛고를 광주)

의견1 이전에 몰랐던 내용들이 너무 많았다. 광주 문화 자체에 대해 잘 알지 못했고, 공약 자체도 잘 알지도 못했었는데, 광주를 빛낼 수 있는 공약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면서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다.

의견2 모르는 것들을 많이 배웠고, 많은 것을 느꼈다.

의견3 게임 사업 이야기할 때는 왜 하나 했는데, 어떻게 보면 알토란이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전화됐다. 게임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는데 사업성이 있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생각이 바뀌었다.

의견4 게임 개발자를 위한 축제로 경쟁력 있게 느꼈는데, 내용을 보고 실망을 했는데, 광주광역시에 도움이 되고, 돈이 되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

의견5 담당 공무원들이 설명을 잘 해주셔서 좋았다.

의견6 이스포츠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잘 설명해주셔서 깨닫게 됐고, 공무원들이 시 전체를 아우르느라 고생 많겠다는 것이 느껴졌다.

3분임 (사랑의 광주)

의견1 마지막 안건이 미정인데 공약집에서 안건으로 올린 것은 아쉬운 점인 것 같다.

의견2 실무자들과 이야기 하면서 구체적인 계획을 들을 수 있어 좋았다.



의견3 짜인 정책이다 보니, 더 솔직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없는 것 같다.

의견4 잘 모르겠다. 공약집에 나와 있는 내용들도 공부를 해서 와야 하는 부분도 있고 마지막 안건은 미정상태라 더욱 어렵다.

의견5 궁금했던 점이 있었는데 질문 할 수 있어서 좋았고 마지막 안건은 처음 조리원 설립한다는 건 줄 알았는데 1차 회의와 내용이 많이 달라져서 어렵다.

의견6 쪽 네 안건을 검토하고 질의응답 하는 시간은 보람을 느낀다. 마지막 안건의 경우는 하겠다고 선언했다가 공약이 후퇴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 마지막 안건은 재검토가 필요한 것 같다.

의견7 설명도 잘해주고 시에서 많이 참고하면 좋겠다.

의견8 배심원이라고 하는데 배심원 같지 않은 느낌이 있다.

의견9 공약집보다 화재, 지역이슈와 관련한 것들을 모아서 논의하라고 했으면 더 좋았겠다.

의견10 첫날에도 공약집 보는 것, 안전상정도 시간이 짧아서 상정부터 어려웠던 것 같다.

의견11 3회차 회의가 짧다. 안전 상정기간을 늘려주면 좋겠다. 배심원의 역할을 좀 더 분명히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의견12 마이크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도구가 필요하다. 너무 안 들린다.

4분임 (경제 비타민)

의견1 안건별로 구체적인 안이 없는 게 아쉽다.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 회의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아 아쉽다.

의견2 업체 선정이 됐다고 설계와 용역이 나와야 하는데 그 부분이 없어서 아쉬웠다.

의견3 3차 회의 참여하기 위해 2주 동안 고민을 많이 해봐야 할 것 같다.

의견4 많이 배우는 것 같다.

의견5 우리가 할 일이 별로 없는 것 같다. 회의적이다.

의견6 강기정 시장님 공약인데 준비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든다. 추진 의지가 있었다면 현실적 계획이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한 상태에서 토의가 시작되어 얼마나 좋은 결과가 나올지 의문이 든다.

의견7 질문을 했을 때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없어 아쉬웠다.

의견8 의견제시나 해야 될 이야기가 많이 있을 줄 알았는데 아직 시작 단계의 사업들이라 할 게 별로 없는 것 같다.

의견9 갈 길이 상당히 멀다는 생각이 든다.

5분임 (성장)

의견1 평소 같으면 이런 정책이 있는지도 모르고 넘어갔을 텐데 앞으로는 이런 정책에 관심을 가지게 될 것 같다.



의견2 정책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될 것 같다.

의견3 아동들에게 월 50만 원의 예산이 지원되는 것도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된다.

의견4 직접 설명을 들을 기회가 없는데 이런 자리를 통해 들을 수 있어서 좋았고 다른 분들의 의견도 들을 수 있어서 좋았지만 환경이 아쉬웠다.

의견5 잘 들었지만 회의장 분위기가 산만하여 아쉽다.

의견6 많이 아쉬웠다. 공무원들의 이야기가 보편적으로 느껴지고 크게 바뀔 것 같지 않아 아쉽다.

의견7 실무자들에게 자세하게 얘기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

의견8 공무원 분들의 준비가 미흡한 분이 있어서 아쉽고 다른 분들이 열의를 가지고 해주셔서 감사하다. 주의가 집중되지 못한 것이 아쉽다.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한국의 지방자치는 권력기관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주권재민의 원칙에 소홀하였다. 시민자치의 성공은 지역시민의 대표성을 확보한 단위의 구성이다. 이를 통해 자유롭게 다양한 의사를 표현하고 토의와 심의를 거쳐 시민들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결국, 주권재민의 실현은 공적 영역(public realm) 확보와 절차적 정당성, 민주적 책임성에 기반한다고 볼 수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는 그 사회가 당면한 문제들의 해결 방안과 미래비전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지방선거에서는 지역마다 고유한 과제들이 의제화되고, 서로 다른 판단과 견해가 동등한 무게로 다뤄져야 한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는 디지털사회로의 전환과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 팬데믹 등이 뒤엉킨 대전환기에서 치러졌다.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다양한 대책과 정책이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소중한 과정이 되어야 했다.

하지만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국정안정론과 정부견제론에 빠지면서 지방이슈와 자질검증, 공약과 정책을 검증하는데 소홀할 수 밖에 없었다. 선거과정에서 지방이슈와 정책에 대한 정보가 유권자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고, 다양한 의견이 서로 교환되며 공통적인 의견을 도출해 내는데 어려움을 겪었다면 보완적 절차의 수행이 시급하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매니페스토본부가 제안하였던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실천계획서 작성과 공개, 그리고 배심원단 구성을 통한 공약실천계획평가는 복잡하고 파편화된 시민들이 자유롭게 자기 의사를 표현하고 협력하는 '공동창조자(cocreator)로서 참여하는 통로를 마련하자는 제안이었다. 현대사회에서 공통적으로 인지되는 사회문제의 해결과 공약실천을 위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지역시민의 고유 권한을 보장하자는 강력한 권고였다.

시민들로부터 민선 8기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철학과 가치는 명확하나, 유권자에게 제시한 코로나19 대책과 디지털사회로의 전환 및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 대응책이 충분히 토론되지 못했다.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 간 불균형에 대한 지역사회의 합의과정도 아쉬웠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인구비례에 의해 선발된 배심원단 운영은 인수위나 비전위원회에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을 따져 선거공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위헌적 위법적 주장을 제어하면서 행정의 투명성과 민주적 절차성을 확보해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선거에서 유권자에게 제시했던 공약과 정책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는 그 사회의 민주주의 성숙도를 객관적으로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라 볼 수 있다. 그 진화의 일면적 증거는 ‘선거 공약이 더 이상 깨뜨려도 괜찮은 약속처럼 취급되는 일은 없을 정도로 관리가 되어져가고 있는가’이다.

배심원단 운영은 광주광역시민과 지자체가 직접 교감하여 민선 8기 공약실천의 기초와 방향을 설정함은 물론, 공약이행 과정에서 신뢰행정의 모델을 발굴·확산시킴으로써 시민소통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건강한 지방자치와 성숙한 민주주의를 한 단계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데도 그 목적이 있다.

지방자치는 공공성과 지역 구성원들이 추구하는 가치(Value), 그리고 철학(Philosophy)의 실현을 위한 것이다. 평범한 시민이 인구비례에 의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지방행정에 참여하는 배심원제는 그 실현과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으로 효과적이다. 또한, 배심원단으로 참여한 시민들의 지역 및 행정에 대한 관심 제고와 타인에 대한 배려 및 다양성 존중 등 교육적 측면으로도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



부록



1. 1차 회의 교육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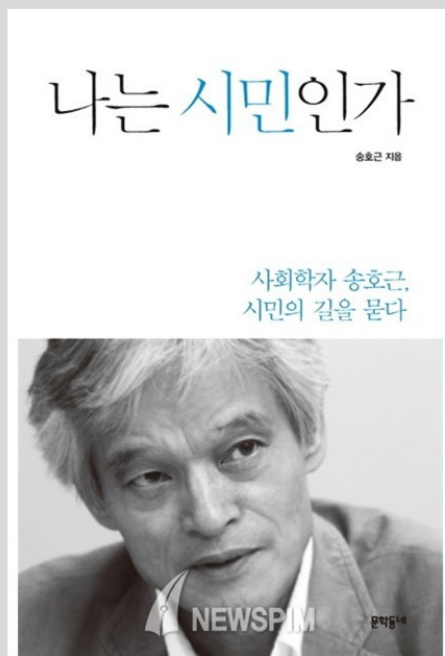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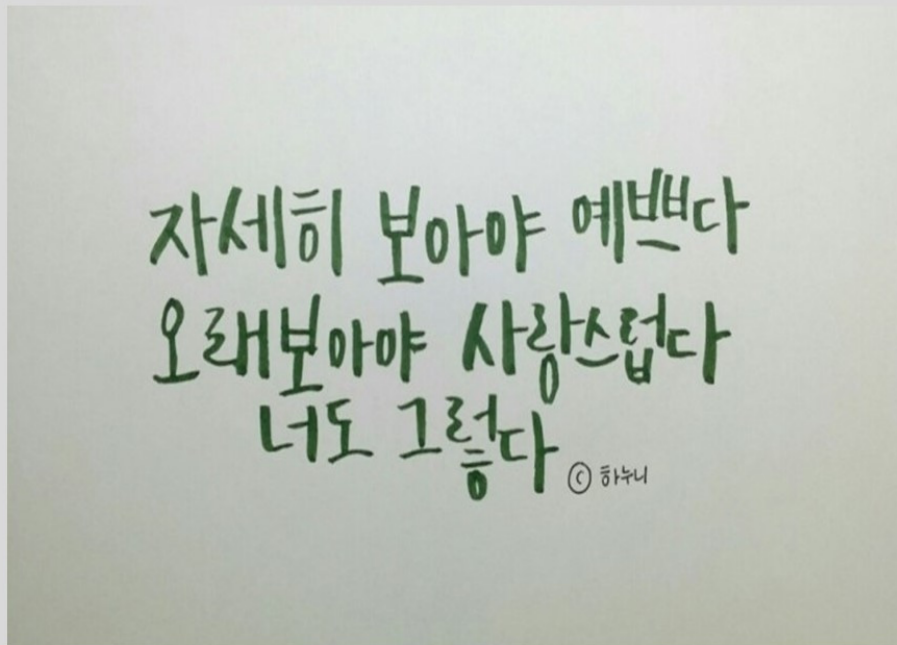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활동가 평균나이 27.2세

**“정치인의 표를 얻기 위한 거짓말과
약속실천을 검증하는 시민단체입니다”**



**도시의 공기는
인간을 자유롭게
한다**
- 독일 속담

광주광역시 시민배심원제 운영



지식기반사회, 집단 지성

코끼리 무게를 측정할 때 ...

전문가 한 사람보다 평범한 백 사람이 대략적으로
코끼리 무게를 예측한 것을 모두 더하고 그 수만큼 나눈 것이
코끼리 무게를 측정하는 데 더 정확했다.

“민주주의의 기본 매니페스토”

■ 매니페스토의 어원

- 증거, 증거물이 어원인 라틴어의 마니페스투스(manifestus)에서 유래
‘과거 행적을 설명하고, 미래 행동의 동기를 밝히는 공적인 선언’

■ 1834년 보수당 당수 로버트 필(Robert Peel)

- 탐워스(Tamworth) 선거에서 “더 이상 표를 얻기 위한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는 반성적인 선언에서부터 매니페스토 시작

■ 1997년 노동당 토니 블레어 (Tony Blair)

- 매니페스토 발표 후 집권에 성공함으로써 세계의 주목을 받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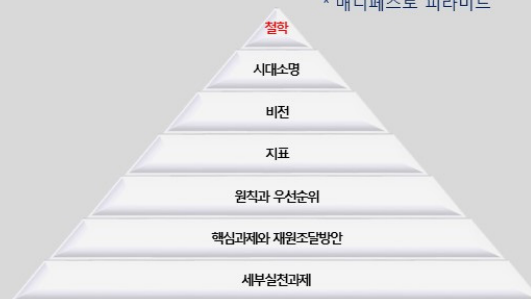


“기록하고, 기억하고, 통제한다”

- 철학과 시대소명에 따른 선택과 집중: 도전과 열정, 영혼이 깃든 책임공약
- 실행원칙과 그에 따른 우선순위 : 이것도 저것도 하겠다는 공약이 아닌 이것만은 꼭!
- 핵심과제와 자원조달방안: 왜(why), 무엇(what), 어떻게(how) 할 것인 지를 명백히 밝힘
- 세부실천과제: 핵심과제와 실행원칙, 그에 따른 우선순위를 도표화 함

* 매니페스토 피라미드

- ▷ 왜(Why) →
- ▷ 무엇을(What) →
- ▷ 어떻게(How) →



주권재민

“관객민주주의 Vs. 시민민주주의”





불가능해.
누가 오겠어?

시민들이
뭘 알겠어?

신분상승의 상징 '국회의원' 특권(200여개)

월평균 월급=941만원(연봉 1억 1300만원)

- 전직의원 매월 120만원 지원(2월 법안통과)
- 기본급(월급)에 해당하는 일반수당 월 520만원
- 매월 지급되는 입법활동비(180만원)
- 가계지원비(86만원), 관리업무수당(46만원)
- 특별활동비+상여금+장근수당+경철 휴가비+연간 1144만원
- 국회의원회관내 사무실 제공, 의정활동지원 보좌진 6명 제공
- KTX 및 국유철도와 선박, 항공기 무료 사용
- 회기 중 현행법 제외하고 불체포특권
- 후원회 소집 매년 1억5000만원까지 정치자금 모금

자료: 국회 상무회



심의회민주주의 등장의 의의

- ① 행정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
- ② 의사결정의 질 향상 (여론조사 vs 공론조사)
- ③ 이웃, 지역문제에 대한 이해와 관심 제고
- ④ 사적이익과 공적이익 간의 균형과 조화
- ⑤ 협력적 거버넌스 (정치 및 행정에 대한 관심 제고와 주민과 행정간 협력적 관계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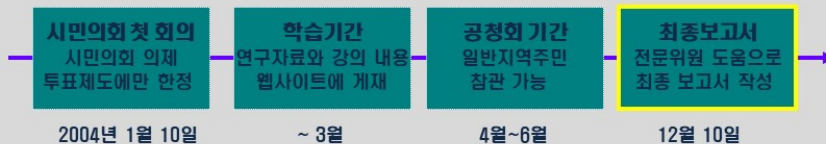


심의민주주의 실천 사례

-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洲) 정부는 지난 2004년 무작위 추첨으로 선발된 일반 시민들로 '브리티시 컬럼비아 시민의회(BCCA: British Columbia Citizens' Assembly)'를 구성
- 시민의회는 주의원을 선출하는 선거법안을 작성하는 권한을 부여받았고, 11개월 동안의 토론 과정을 거쳐 새로운 선거제도를 확정하고 주민투표에 회부



BCCA 운영 흐름



- 주말회의 (총 11회) : 1월, 2월 5회, 9월, 10월에 6회
- 예비보고서 작성 : 전문위원의 도움을 받아 3월 21일 예비보고서 작성
- 순회 공청회 개최 : 5월 3일부터 BC주 50개 지역에서 공청회를 개최



심의민주주의 5대 조건

- ① 대표성: 인구비례에 따른 무작위 표본 추출법
- ② 참여기회의 평등성: 과거 행정참여에서 배제되었던 주민들에게 참여기회를 평등하게 보장함
- ③ 정보제공: 2차 회의, 분임활동을 통한 정보 획득
- ④ 토의과정: 2차 회의, 분임활동, 3차 본회의를 통한 숙의 보장
- ⑤ 결과 반영: 수용여부 공시



주민배심원제 운영 과정



일정 및 내용

구분	시간장소	주요내용
1차 예비회의	10. 4(화) 1330 ~ 1640 (광주광역시청 3층 중회의실)	○ 위촉장 수여 ○ 맥니퍼스투 운동과 시민배심원단에 대한 교육 (한국맥니퍼스투실천본부) - 주민참여와 심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 지역현황, 단체장 철학과 그에 따른 핵심정책기조 - 시민배심원 운영 목적, 운영개요, 역할 등 ○ 5개 분임 구성 및 분임별 토의(논의)별 추천자 각 1명 참여 - 참석자 마음열기(아이스 브레이킹) - 시민배심원 역할 및 향후 일정 안내, 분임별 다짐 공유 및 발표
2차 예비회의	10.19(수) 1330 ~ 1730 (광주광역시청 3층 중회의실)	○ 심의 안전 설명회 (주관부서⇄주민배심원) - 분임별로 배분된 사업 담당자가 직접 설명, 시민배심원 질의에 대해 답변 - 설명 종료 후 시민배심원 자유 토의
분임활동	10.20~11.01	□ 주관 부서 담당자와의 심층면담 □ 현장조사
3차 본회의	11.2(수) 1330 ~ 1730 (광주광역시청 3층 중회의실)	○ 분임토의 - 분임별 소관 안전에 대한 토의 및 의견 정리 - 분임별 공약 조정 적정여부 토의; 찬반토의 및 찬반의견 집계 - 분임별 공약이행 평가; 성과, 문제점 제시 및 개선방안 아이디어 마련(분임참석자 과반 이상 찬성으로 권고안 채택) ○ 전체회의 - 분임별 회의 결과 발표 및 질의응답 - 공약 조정 적정여부 토의; 전체 시민배심원 투표로 최종 승인 여부 결정(과반수 이상 찬성 시 승인) - 공약이행 평가; 전체 배심원 합의로 분임권고안 최종 승인



공약은 민원의
나열이 아니다
공약은 공적인
약속이며 반드시 지켜야 할 사회적 계약이다



감사합니다.

2. 3차 회의 교육자료

분임토의 및 전체회의

광주광역시 시민배심원단 본회의 진행 설명

2022. 11. 2.

Manifesto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국회, 욕하면서 닦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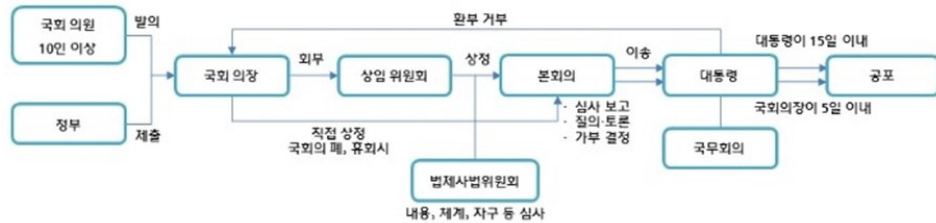


Manifesto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국회 입법과정과 입법 절차

입법 절차



- ① 제안
- ② 회부
- ③ 상임위원회 심사
- ④ 법제사법위원회 내용·체계·자구 심사
- ⑤ 전원위원회
- ⑥ 본회의 심의·의결
- ⑦ 정부 이송
- ⑧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 ⑨ 공포

시민배심원단 회의 진행과정과 절차



본회의, 배심원단의 태도 (자세)

경청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존중

다른 사람이 충분히 말할 수 있도록 존중해 줍니다

신뢰

활동과정에서 들은 중요한 비밀은 다른 이들에게 전하지 않습니다



본회의, 배심원단의 태도 (마음가짐)

우리들은 주민을 대표해 공약의 조정 적정여부 심의와 이행 평가를 하는 배심원단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내리는 결정은 광주광역시를 위한 매우 중요한 권고사안입니다.
선입견을 내려 놓고 자신의 이해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공공성도 함께 고려해 주십시오.





본회의,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역할)

공공성과 현재여건을 고려하여 공약조정에 대한 적정여부를 심의해 주십시오.
엄정한 재판관의 입장에서 광주광역시 전체의 공공성에 기반해 판단해 주십시오.



본회의, 어떻게 진행되는가

국회 소위 및 본회의 진행방식

분임토의 후 분임별 토의 결과를 전체회의에서 발표
분임별 투표 결과를 두고 배심원단 전체 투표로 최종 승인여부 결정

① 분임토의 : 분임별 안건 토의 (120분)

- 공약 조정 적정여부 심의, 중점 공약사업 추진상황 검토 및 아이디어와 개선방안 토의

② 전체회의 및 투표 (60분)

분임별 결과 발표 및 질의응답 (각 10분)

- 분임별 분임장 토의결과 발표 및 질의응답 (토의결과 발표 7분, 질의응답 3분)
- 공약 조정 심의 안건의 경우, 분임 미승인 안건에 대해 공약사업담당자 소명 기회 부여 (1분)

전체 주민배심원단 투표

- 공약 조정 심의는 분임 안건에 대한 전체 배심원 투표로 최종 승인 여부 결정 (참석자 과반 찬성)

감사합니다



민선 8기 공약실천계획수립을 위한

2022 광주광역시 시민배심원 회의 운영 결과 보고서

발행일 2022년 11월

발행처 광주광역시

제 작 광주광역시

집 필 사단법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